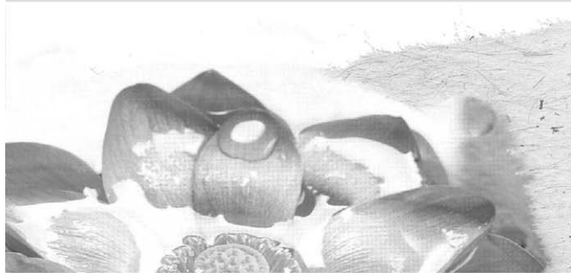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기 2552년 5월 7일(음력 4월 3일) 수요일
buddhanews.com 제 678 호
봉축특집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월 3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 전야제 ‘연등놀이’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기획국장 성 무 교무국장 연 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남 전 호법국장 도 정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興寺



회 주 설악무산
운영위원장 도 후
부 주 지 우 송

총무 동선 기획 홍구 교무 현담
재무 일음 포교 지상 사회 일도 호법 일해

- 신흥사 향성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법인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회관
- 금강장애인보호소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033)636-7044,7393 FAX 033)636-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통일대불

대중일동

신도회장 김석순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 / 팩스 053)985-4405

http://www.donghwasa.net

봉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축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주 지 남전 호성

총 무 등운 기 획 지현
교 무 성공 재 무 도륜
사 회 등목 호 법 정우
포 교 용담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사 부 대 중 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TEL 054)833-2324 FAX 054)834-6935

홈페이지 www.gounsa.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 륵 성 지

모악산 금 산 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벽산 원행

부 주 지 원광 재무국장 보 순
총무국장 원 혜 포교국장 덕 림
기획국장 덕 산 사회국장 석 문
교무국장 대 명 호법국장 원 성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063)548-4440~2 / 팩스(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E-메일:geumsansa@hanmail.net

봉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三角山華溪寺

회 주 송원 설정
주 지 수경
국제선원
신도회장 호법행
사부대중일동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국제선원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내 · 외국인)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새벽 4시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수선회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3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후1시30분~3시30분

"1불자 1자비 실천" 운동
자비보시기금회 지원단체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독거노인 지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타	국립재활원/의료원
라오스 화계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지원
군 법당 법회 지원	국제선원/도제양성

- 신도교육 / 불교대학 -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시
불교대학	주간1,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주말1,2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후1시~3시
교양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 자비보시기금회 : 국민은행(353-25-0004-961) 예금주: 화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三角山華溪寺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www.hwagyesa.org
☎ 02)902-2663, 997-6469 전송 02) 990-1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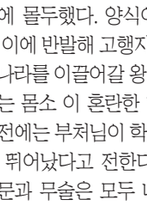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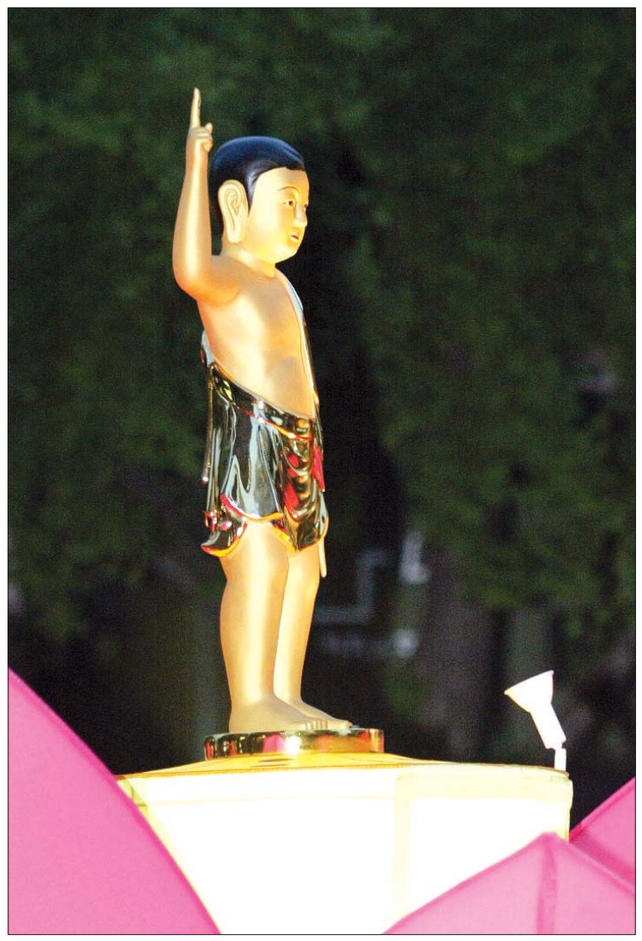
"낮추고 성찰하며 깨침의 길 열자"

특집칼럼-부처님처럼 살자



김 광 하 | 작은손길 대표

연세대 상과대학 졸업 후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로부터 참선을 배웠다. 80~87년 다국적 기업인 '필립 브러더스'에서 근무하다가 87년 무역회사인 도이상사㈜를 창업했다. 97년부터 경불련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2004년 봉사단체인 '작은손길'을 설립하고 노숙자 시설인 '사명당의 집'을 개원했다. 현재 작은손길 대표, ㈜도이상사 사장, 불교공부모임 '법과 등불' 회장,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편집위원등을 맡고 있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부처님처럼 살기를 서원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높여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을까?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삶의 자취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싯타르타 왕자의 선택

부처님이 살던 시대는 전쟁이 빈번했다. 빈부의 차는 격심했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폭력 앞에 무너졌다. 도덕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가(바라문)들은 왕을 위해 전쟁의 승리를 빌어주었고, 대신 왕이 주는 공물로 호화롭게 살았다. 재물의 쾌락을 맛본 바라문들은 갖가지 명목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새로운 경전과 주문을 만들어 냈다. 제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많은 짐승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세상이 만드는 현실은 참담했다. 자비심은 땅에 떨어지고 왕족이나 바라문들은 재물을 늘리는 일과 감각적 쾌락에 몰두했다. 양식이 있는 수행자들은 이에 반발해 고행자의 삶을 살았다.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 고타마 싯타르타는 몸소 이 혼란한 현실을 목격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학문이나 무술에 매우 뛰어났다고 전한다. 왕자로서 배운 학문과 무술은 모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이 익힌 학문이나 무술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길, 즉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장차 큰 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등지고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출가 후 부처님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거지의 삶을 선택했다. 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5계에는 권력자 특히, 종교가가 지켜야할 금도가 잘 나타나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은 당시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경계한 것이다. 부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는 가르침이나 음욕을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혼란을 틈타 세력있는 사람들이나 바라문들이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함부로 남의 딸이나 여자들을 빼앗는 당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이나 왕 앞에서 고의로 위증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술 마시는 것을 삼가한 것은 술에 취해 죄없는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현실에서 한 말씀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부처님의 5계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절실하다. 사소한 잘못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태안 앞바다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지만, 피해를 준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 금전적 보상에만 집착해 자연을 파괴하고 죄없는 바다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이제 다반사이다. 증언이 뒤집혀지기 일쑤여서 누가 무엇을 말하든 진실에 대한 회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폭력과 분노도 일상적인 일이다. 북에서 탈출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중국에서 야만적인 고초를 겪고 있는가 하면, 가까이는 돈으로 가난한 나라의 여자를 사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도심에서는 벌건 대낮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끝내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곳이 우리 사는 곳이다.

상대방에게 참담함과 모멸감을 일으키는 말을 거침없이 뱉는 일이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반말과 상말을 하는 것도 흔한 예이다. 개개인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훌륭한지 몰라도, 집단적인 이기심 앞에서는 도덕과 양식, 심지어 종교적 인격마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세속의 불자들, 특히 당시 권력 엘리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경전은 이 의문에 답해주고 있다. 마가다국과 함께 또 하나의 강국이던 꼬살라국은 나라가 부강했던 탓에 왕을 위한 여흥이 많았다. 왕이 공원에 놀러갈 때 신하들은 코끼리를 부렸다. 그리고 코끼리 위에는 보석과 향수로 치장한 왕의 여자들이 신하들의 앞뒤에 앉았다. 코끼리가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마다 궁녀들이 앞뒤에서 신하들의 목을 끌어안거나 신하의 등을 붙잡았다. 전쟁을 일삼는 왕을 추종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한가한 여흥에서도 유혹과 위험이 따랐던 것이다. 부처님께 귀의한 꼬살라국 신하들은 불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왕을 모시고 여러 궁녀들과 더불어 놀았지만,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일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첫째는 코끼리를 몰되 바른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여 물들어 집착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제 자신의 몸을 단속하여 거기 넘어지고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그 때 왕의 여자들에 대해 잠깐이라도 바른 사유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들의 수행을 칭찬하자, 그들은 부처님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약속했다.

"저희들 집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늘 세존과 모든 출가자나 재가자들과 함께 같이 쓰겠으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잡아함경 '전업경')

신하들은 유혹이 닥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를 살피는 바른 사유를 실천했으며, 무아(無我)의 진리를 따라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낮은 삶에서 얻는 높은 기쁨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하루 한 끼 얻어먹으며 평생을 집없이 살았다. 자신을 낮추어 거지와 같은 삶을 선택했지만, 선정과 성찰을 닦아 평정과 기쁨을 누렸다. 옷 한 벌과 얻어먹을 밥그릇 하나만 소유하면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비로웠다. 자연과 인간을 함부로 해치는 일을 삼가며, 선(善)을 향한 노력을 기울였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 우정을 나누는 수행공동체를 실현했다. 이러한 부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불자들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을까?

환경이 파괴되고 가축들이 병으로 몰살을 당하는 지금, 욕망을 자제하는 자발적 가난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불자가 따라야할 수행으로 보기보다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한 보편적인 비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봉축특집 64면 지면안내

A판
부처님의 리더십 4면
부처님의 대화법 5면
재소자들의 어머니 안효진 보살 11면
각 종단 지도자 봉축법어 12~13면
초파일에 만난 선지식 16~17면

B판
초파일 토굴에서 만난 스님 2~3면
불자라서 행복해요 5면
보시·지계의 삶으로 행복해요 6면
인욕·정진의 삶으로 행복해요 7면
선정·지혜의 삶으로 행복해요 9면
옛판화로 보는 부처님 일생 11면
초파일에 읽는 소설 16~17면
초파일에 만난 저자 송준영 시인 28면

허허당의 세상만사



■ 인류의 꿈 (사랑)

다 알고도 다 아는 것을
다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각자(覺者)의 슬픔이요
세상이 참으로
덧없고 헛되고 꿈인 줄 알면서도
그 꿈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각자의 자비이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255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중앙종회의장 자 승
호 계 원 장 법 등
총무원장 지 관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봉축특집 불기2522년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한 리더"



허달 한국코칭센터 고문
(前 한국화인케미칼 사장)

그러니까 꼭 9년 전인 1999년 4월의 일이다. 당시 56세의 SK아카데미 교수였던 필자는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시행한 2박3일의 리더십 교육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에 참여한 동안 '내 진여(眞如)에 대한 기도문 형태' 로 사명서(使命書) 한 편을 얻었다. 이 사명서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삶의 나침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두(序頭)로 시작된다. "원(願)을 세웠으면 이미 이루었다는 진리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소서. 경건하며 진보하는 삶을 살며 누구에게나 유쾌하고 편안한 벗이 되게 하소서." 스스로 세운 '원' 에 따라 사는 삶은 '일체유심조' 를 믿는 삶이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경하며 사는 불자다운 삶이라 생각한다.

이 '원' 과 관련해서는 요즘 항간에 널리 읽히는 <시크릿(The Secret)>이라는 책을 비교하며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불자들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우주에는 무한한 예지(叡智), 무한한 자원(Resource)이 있어서 '긍정의 힘' 으로 이를 흡인(attract)해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머리 속에 상상하고 이를 원하고, 느끼고 이에 따라 행동하면 어느새 그 결과가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원리를 응용하여 아이들에게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행 등을 사진으로 붙여 넣는 비젼 맵(Vision Map)을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도록 지도(指導)하기도 한다. 같은 내용을, 신심 깊은 불자이며 일본 최고의 CEO라는 이나모리 前 교세라그룹 회장은 "마음이 부르지 않은 것은 얻을 수 없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하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원(願)을 세웠으면 이미 이루었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불교 리더십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다.

필자가 '사명서' 를 작성한 이후 리더십 전문교수가 되어 이러 저러한 강단에 두루 서보게 된 것도 불법(佛法) 인연에 따르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모처럼 불자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될 때면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리더십 본연의 강의에만 집중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더 일목요연하게 청중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와 상대되는 입장에서 일반 청중을 상대로 리더십 강의를 할 때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리더십 원칙이 바로 진리이자 불법 그 자체임을 청중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간절히 느끼게 되었다.

1964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광주 상무대에서 근무하고 제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상무대에는 육군보병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육군의 초급 장교를 육성 배출하는 임무를 띄우고 있었다. 그 보병학교의 휘장에 쓰여진 표어가 바로 '나를 따르라!' 였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리더십을 가르친 것이다.

유명한 <손자병법 리더십>이라는 책에서는 '인생이 곧 전쟁' 이라는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다. 다툼과 전쟁이 일상화된 세계의 신출귀몰하는 여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리더십 교과서라고는 하지만, 전쟁의 패러다임은 승패의 세계라 의외로 단순하다.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은 '나를 따르라' 하는 일사불란의 리더십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가 도래한 뒤에는, 이와 같은 리더십은 늘 혹독한 시련을 거쳐 와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본다. 권력이 되어버린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본말의 전도를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저지른 수많은 실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여 무상(無常)한 것으로 파악하는 불자(佛子)의 눈으로 보는 리더십은 어떠한 것일까?

리더십이란, '불타는 집(火宅)' 과 같은 이 세계가 모두 환상(幻)임을 바로 보고 홀연히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올바른 삶을 성취하며(Self Leadership), 타인 또한 그릇된 삶의 답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줌(Interpersonal Leadership)으로써 완성되는 자리(自利) 이타(利他)의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자신을 일개 승려라고 부른다. 물론 그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약점들만이 자신의 것이며, 영향력있는 큰 힘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인 것이다.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을 구현하는 것이다.

<장아함경>에 '시갈라' 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청년이 돌아가신 선친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 매일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방위 하늘에 경배하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참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다. 하늘의 여섯 방위에 경배하는 대신 자신 주위의 여섯 가지 소중한 관계 즉, 부자(父子), 사제(師弟), 부부(夫婦), 친구, 친척과 이웃, 고용주와 피고용인, 수행자와 신도 등에 대하여 섬김을 행하라는 가르침이다. 다름아닌 인간관계의 리더십(Interpersonal Leadership)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nadir; 하인, 고용인)을 섬기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경(經)에는 또 '섬기다' 라는 말의 뜻을 부연하여 새겼다. 소중한 관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섬긴다' 라고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 리더십의 본령은 '자기 리더십(Self Leadership)' 부터 시작한다. 수천 번의 전투에서 수천 명의 상대방을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다. 겸손, 인내, 성실성, 풍요의 심리, 열린 마음 등이 이 진정한 승리자의 덕목이다.

문제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결책도 거기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주도적(Proactive)이라는 말은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는 의미이다.

리더십은 코칭이라는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완성된다. 생전에 성철 스님께서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법문도 않으셨지만 많은 불자들 가슴에, 각기 근기(根機)에 따라 크고 작은 가르침을 남기셨다. 수범(垂範), '스스로 모델 되기' 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나는 한 마디도 법(法)을 설한 적이 없다"고 끊어 말씀하신 것이 그 원천이었다. 부처님은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사람과 하늘(人天)' 의 최상승 코칭을 설하신 것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극의(極意)가 언어 문자를 벗어난 곳에 있음을 보여 주신 예들이다.

공감적 경청, 맥락적 경청과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답을 구하게 하는 촉매로서 그 자체가 이미 리더십을 완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벽암록>에는 마부의 그림자만 보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명마(名馬)의 이야기가 나온다. 도(道)가 가르침을 받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자들에게 있어 리더십은 곧 '자리이타' 의 지혜
부처님은 이웃을 공경하는 '섬김의 리더십' 실천



삽화:문병성



봉축특집 불기2522년

"대화 잘 하는 비법은 화술 아닌 경청"



삽화:문병성



권경희 상담심리전문가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부처님 대화법은 상대의 말을 존중·수용하는 것
잘 듣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

김춘수의 시 '꽃'에는 우리네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첫 단계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다. 이름을 불러 주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중생의 소망을 일찌감치 아셨던 듯싶다. 불경 속의 부처님은 법문을 하면서도 늘 상대방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준다. "사리불이여." "아난다야." "급고독장자여."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이름 부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만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등기경>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 그 이름의 뜻을 풀어줌으로써 더욱 의미 깊은 만남으로 이끈다. 이름에 대해 단순히 뜻풀이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름 뜻만 잘 새겨도 바르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부처님처럼 접근하면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대화를 잘 하려면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잘 하는 가장 큰 비법은 '잘 듣기'다. 즉 경청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경청의 명수였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 주셨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화 상대에게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제대로 된 경청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잘 듣고 있는 중이며 또한 잘 들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하셨다. 누군가가 와서 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물음으로써 제대로 들었는가를 확인하시곤 했다.

가령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여쭈면 부처님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였는가?"며 다시 물으셨다. 이밖에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초점 주기, 선도 반응 등 반영적 경청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셨다.

이렇게 잘 듣는 태도와 방법만 익혀도 '대화 잘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다. 경전에 흔히 등장하는 "착하고 착하다[善哉善哉]"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상대방이 법문을 청하기만 해도 "착하고 착하다"며 반기셨고, 법문 내용을 잘 알아들으면 "선재, 선재라" 하고 기뻐하셨으며, 법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어도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며 기특해 하셨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수용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대화의 비법이다.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어법에 맞추어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화했다. <비하경(卑下經)>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대화법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는 건자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발우, 어떤 곳에서는 차류, 어떤 때는 비실다, 어떤 때는 바사나, 어떤 때는 살뢰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에 맞추어 대화를 해야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청소년들과 대화한다면 적어도 '오덕후(오타쿠-마니아)' 같은 인터넷 용어쯤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대화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이십억귀 비구가 있었다. 수행을 해도 별 성과가 없자 비구는 환속해서 보시로 복이나 쌓으며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속세에 있을 때 거문고를 잘 탔는가?"

이십억귀 비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거문고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소리가 좋지 않듯, 수행 역시 너무 급해도 느려도 진전이 없다"고 저 유명한 거문고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이십억이경(二十億耳經)>에 나오는 예화다.

<갈담경(竭曇經)>에서 한 우바새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애욕"이라는 설법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부처님은 그 우바새에게 적절한 소재를 곧바로 찾아내신다.

"만약 그대의 의부모가 덧없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겠는가?"

그제야 우바새는 화들짝 놀라며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

"장하십니다. 의부모의 비유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제게 의부모가 있어 날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나이다. 안부를 여쭈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근심이 생기거늘, 하물며 의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어찌 다만 슬퍼하며 괴로워할 뿐이겠습니까. 저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애욕인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예로 들 때 가장 실감하는 법이다. 부처님처럼 이런 점을 활용하여 대화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절묘한 효과를 볼 것이다.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대화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근기에 따른 자상한 수기설법(隨機說法), 온갖 자원과 방법을 활용하는 절묘한 방편시설(方便施設)이 들어 있다.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기, 그리고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하기다. 그런 연후에 각종 대화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 중에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제타숲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문안 올리고 한쪽에 물러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 이름은
'고르게 일으킴[等起]'이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고르게 일으킴이란 이른바
믿음을 일으키고, 계율·듣기·버리기·지혜
를 고르게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것을 고르게 일으킨다 하는 것이요,
이름을 고르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라."
〈등기경(等起經)〉

佛法

불기 2552년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불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성심과 성의로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많은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佛法의 정의를 근본으로 하여 이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천만 불자 모두가 불심으로 하나되어 로스쿨 인가에 큰 힘을 실어 주십시오.

로스쿨 인가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하기
동국대학교(www.dongguk.edu)
대한불교 조계종(www.buddhism.or.kr)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無明' 밝힌 오색찬란한 연등물결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축제
제등 행렬·대동한마당 등 봉축열기 가득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주제아래 펼쳐진 연등축제가 시민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법등(法燈)으로 서울 도심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문화축제인 연등축제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조계사 앞 거리와 종로 일대에서 거행됐다.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가한 이번 연등축제는 2일 강남 봉은사에서 개최된 전통등전시회를 시작으로 3일 저녁 조계사와 인사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야제(연등놀이)를 거쳐, 4일 본행사인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 제등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4일 오전 9시부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나눔의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외국인 등 경연대회, 사찰음식 체험, 대만 아악단 공연,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시연, 전래놀이마당 등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5만 명이 함께 어울린 흥겨운 마당놀이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법회가 봉행됐다.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 영겁의 세월을 견디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중생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자"면서, "그 서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 힘차게 행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남북공동 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불심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 마음 속 청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기원문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을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소서"라고 기원했다.

연등법회가 끝난 7시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한 10만개의 제등행렬이 탑골공원을 거쳐 종각까지 화려한 빛의 물결을 이뤘다. '사천왕등', '사자등', '코끼리등', '수월보살등', '돌리캐릭터등'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과 불자들이 직접 만든 오색 등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특히, 이번 제등행렬에는 2000여명의 외국인이 동참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

끝으로 저녁 9시 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는 김수철, 김현성과 우리나라, 박애리 등이 함께 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강술래와 꽃비가 어울려 대중들이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이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시청 앞 광장을 비롯 주요 지역에 1만개의 가로연등을 직접 설치,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작년 북촌 한옥마을에 이어 올해는 청계천 물길을 따라 다양한 전통장엄 등을 전시해 오는 1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시민들의 마음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5월 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사진 위)와 종로거리의 제등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조화로운 세상 함께 만들자"

교황청·기독교교회協 봉축 메시지 발표

교황청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는 1일 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전하는 '지구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란 제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언제나 자연을 매우 존중해왔고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구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쳐왔다"며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선구자가 되자"고 덧붙였다.

KNCC도 같은 날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강조하며 축하했다. KNCC는 "모든 종교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치점이 있다"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종교간 대화와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희망을 전하는 일을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4월 3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한 '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사진=박재완기자

"반야의 정치로 세상 이끌어주길"

18대 불자 당선의원 축하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4월 30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초선 권영진(한나라당) 김효재(한나라당) 조문환(한나라당) 현기환(한나라당) 의원과 재선 강길부(무소속) 강창일(통합민주당) 안홍준(한나라당) 유기준(무소속)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3선 최병국(한나라당) 추미애(통합민주당) 의원, 4선 이해봉(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의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반야의 정치로 세상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4선 이해봉 의원은 "'사바의 연꽃'이 되어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2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권익현·김태영·고두심씨 선정


권익현씨


김태영씨


고두심씨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지관)는 4월 30일 '불기 2552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권익현·김태영·고두심씨를 선정했다.

권익현 前 국회 정각회 회장은 국회의원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정각선원 국회 개원, 경찰서 경승 법사제도 실현 등 불교계 권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으로서 군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민·군 불교 유대강화를 통한 군불교 진흥과 발전에 기여했다.

탤런트 고두심씨는 방송과 연극무대에서 바람직한 불자상을 통해 불법홍포에 앞장섰다.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되는 등 오랫동안 불자연예인 다운 신행으로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시상식은 1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때 함께 진행된다.

김성우 기자

첫 불교 애니 '붓다' 조계종 포교원 제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최근 종단 첫 불교 애니메이션 '붓다'를 개발 제작했다.

포교원은 4월 29일 '붓다' 완성을 알리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선언' 2년차에 종단에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도해 드디어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붓다'는 지난해 안국선원과 화성 신흥사에서 지원한 포교후원기금으로 1년만에 제작됐다. 16:9 디지털베타 방식 고화질(H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김강진 기자

동국大 새 UI 제작·선포식

개교 102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새로운 대학통합이미지(UI)를 제작해 7일 개교기념식과 함께 UI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변경된 UI 중 권위상징로고(authority logo)는 각종 증명서, 학위기, 법적서류 등 학교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된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로고(communication logo)는 팔정도와 무량광을 의미하는 여덟 갈래 빛의 중심에 동국대를 상징하는 'D'를 형상화했다. 조동섭 기자

▲社令
취재부장 김재경 4월 21일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봉 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총 재 한국불교태고종 운 산
부 총 재 대한불교일승종 혜 정
부 총 재 대한불교무량종 혜 안

대 원 장 해동불교임제종 지 암
부대원장 한국불교조계종 보 현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법 장
한국불교대승조계종 법 광
대한불교무상조계종 대 광
금강불교조계종 혜 명
대한불교연화종 청 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능 인
세계불교법왕종 구 천
해동불교무량종 학 성
대한불교불교종 화 담
한국불교원효종 법 민
대한불교삼계종 일 초
대한불교약불종 보 각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덕 산
대한불교위앙종 위 산
한국선불교조계종 도 경
한국불교원각종 자 오
대한불교도천종 원 광
세계불교법사종 향 운
한국불교천태종 원 당
대한불교천지종 대 명
대한불교일월종 대 원
대한불교승각조계종 수 덕

■ 행정실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TEL 055)331-7901



동아시아 最古 목탑지 발견

서울 풍납토성서… 백제 불교 도입기 유구로 추정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관련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풍납토성에서 발견됐다.

한신대 박물관(관장 이남규)는 4월 29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경당지구에 대한 재발굴조사에서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구는 2005년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시굴조사만 마치고 중단됐던 44호 유구, 101호 유구, 206호 유구, 196호 유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6호 유구에서 발견됐다.

206호 유구에서 발견된 유구는 한 변 길이 10여m, 깊이 3m정도의 방형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를 점토와 사질토로 교대로 준판축하고 다시 그 위에 점성이 적은 사질점토를 성토한 유구다. 그 후 판축 성토한 방형 축기부의 중앙부를 직경 2.5m 정도의 범위로 다시 굴착해 할석을 채워 넣은 구조이다. 이 구조물과 유사한 형태의 유구는 사비기 백제 목탑지 등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축조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계자는 "추정 목탑 유구는 노출된 토층으로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동진의 스님 마라난타를 초청해 불교를 도입했을 당시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언키는 어려우나 이 유구가 목탑지로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 중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관련 목탑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고대의 경우 왕성 안에 사찰이 배치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라 풍납토성 내에서 사찰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풍납토성.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연화문와당, 중국제청자와 시유도기, 고구려 토기 및 각종 기와들이 출토돼 한성백제기의 문화상 연구에 확실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반도 '푸르게 푸르게'

조계종 민추본 '통일나무심기 사업' 추진

한반도의 산림을 함께 가꾸는 사업을 조계종에서 발 벗고 나선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통일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한다. 통일나무심기사업은 식량난의 한 원인이 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통일나무심기사업은 단순한 대북지원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통일된 미래의 생을 함께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민추본은 겨레하나 등과 함께 '우리겨레 푸른 숲' 단체를 만들어 우선 평양시 상원군에 양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다.

올 시행될 1차년도 목표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양묘장 건설 및 묘목지원으로 양묘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ha의 양묘장에서 키워낸 묘목으로 1000ha 면적의 조림수 300~500만 그루가 생산 가능하다.

이어 내년에는 묘목생산과 시범조림을 위한 종자와 자재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묘목을 생산하고 출하하게 된다.

이중 민추본은 시설양묘온실 1개동을 맡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추본은 6월 8일 오후 3시 30분 통일나무심기운동 선포식 및 민추본 창립 8주년 기념법요식을 열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법보展 개막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4월 28일 황룡사지 출토 사리, <보협인다라니경> 등 '법-소리 없는 가르침'을 주제로 개관 1주년 특별 '법보' 전을 개막하고 6월 29일까지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호계원장 법등 스님,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귀례 한국다문화협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의 역량으로 펼쳐낸 진리의 자취, 법의 향연을 통해 부처님의 깨우침이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전해지길 바란다. 문화를 지키고 민족의 얼을 살리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삶의 끝에 선 사람들에게 종교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의 죽음관은 무엇이고 불자들이 제대로 삶을 정리하게 만들려면 불교계에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포교연구실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5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의 주제는 '불교의 죽음관과 호스피스'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불교의 임종맞이 의식과 그 중요성'에 대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겸임교수가 발제,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소장(철학과 교수)이 토론을 맡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과 제도 확립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이 발제를 맡았다.

김강진 기자

문화재조사 140→40일로

토지개발 등에 앞서 선행되는 문화재조사 기간이 현재 14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조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통해 문화재조사 기간단축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대운하 착공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정책이 퇴보한 것"이란 평가를 했다.

조동섭 기자

용성스님 수행법 논의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몰록 깨달음(頓)과 점차 깨달음(漸) 어느 것이 불교적 깨달음일까? 지난 20여년간 한국불교를 뜨겁게 달궜던 돈오에 대한 논쟁이 "용성 스님의 깨달음이 간화선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발표로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보광 스님은 4월 29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백용성 스님의 대각증득과 점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스님은 "용성의 수행과정은 크게 16세에서 23세까지를 오도수행기(悟道修行期)로, 이후 40세까지를 오후수행기(悟後修行期)로 나뉘며, 4차에 걸쳐 깨달음을 얻었다. ▲꿈의 깨우침으로 출가 ▲다라니 염송으로 업장소멸 후 깨달음 체험 ▲화두참구로 대각증득 ▲경전열람으로 깨달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신라 화엄10찰 청담사 건물터 발견

서울 은평뉴타운 예정지서 명문 기와 발굴

강남 · 북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 은평 뉴타운 예정지에서 신라시대 10대 화엄사찰인 청담사 추정 건물터가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2007년 7월부터 SH공사 의뢰로 진관내동 일대 3-A 공구를 정밀 발굴조사했던 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신숙정)은 고려시대 대형 건물터에서 '삼각산청담사삼보초(三角山淸潭寺三寶草)'라는 글자가 적힌 평기와 5점을 발굴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삼각산은 고려시대 전기 이후 주로 사용된 북한산의 명칭이다. 청담사는 신라시대 10대 화엄사찰 중 하나로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 "해동의 화엄 가르침을 펴는 곳 열곳이 있으니…한주(漢州) 부아악(負兒岳) 청담사도 있다(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漢州負兒岳淸潭寺也)"고 적었다. 여기서 부아악은 북한산의 삼국시대~고려시대 당시 명칭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명문 발견은 그동안 정확한 위치나 존치 시기 등을 알 수 없었던 청담사의 위치와 존치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현재 발굴조사 중인 건물터가 일반 사찰터와는 다른 구조여서 청담사 터가 맞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인된 명문은 금석학자와 서체전문가 등에 정확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방송 18주년 기념식 유인촌 문광부 장관 참석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 특설룸에서 개국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의 최대 현안은 종합미디어그룹 도약과 상암DMC 진출"이라고 강조한 뒤, "템플스테이 등 불교의 무한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는 부처님 법음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불교방송의 기능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축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국회의원 50여명과 언론인, 불자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방송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사회포럼과 공동으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성우 기자


2일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금오사상연구소.

금오사상연구소 본격 활동 시동

한국불교연구원서 현판식

한국불교정화사의 주역 금오 스님의 학술적 재조명을 위한 금오사상연구소(이사장 월서)가 2일 서울 내자동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지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금오사상연구소 이사장 월서 스님, 부이사장 월탄 스님을 비롯해 진관 스님,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원담 스님(수국사 주지) 각원 스님(종회의원) 등 금오문도 출가자 20여명이 참석한 현판식에서,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의 불교정화이념과 승단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금오사상연구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탄 스님은 "간화선 중흥 등 종단 안건 중 다수가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 금오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밝혀 정법불교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인설립과 학술세미나 개최 등 활동에 나설 금오사상연구소는 오는 9월 금오 스님 열반 40주기를 기념한 <금오정화사상>을 출간에 즈음해, 7월중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교육원장 설허 만원
포교원장 상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총무부장 백봉 성관

원로원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문화원장 락허 혜운
규정원장 조허 혜윤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교육부장 일초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홍보’로 템플스테이 참여 늘리자

충남 템플스테이 관계자 간담회 개최

“템플스테이 참여 인구가 지난 2007년의 경우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내부 문제로 홍보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템플스테이 관계자 간담회가 4월 30일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광고 안내 표지판을 만들 때 담당 시·군 관할의 템플스테이 사찰을 함께 표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홍보마케팅 부분을 사찰 실무자들과 충남도정 관계자들이 모여 1년에 2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충남도청 문화관광과 박윤근 국장은 “관광 안내 표지판과 안내 책자의 템플스테이 사찰 표기는 추후 변경되는 표지판과 책자에 반영할 것”이며 “홍보마케팅 실무 회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협의단을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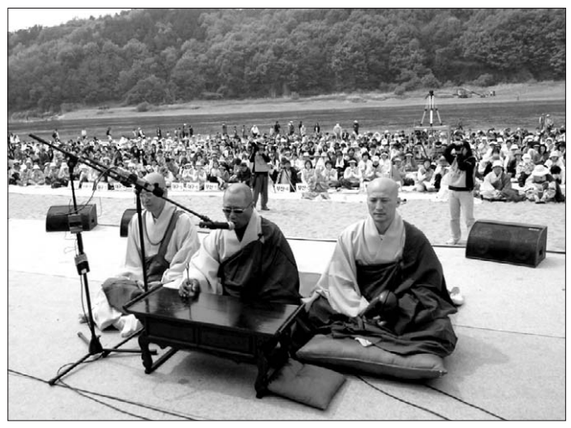
이어 수덕사 정경 스님은 사찰 내 배치된 문화해설사의 소양 문제와 공주시와 부여군이 주최하는 ‘백제문화제’에서의 템플스테이 홍보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문화해설사들이 스님들께 직접 교육받는 시간을 늘리고, 해설사를 채용할 때 사찰측과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평사의 구절초 꽃 축제와 템플스테이의 연계, 도정 관계자들의 템투어(tem tour, 템플스테이 사찰을 연계해 여러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손효선 기자

“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평화재단, 공주 곰나루서 대운하 반대 법회



4월 27일 공주 곰나루에서 열린 대운하 반대 참회법회. 왼쪽부터 법륜, 수경, 유수 스님.

“인간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줄기와 강줄기도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오만을 반성합니다.”

활발한 환경·사회운동을 펼쳐온 재단법인 평화재단(대표 법륜)이 4월 27일,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 솔밭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한 것을 반성하는 ‘참회 법회’를 거행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하 순례단)’의 참회 순례가 이어진 지 67일째 되던 이날. 1500여 대중이 동참한 참회법회는 법륜 스님의 법문과 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 수경 스님의 천도재, 순례단과 참석 대중의 108배 참회의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현재 우리들은 소비 중독과 같은 잘못된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기에 도덕성과 평화, 환경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경제얘기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고 지난 시절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해친 것에 대해 참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경 스님의 집전으로 인간에 의해 사라져간 생명에 대한 참회와 평안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천도재의 시작을 알리는 수덕사 포교국장 정경 스님의 법고 연주가 곰나루 솔밭에 울려퍼지자, 참석한 1500여 사부대중은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금강발원지에서 떠온 물로 ‘생명의 물’을 모시는 의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회의 108배는 금강을 바라보며 “나 살자고 다른 생명 해친 죄를 참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함부로 죽인 죄를 참회 합니다”, “사람 길을 낸다고 산과 들을 파헤쳐서 짐승 길을 끊어놓아 수많은 생명을 차로 치어 죽인 죄를 참회 합니다”등 36개의 ‘참회문’에 맞춰 각각 3배씩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순례단을 맞는 축하 무대도 함께 열렸다. 가수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내버려둬’ 등을, 뮤지컬 배우 박철우씨는 ‘상록수’, ‘희망의 나라로’ 등을 불러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흙피리 연주가 한태주씨, 배우 배종옥씨,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도 대운하 반대에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12일 김포 하성면 애기봉 전망대에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를 시작한 순례단은 이날 이후에는 금강을 따라 계속 이동하며 순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이동 경로 및 세부 일정은 순례단 홈페이지(www.saveriv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손효선 기자

서해 희생자 위한 천도재 열려

대불총·방생법회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



4월 26일 한강에서 열린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공동회장 대표 박희도)과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회장 이건호)가 4월 26일 한강수상법당에서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를 봉행했다.

서해교전 희생자와 서해 기름유출 사고의 희생자, 유주 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열린 용왕대제는 한강수상법당에서 1부 법회가, 유람선에서 2부 용왕제가 열렸다.

1부 법회에서 박희도 회장은 “서해교전 희생자, 서해안 기름유출 희생자 등을 천도하고자 용왕대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탐욕을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가 발전에 적으나마 기원코자 한다”고 인사말 했다.

2부 용왕대제에서는 김아리 시인의 헌시 낭송, 서인숙씨의 살풀이춤, 이종철 화백의 달마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종철 화백은 달마도 퍼포먼스 이후 인세 1000만원을 대불총에 즉석에서 기부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하림각 남상해 대표가 대불총 공동회장으로 추대돼 임명장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진산식

사대부중 1천여명 ‘축하’



법주사 주지 진산식에서 인사말하는 노현 스님.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신임 주지 노현 스님의 진산식이 봉행됐다.

4월 25일 법주사 대웅고전에서 봉행된 이번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종회의장 자승, 중앙신도회장 김의정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문중화합, 포교활성화, 복지사업, 수행공간 마련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노현 스님은 “법주사 선원과 함께 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법이 살아 숨쉬는 자비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현 스님은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1982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고운사 재무국장, 각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각화사 태백선원장과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있다. 스님은 3월 10일 열린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로 합의추대 됐고, 임기는 4년이다.

손효선 기자

대전시청 직장불자회 창립 기념 법회

대전광역시청직장불자회(회장 이진욱)가 창립 6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29일 대전광역시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대구 관오사 불교사회복지회 회주 자광, 백제불교회관 이사장 장곡, 대전비구니청림회 회장 효경, 동학사 주지 요명, 만불선원 주지 선오,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과 대전시 박성효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성효 시장은 축사에서 “대전광역시청직장불자회 창립 6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부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행(行)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청주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법회

BBS청주불교방송이 4월 29일 ‘개국 1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법주사 주지 노현, 관음사 주지 현진, 화장사 주지 무진,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과 남상우 청주시장,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혜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들에게 설한 그 말씀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청주불교방송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타 방송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선 기자

충북 부처님오신날 맞아 산사 음악회 잇달아 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청 지역에 산사 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천안 각원사는 9일 오후 7시 각원사 청동대불상 앞 야외무대에서 ‘범음 음악회’를 연다. 대중가수 이상은, 퓨전국악밴드 훌(wHool), 타악앙상블 포긱헤드(Four Gig Heads)등이 출연한다. (041)561-3545

서산 서광사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웅전 야외무대에서 탤런트 이의정의 사회로 ‘서광사 봄맞이 산사 음악회’를 연다.(041)664-2002

또한 청주 관음사는 ‘트롯트 산사 음악회’를 연다. 12일 오후 7시 30분 우암산 순환도로 청주대학교 후문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043)257-0565

손효선 기자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 부처님오신날 기원 법회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법주사 주지)는 1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처님오신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노현 스님은 봉축 법어에서 “불교는 모든 분야를 포용하고, 현실적인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다”며 “불자라면 본바탕에 ‘불교적 정신’과 ‘도덕’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원해, 대한불교수도원 주지 설곡, 관음사 주지 현진, 충청북도 이기용 교육감, 홍재형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옥천불교사암연합회 봉축공연·장학금전달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5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천진불(어린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중국 소림무술 특별공연 등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과 체육센터를 출발해 등기소, 경찰서를 지나 읍사무소까지 주민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한편 대성사(주지 혜철) 오순근 신도회장은 군내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봉 재단법인 한국불교증흥교원 축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종회의장 오봉 원로의원 정엄. 동산 수석부의장 청허 사무총장 청호

감찰원장 월산 문화원장 도신
교육원장 보명 비서실장 청묵

총무부장 청공 사회부장 원광 재무부장 유정 교무부장 청심
호법부장 혜송 호법국장 청담 조사국장 운봉 포교부장 원산
의전부장 해강 문화부장 지현 간사 예화

경북종무원장 해능 전북종무원장 진성

총본산 법우 여래사 청혜 성왕사 무극 지장사 봉암 지장선원 일도 심복사 혜종 화엄사 중현 묘인암 지선 연수사 정묵
보은사 정봉 쌍계사 혜조 원각사 랑지 법회사 두타 길상선원 정휴 보현선원 청우 참선공덕사 선학 도법사 명진 운부암 묘연
광용사 혜광 극락정사 혜인 대원정사 무명 보현선원 혜종 상무정사 상무 선법사 청신 구룡사 수진 행복선원 태광 관음사 청불
여여암 마덕 역덕사 덕균 일월암 일월 해강사 연화 약사여래암 경오 만수사 원경 영봉암 원성 노불사 보화 동인사 운봉
고산사 종혜 금룡암 혜경 묘진암 지선 관응사 법성계 관음사 득봉 철마사 청담

입종을 환영합니다

우주의 섭리와 부처님의 진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비요 연꽃입니다.
창종은 창의요, 창조입니다. 종단에 입종함은 진흙속에 연꽃 한송이가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종단에 등록하시고, 법적 행정적 보호를 받으십시오.

총무원장 서보현 합장

■ 입종 구비서류
- 사진 5매 (반명함판 3×4)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 혜택 : 사암등록증 발급, 임명장 수여, 승려증 발급

※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주소 :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보현선원 / 전화 032)518-1588. 011-9524-8080

생명나눔 불꽃행진 부산본부, 탁발순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4월 25일 '난치병 없는 행복도시 부산 만들기'란 제목으로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탁발순례대장정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 부산 지역본부의 본부장 원범스님과 부본부장 자인 스님, 목종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가해 서면 일대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김혜란 환우를 위한 탁발 행진을 진행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폐색전증과 복강내 종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혜란 환우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감로심장회 이사장 정명 스님, 취임식

(사)대한불교감로심장회 제7대 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4월 21일 진주시 상봉동불교회관에서 각 사암 스님,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시 부시장, 진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명 스님(진주 정법사 주지)은 진주교도소 교정교화위원, 진주불교대학 강의, 경상대학병원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명 스님은 "특별한 봉사의 소중한 기회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다리는 봉사가 아닌 찾아가는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감로심장회는 1990년 심장병 및 기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창립된 봉사단체이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월정사 '가정의 달' 10일 천년숲길 오픈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일, '생명, 평화, 나눔, 그리고 상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월정사에서 상원사 구간 10Km의 흙길을 걷는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따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기 기증과 아동보호 서약을 위한 서명, 가족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희망의 빛으로 밝은 빛고을"

광주 · 전남서 봉축 점등식 등 봉축 행사 다채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기원 삼보일배

광주전남봉축위원회(회장 성오 · 백양사 주지)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기원 삼보일배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가졌다.

광주전남봉축위는 4월 25일 아시아문화의전당 앞에서 성오, 정인(광주불교사암연 회장), 영조(송광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영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점등한 이 불빛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축위는 점등식에 앞서 광주의 중심가에서는 티베트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하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사를 가졌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 의식에는 지역 사암스님들과 포교사단, 청년회, 대불련 및 일반시민 300여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월 25일 광주시내에서 열린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기원' 삼보일배 행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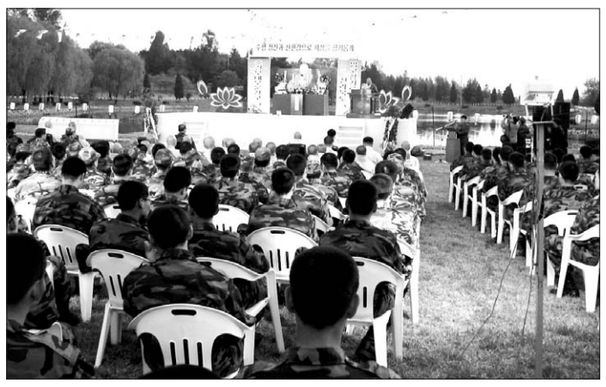
군부대 호수 가득 연등불 밝혀

전북봉축위 35사단서 연등제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는 1일 육군 35사단 충경부대내 세병호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한 연등제'를 봉행했다.

'병장기를 씻어 다시는 쓸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은 세병호(洗兵湖) 주변에 1천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가운데, 봉행된 이날 연등제에는 원행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익산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 35사단장 전동운 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전주 바라밀합창단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성을 닦아 먼저 자기 자신이 태양처럼 빛나는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이웃을 불보살처럼 존중하며 정성을 다하여 남편은 부처가 되고 아내는 보살이 되고 자녀들은 선재동자가 되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5월 1일 육군 충경부대내 세병호에서 열린 연등제.

전동운 35사단장은 "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왔다"며 장병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인격수양에 앞장서 준 전북지역의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연등제에 동참한 대중들은 오색 영롱한 연등이 수놓은 세병호 주변을 돌며 나라의 안녕과 겨레의 번영을 다짐하며 전북 발전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유형문화재 동화사 대웅전 1563호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8일 '대구 동화사 대웅전'을 보물 제1563호로 지정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0호였던 '대구 동화사 대웅전'은 493년 신라 보조 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하고, 772년 신라 심지왕사가 재창해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했다. 이후 수차례 중창이 있었고 현재 법당은 172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창했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에 외3출목, 내5출목 다포계 겹처마팔작지붕 건물로 배면 쪽 기둥은 자연곡재를 사용했고, 공포는 앙서형 제공, 내부쪽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해 장식한 조선후기의 전형적 전통양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남 유형문화재 제61호 '동화사대웅전'과 명칭 혼란 우려가 있어 '대구동화사대웅전'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우리도 이제 스님이에요"

홍법사, 동자승 삭발수계식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29일 홍법사 대웅전에서 '제4기 홍법사 동자승(6명)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 후 21일간 동자스님들은 부모들과의 만남은 일체 금지되며 새벽예불 및 사시, 저녁 예불 그리고 매일 발우공양에 참가한다. 환계식은 12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하성미 기자

초의문화제 '초의상' 수상자

윤병상 · 이혜자씨 선정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범각 · 윤형식)'는 제17회 초의문화제 '초의상' 수상자로 한국차문화연구회 윤병상 고문과 한국차문화협회 이혜자 부회장을 각각 선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한국차문화연구회 윤병상(75 · 연세대 명예교수) 고문을 선정하며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발기인 및 초대 이사로 <다도고전> 등 차 관련 저서와 논문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고 대학 강의를 통해 초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전승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차문화협회 이혜자(70) 부회장에 대해서도 "차 예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우리 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해 차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초의상은 <초의집>으로 유명한 초의 스님(1786~1866)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남시에서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 발전시키며 차 문화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올해 시상식은 4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렸다. 김강진 기자

행복한 5월, 부처님의 환한 지혜를 들려주세요

〈예스24〉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인터파크〉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교보문고〉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취학전 아동, 저학년 추천

1. 동양의 이솝우화, 백유경 시리즈



[백유경시리즈 1] 광대와 화가
최가민 글 · 박지매 그림 | 36쪽 | 9,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백유경시리즈 2]
최가민 글 · 혜경 그림 | 40쪽 | 9,000원

불교교리를 우화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처님의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학년 추천

2.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우리에게오신 부처님
이슬기 글 | 스튜디오돌 그림 | 172쪽 | 9,800원



얘들아, 절에 가자
홍주연 글 | 이경택 그림 | 160쪽 | 9,000원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는 보물이 가득한 곳!

"우리나라 절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글·사진
292쪽 | 12,000원

전국 사찰의 유 · 무형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한 책
–동아일보

이번 책은 10년간 100여 사찰을 답사한 저자의 성과물이다.
–조선일보

고찰은 문화재의 보물창고다. 궁금한 것도 한 둘이 아니다. 이 책을 보노라면 의문점이 저절로 풀리면서 불교가 가깝게 다가온다.
–세계일보

『조계종출판사』는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교의 향기를 한 권의 책으로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Tel 02-733-6390 | Fax 02-720-6019

조계종 출판사 | 인연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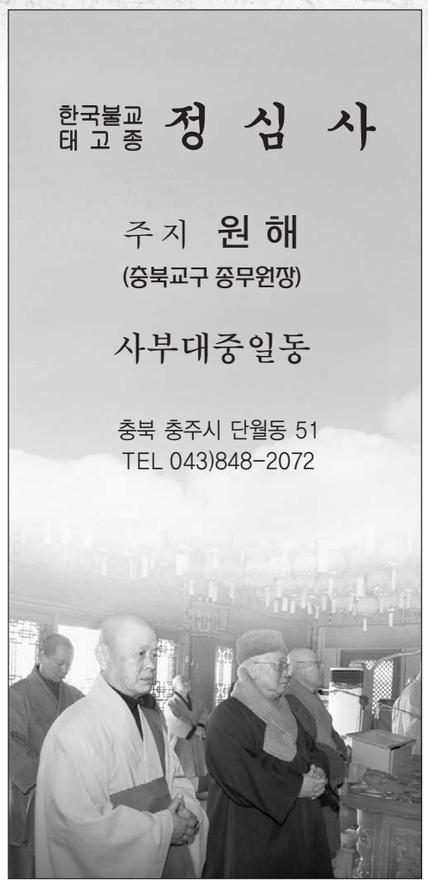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천연와불성지 지리산 법화도량
見佛寺
주지 보덕
세계최대 천연와불
(자연열반상) 친견도량
견불사 인터넷법당
cafe.daum.net/joungsimboduk
사부대중일동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1104-1번지
TEL 055)962-3931 FAX 055)962-3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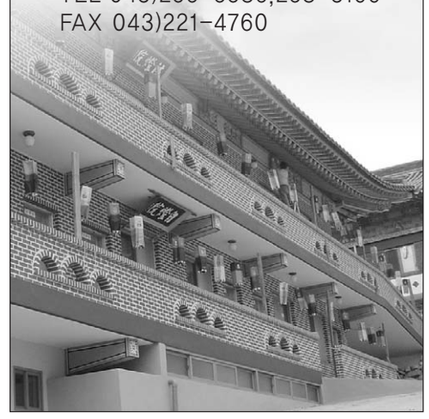
대전 백제불교회관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30번지
TEL 042)471-5547, 471-8214
FAX 042)487-3510



한국불교 태고종
정심사
주지 원해
(충북교구 종무원장)
사부대중일동
충북 충주시 단월동 51
TEL 043)848-2072



한국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교구본사 풍주선원
주지 덕일
사부대중일동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
TEL 043)256-5586,258-3199
FAX 043)221-4760



믿음과 신뢰의 40년 전통
보문불교서점
사장 김정수
대전 광역시 동구 중동 27-7
(홍명상가 제일은행뒤)
TEL 042)253-6446
H·P 011-403-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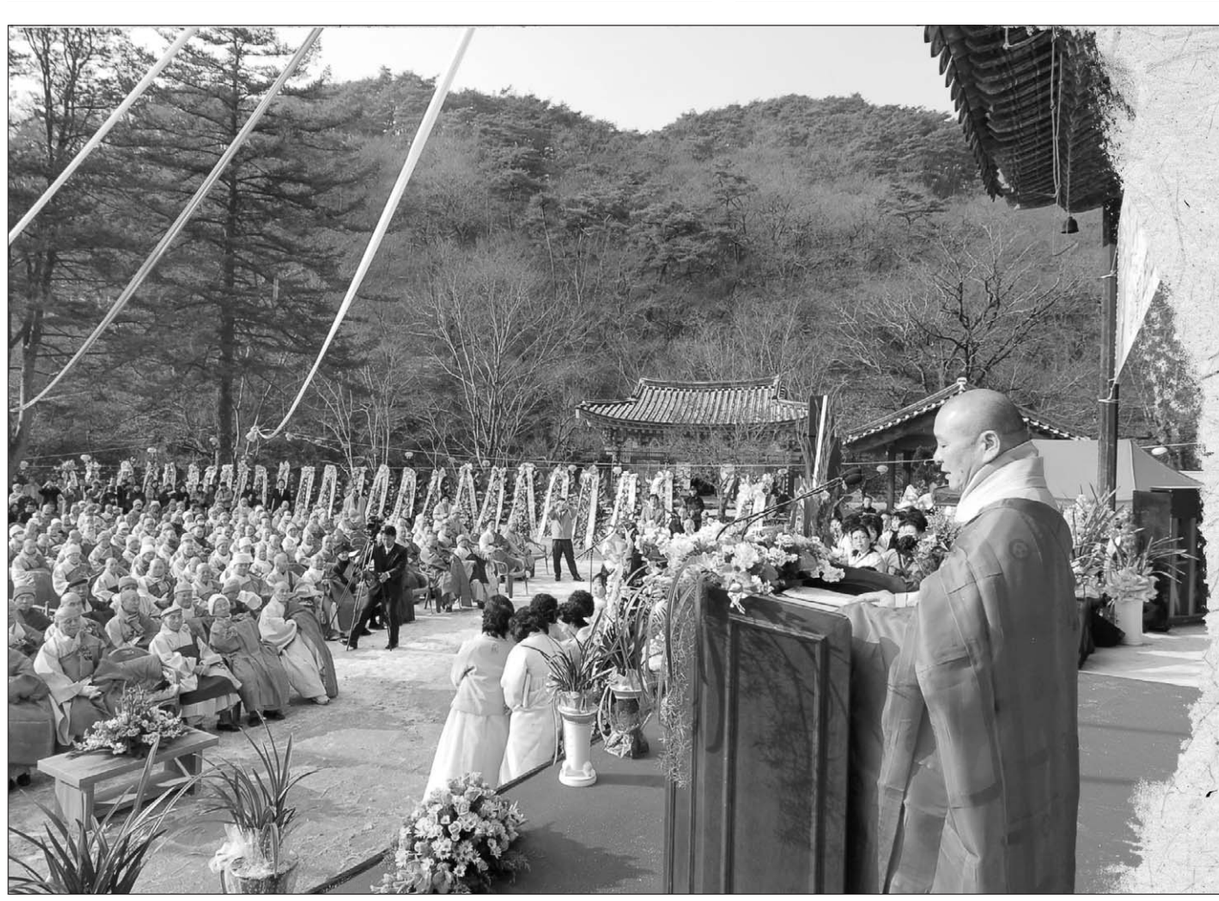
불기 2552년 5월 12일(4월 초파일) 2552 Buddha's Birthday
봉 부처님오신날 행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행사내용
1. 법요식(10:00) 관불의식
2. 점등 및 탑돌이
3. 탁본체험, 컵등만기 체험
그 공덕과 복이 한량없고 끝이없는 -
지장보살 천불봉안 접수중
약사여래불 주변불사 접수중
배례석(기도참배석),상석,기둥,지붕,촛대함 등
대한불교 조계종 갑사 주지 태진
갑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041)857-8981-2
갑사 홈페이지 www.gapsa.org



믿음과 신뢰의 40년 전통
석문사
주지 혜전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103-2
TEL 043)264-3008
H·P 011-9607-2199



연등축제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봉축 대법회
불기 2552(2008) 5월 4일(일)
장소 ▶ 청주 무심천 로올러 스케이트장
• 봉축노래자랑 오후 4시
• 봉축법요식 오후 6시 30분
• 제등행렬 오후 8시
봉축행사
봉축탑점등식 4.25(금) 오후 7시 청주대교옆 분수대 광원
백일장 · 휘호 · 그리기대회 5.4(일) 오전 10시 무심천 로올러스케이트장
민화그리기, 가훈써주기, 연꽃등, 풍선, 목판인쇄, 봄서배포 5.4(일) 행사장
불교미술, 사진전시회 5.9(금)~ 14(수)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마곡사
주지 법용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TEL 041)841-6221~2 / FAX 041)841-6227
http://www.magoksa.or.kr/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8년 5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678 호



['재소자들의 어머니' 안효진 보살]

"움직일 수 있을 때 남 도와야 해요"



향기 도반의

안효진 보살(89세)의 방에는 작은 불단이 있고 그 앞에 경상이 있다. 경상에는 <금강경>과 <능엄경>이 놓여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진과 열반하신 청담 스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

"청담 스님을 몇 번밖에 뵌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불광사의 광덕 스님 또한 교화활동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마음속에 큰스승으로 남아 있어요."

우연히 불교를 접하고서 너무나 좋아 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고, 이것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었다. 주변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영등포교도소였다.

40여 년을 하루같이 수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온 안효진 보살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교도소 포교를 개척하였으며 봉사활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의 40여개 교도소마다 발길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19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불교계에서는 포교와 봉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다. 타종교인들은 쉽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불교인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포교를 하겠다는 안효진 보살에게 교도소를 들고나는 문턱은 높았다. 몇 번이나 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여 겨우 법문을 하게 되었다. 커다란 녹음기를 등에 메고 들어간 첫날을 안효진 보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별로 배운 것 없는 내가 법문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한 스님들이 하는 것이 좋다 싶어 몇몇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선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스님들 또한 선뜻 나서기를 꺼립디다."

처음 교화활동에 뛰어들었을 때는 안 보살의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그런대로 잘 꾸려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는 절망이었다. 염치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권선을 청하였다.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다. 전국 수십 군데의 교도소를 돌면서 교화활동을 하였기에 항상 바빴다. 밥솥에 있는 밥을 도시락에 담을 시간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한 줌의 밥을 담아가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그렇지만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태산 같았다. 얻어다 둔 헌옷가지들을 빨래터에 가서 깨끗하게 세탁하여, 그것을 새벽 서너 시까지 바느질하였다. 출소할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헌 옷을 개조하여 그들이 입고 나갈 옷들을 만들었다.

안 보살은 교정실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네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네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 않았다. 항상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나중에는 재소자와 똑같은 형태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부처님은 나에게 흥청망청 쓸 돈을 주지도 않지만, 나를 슬프게는 하지 않아요. 가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해서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꼭 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

안효진 보살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정해진 틀이 없다. 삼풍백화점 참사 때는 수지침을 놔주는가 하면 급식 봉사활동으로 불교계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보여주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준다.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줄 뿐이다.

사형수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이를 위해서 안효진 보살은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 보려고 사방팔방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안효진 보살로부터 인과법문을 들은 이들은 다음 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근을 하였으며, 마지막 가는 길에는 불상을 꼭 껴안고 가기도 하였다.

고금석씨나 최찬흠씨 등 그 당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던 사형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던 일이 안효진 보살에게 있어 큰 보람이다. 안효진 보살은 불교계 처음으로 교정봉사상을 받았으며, 교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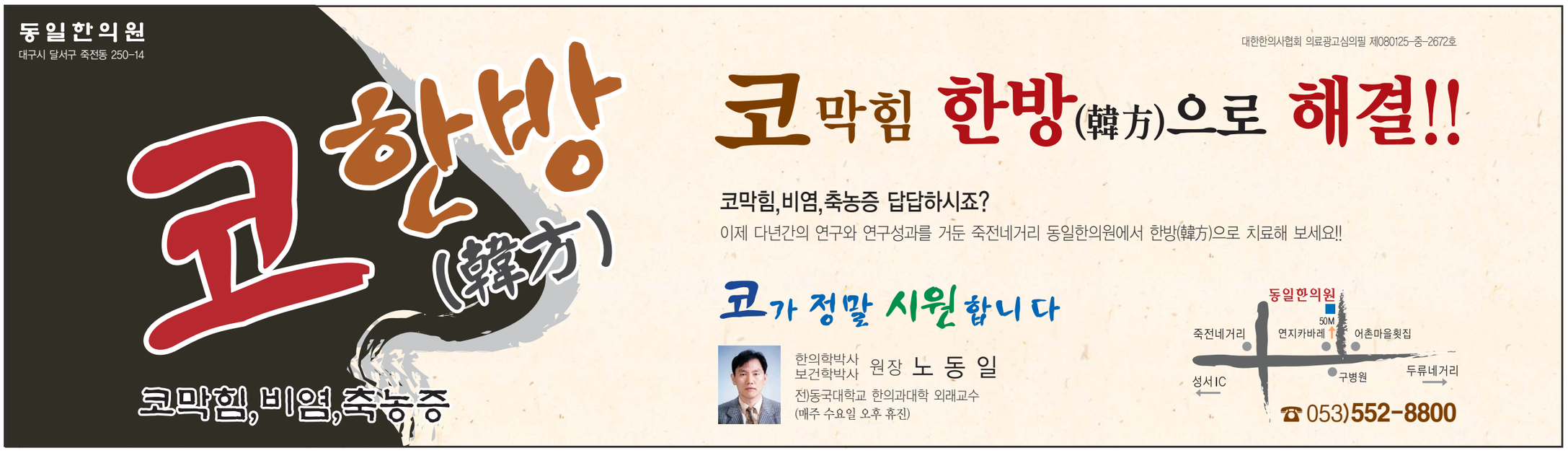
올해 연세가 여든 아홉인 안효진 보살은 2년 전까지 교화활동의 현장을 지켰다. 지금은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다고 하면 달려간다. 정성껏 그들에게 <금강경>을 읽어주거나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준다. 어떤 이는 안효진 보살이 경을 읽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독송해주기를 청하기도 한다.

"죽으면 이 몸뚱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남을 위해 물 한잔이라도 떠줄 힘 있을 때 도와야 해요. 나는 이것이 부처님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쟈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들의 향기를 앞지른다'고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소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아픔을 다독거려 주었던 안효진 보살의 자비행이야말로 으뜸가는 향기다.

글=문윤정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40년간 40개 교도소서 전법, 각종봉사도 앞장
불교계 첫 교정봉사상 수상, 대통령 표창도



봉축특집 불기2522년

"마음 밖에서 따로 진리를 찾지 말라"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여신 날입니다. 무명(無明)과 탐욕(貪慾)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에서 대비(大悲)를 일으켜 해탈(解脫)을 얻게 하여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부처를 이루는 길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진리가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맙시다.

우주와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일체 성인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신성(神性)이 들어있고 중생의 자성(自性)에는 부처님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헤아리면 어긋납니다. 무명번뇌(無明煩惱)가 부처를 이루는 그대들의 살림살이요 찾고 구하려는 것은 그대들을 얽매이게 합니다.

불향성중작(佛向性中作)이요
막향신외구(莫向身外求)니라
부처를 자성 속에서 지을지언정
자기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법계중생 이고득락하기를"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중생의 무명을 밝히고 자아를 실현하여 이 땅에 안락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삶의 의미를 끝없는 욕망과 물질의 충족에서만 찾고 있으며, 오직 일신의 영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개장되고 사물이 날로 증발함에 따라 인간들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청정한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수많은 이물질을 만들어내어 지구를 재생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범아일여요, 생령동근이라' 했습니다. 천지와 인간은 한 몸뚱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주인이자, 창조주입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고, 세상이 혼탁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일부러 복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태여 화근을 짓지 마십시오.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참된 이치를 생각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죄도 복도 없어서 누구나 진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계유일심 만법개유식(三界唯一心 萬法皆唯識)
미혹시중생 청정심시불(迷惑是衆生 淸靜心是佛)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인식 소관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칙칙하면 중생으로 남고, 마음이 청정하고 진솔하면 부처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 자세를 낮추어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동체대비 서원으로 자타구제 하길"

■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세존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머무실 때, 사내아이들이 사위성과 기원정사 사이에 있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세존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느냐? 고통을 싫어하느냐?"

"예, 부처님! 저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세존께서 아이들에게 게송으로써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면, 드러내놓고서든 몰래 숨어서든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면, 도망을 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에서 달아날 수 없으리라."

지금 세상에는 도처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생태 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을 싫어하면서 다른 생명을 빼앗고, 평화를 호소하는 이들을 총칼로 짓밟는 일이,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끝없는 탐욕은 저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만년설과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대양의 섬을 바닷물 속에 잠기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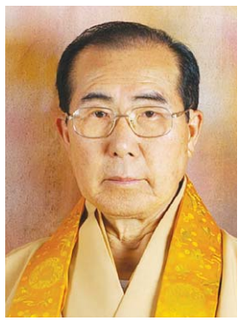
"힘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세속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탐욕이 만년설을 녹이고, 아프리카 초원을 사막화시켜 생명을 사라지게 하며, 평화롭던 산간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순하기만 했던 이들을 싸움꾼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내가 덜 배부르고 덜 따뜻하며 덜 시원하고 쾌락을 덜 누리며 이웃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겠다는 자리이타의 동체대비서원을 세워 자타를 구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길"

■ 진각종 도흔 총인



법등명과 자등명을 밝혀두고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오안(五眼)과 오지(五智)를 밝혀두고 부처님을 관하는 법이 되는 것이므로, 최상 근기의 불신관법(佛身觀法)이 되는 것입니다.

법등명과 자등명을 밝혀두고 부처님을 보게 된다면 우주 대자연과 인생에 대한 근본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철학적인 사명을 다하게 되어서 전미개오(轉迷開悟: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름)가 되는 것입니다. 전미개오는 곧 우주법계의 육대법신과 무량제불의 진리를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므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선악 인과응보의 진리를 추호도 속일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 인과응보의 진리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능히 선을 행하게 되고 능히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행복하고 안락하게 되어서 진실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자대비 실천 위한 정진의 등불켜길"

■ 총지종 효강 종령



마음은 모든 행위의 근본임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원력과 의지력으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저 미생물까지도 불성(佛性)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마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간직하기 위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참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밝고 청정한 마음, 남과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서 탐욕과 증오와 망상이 사라진 서로 나누고 화해하며 향기로운 광명천지의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 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성도합시다.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이로다"

■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불래불법우래불(佛來佛法又來佛)
화소조가시역불(花笑鳥歌是亦佛)
변조광명무여지(遍照光明無餘地)
하방세계유암비(何方世界有暗邳)
인인각지자등화(人人各持自燈火)
만상무비진묘법(萬像無非眞妙法)

부처님이 오시고 또 오셨네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땅에 오셨네
밝음이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니
시방세계 그 어느 곳에 어둠이 있으리
사람들 각각 스스로의 등을 밝히니
삼라만상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이로다

"지혜와 광명을 온 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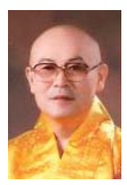
■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부처님께서 오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불교중흥을 엄숙히 서원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는 곳 행복 있어'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총무원장



부처님 오심은 시방법계 대광명 쓰레기 같은 세상일에 노예처럼 끌려 사니 내 생각 다 버리고 수행정진하면 모두가 부처 되네.

가지려는 욕심 다 버리면 마음 편해져 미움도 원망도 싸울 일 없으니 우리의 행복은 그곳에 숨었다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교법따라 자성 찾아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며 살아보세.

'산은 절로 높고 물은 절로 깊어'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중생과 부처가 서로 차별 없으니 산은 절로 높고 물은 절로 깊어라

천차만별한 현상은 분명한 일이나 자고새 우는 곳에 백화가 새로워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종장 죽산 스님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함은
기요여래진실의(己了如來眞實意)요
사대본공(四大本空)하고
오온비유(五蘊非有)함은
시위바라다심(是爲波羅多心)이라

'부처님 광명 온누리에 비추는 날'

■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지산 스님



2600년 전 룸비니의 울음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그 소리 빛창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도다!
그 빛창향기 부처님의 제 광명이라!

'본디 아무 것도 없어'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무에서 유로 푸르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평범한 땅에서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할 때, 어느 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멸하느냐고 묻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 봉축하시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비워야 흔들리지 않아'

■ 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송정 총무원장



山堂靜夜坐無言
寂寂寥寥本自然
何事西風動林野
一聲寒雁淚長天

산당에 조용히 앉아 온갖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없는 것들을 채우려하지 않으니
행주좌와(行住坐臥)여 흔들리지 않는 경계가 이것이다
시끄럽다거나 조용하다거나 하는 것은 다 분별심이다
그것마저 넘어서면 추운 기러기가
장천에서 울고 가는 소식을 알게 되리라

'진아불성 찾아 정진하길'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정관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탄생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는 "믿음은 심지로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생각은 그릇으로 하고 공덕은 빛으로 하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 수행하며 부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뜻 마음속 보배찾는것같아'

■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스님



내 일찍이 복업이 있어
이제 다시 여기에 태어났네
법계에 돌리리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이 있건만 어두운 중생들
제 몸속에 보배 모르고 밖에서만 찾는구나!
초파일 부처님 기리는 뜻은 제각기 마음속에 보배를 찾고자 함이네.

'명상으로 지혜 키워야'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대행 신풍 총무원장



부처님은 명상법을 교시하셨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사마타나 위빠사나 관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지관법(止觀法)과 참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수행정진으로 세상 향기롭게'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만약 사람이 욕심을 위해 법(法)을 설하면 그 사람은 욕심 버리고서 도리어 욕심을 취한다 하나니, 우치한 사람은 법의 값없는 보배를 얻고 도리어 다시 돌아다니면서 거지노릇 하느니라. 다투며 떠드는 '여러 가지 희론(雜戱論)'의 집착은 마땅히 버리고서 높은 정진 일으키라. 모든 하늘 그리고 세간을 제도하기 위해선 이 유가(瑜伽)를 그대는 마땅히 배울지니라.

법어 전문은 buddanews.com에서 볼수 있습니다

종단지도자 봉축법어<요약>

봉축특집 불기2522년

'이웃 돕는 마음이 자비의 근원'

■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로 이웃과 내가 하나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인 자비의 원리이며 최고의 덕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은혜 갚는 날'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여워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나라 여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러 부처님은 손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부처님 열정돼야'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스님



맺을 때에도 맺음이 없고,
풀 때에도 푸는 것이 없으니,
맺고 푸는 것을 함께 분명히 해서, 아무리 다녀도 다님이 없이 다니며,
앉아도 앉음이 없이 앉았다면, 곳곳마다 참으로 걸림이 없을 것이다.

'세상 일 부질없어, 자취도 없어'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 **수성** 스님



흐르는 물 뜬구름과 같이 세상일은 부질없는데
요동의 학(鶴)을 따라가 아득하여 자취도 없음이로다.
연꽃의 세계가 어느 곳인가 알지 못하니
옛 사찰 동쪽에 소나무와 계수나무가 옛과 같음이로다.

'세계 티끌이 부처님 몸'

■ 대한불교위앙종 종정대행 **위산** 스님



푸른 산 푸른 물이 나의 참모습이니
밝은 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르지 말라
온 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아니런가
몸과 마음을 요달하여 남음이 있으면
시방에 법왕신(法王身)을 원통(圓通)하리라

'날마다 선행함이 성불의 길'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회암** 스님



적일지월즉신유삼십선의(積日至月則身有三十善矣)
적월지년즉신유삼백육십선의(積月至年則身有三百六十善矣)
적지수년이불태자역기어성불평(積之數年而不怠者亦幾於成佛平)
날을 쌓아 달에 이르면 몸에 30 선(善)이 있을 것이요.
달을 쌓아 해에 이르면 몸에 360 선(善)이 있을 것이니 쌓기를 수련해서 게으르지 않는 자는 성불한다.

'무상 도리면 분별 떠나'

■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작야한풍성우청 금조홍화대희견(昨夜寒風聲憂聽 今朝紅花大喜見)

어제 밤 찬바람 소리 근심으로 듣더니
오늘아침 붉은 꽃을 기쁨으로 보는구려.

'오직 인연에 따를 뿐'

■ 세계불교임제종 종정대행 **법광** 총무원장



심지본무생(心地本無生)하면 인종종연기(因種從緣起)라
연종불상방(緣種不相妨)이면 화과역복연(花菓亦復然)하니라

마음의 바탕에는 본래 나는 것 없으나
인연 따라 씨앗이 돋아난다
인연과 씨앗이 서로 방해하지 않듯
꽃과 열매도 또한 그러하다.

'계율 청정하게 살구려!'

■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



제왕의 자리 태산같은 재물 티끌처럼 버리시고
제행무상(諸行無常) 알리려 가사 한 벌 두루시고
본래부터 청정한 법 한 법도 없으신데(諸法無我)
팔만사천 방편으로 사성제법(四聖諦法) 설하시고
영원히 사는 열반청정법(涅槃淸淨法) 전하시여
부처마음 중생마음 차별 없다 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일송** 스님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역무비(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世間所有我盡見)
일체무소유불자(一切無所有佛者)

천상천하 어느 곳에도 부처님 같으신 분 없나니
시방세계에도 비교할 때 없네.
세상천지 네가 다 보아도
부처님 같이 귀하신 분 없도다.

'부처님 말씀 전하는 불자되길'

■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혜우**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과 의사 소통하러 오셨습니다. 무명에 뒤덮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던 불자들에게 <반야심경>이 소통되고 사성제와 연기법과 팔만사천의 법문이 소통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자년 초파일을 맞아 부처님 진리 말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통시키는 자랑스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과 맑은 마음이 바로 정토'

■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성파** 스님



한 생각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곳곳마다 연꽃이 피나니
한 꽃에 한 정토요
한 국토에 한 여래로다

마음의 밝은 달이
일체를 밝게 비추니 이 사바세계가 곧 정토요
마군과 제불이 본래 한 몸이로다

'한마음 항상 맑으면 연꽃 피어'

■ 대한불교삼계종 종정 **법수**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고, 묘법(妙法)은 무생(無生)이며, 연화(蓮花)는 무념(無念)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며 무념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생보리요 무애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다.
일심(一心)이 상청정(常淸淨)하면 처처(處處)에 연화개(蓮花開)니라.

'몸과 마음 선한 이가 부처'

■ 대한불교선종 종정 **효담** 스님



생전부지사팔상(生前不持十八殃)
사후십옥부지고(死後十獄不持苦)
생전사후복락기(生前死後福樂期)
심신재선자불다(心身在善慈佛他)

살아생전 18가지의 재앙을 면하고
사후에 열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며
생전과 사후에 복락을 바란다면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

'불심으로 사는 것이 부처의 길'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불심으로 살면 부처 몸을 이루고
중생심을 달면 사악도에 떨어지니
법계진리 깨달아서
일체중생 건지리다.

법어 전문은 buddanews.com에서 볼수 있습니다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봉 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조계종 삼화불교

〈 본 종단은 청정계율의 율종입니다〉

◆ **중앙율원장** : 성민
◆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
◆ **부 종 정** : 혜일
◆ **종 회 의 장** : 정봉백공
◆ **총 무 원 장** : 혜인
◆ **중앙선원장** : 도일

◆ 총무부장 : 동산
재무부장 : 법정
교무부장 : 월곡
사회부장 : 자명
문화부장 : 지우
비구니부장 : 중비

총무부원장 : 지운
총무국장 : 도업
재무국장 : 대도
교무국장 : 해인
사회국장 : 도홍
문화국장 : 효천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종무실장 : 정금옥(불이성)
총무과장 : 조 일
조사과장 : 문희만

문화재관리국장 : 운하
문화교류국장 : 지운

◆ 교육원장 : 일봉
교육부장 : 봉선
교육국장 : 성덕

포교원장 : 정오
포교부장 : 정산
포교국장 : 묵헌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지오
감찰국장 : 지호

호계원장 : 대풍
호법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호법국장 : 다정
규정국장 : 영산

⊙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 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① 본국검도 협회 ② 천지무예도 협회 ③ 행복한 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발행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혜원, 정산,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조일, 관불, 해인**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강 원 교 구 종 무 원 장 : **광덕**
서울서부교구종무원장 : **법선**
충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무광**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 **정담**
충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백공**
인 천 교 구 종 무 원 장 : **혜정**
경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지운**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경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혜관**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전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정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법정**
제 주 교 구 종 무 원 장 : **덕산**
대 구 교 구종무원장 : **도오**
일 본 동 경 종 무 원 장 : **정대**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 **광운**
미 국 뉴 욕 종 무 원 장 : **성산**
중 국 남 경 종 무 원 장 : **해산**

★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대 표 회 장 : 허정석
상 임 회 장 : 인권식
사 무 처 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운하

⊙ **삼화불교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진제, 연각, 성묵,청산, 동안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김병호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전송 02)511-2028
TEL 총무원 02)511-2026 / 총무부 02)511-2027 / 총무원장실 02)511-1080
신도회 02)3445-7375 / 삼화불교신문사 02)3445-7376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학림 : www.njut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불교산업과 불교문화의 역사적 만남

2008한국불교박람회에 불교관련 업체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불교산업과 불교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 최초 · 최대의 행사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부대중과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불교박람회는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정보와 문화의 장으로서 참가업체들의 실질적 성장과 함께 불교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과 불교관련 업체분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한국불교박람회 대회장 / 불교신문사 사장 /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 선 묵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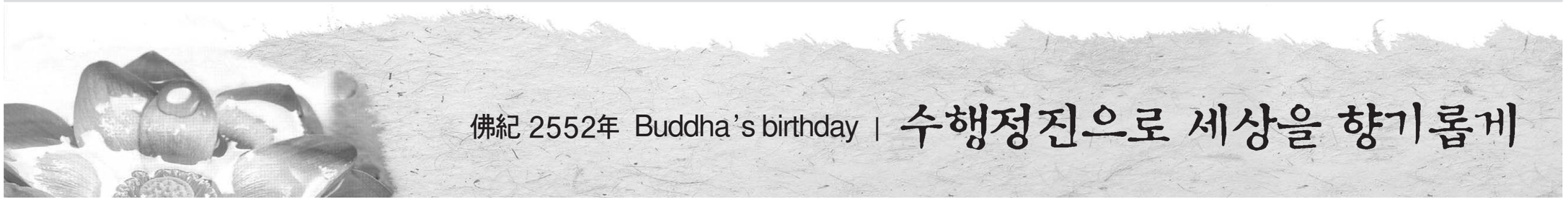
Korean Buddhism Expo 2008
2008 한국불교박람회

2008. 9. 5(금) ▶ 9. 8(월)
KINTEX(한국국제전시장)

주최 _ 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후원 _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참가문의
2008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전화 _ (02)706-3493 ▶홈페이지 _ www.bexpo.org ▶E-mail _ bexpo@naver.com





韓國佛教 太古宗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僧正院 院長　柳南坡
副　院　長　李寶峰
副　院　長　金法藏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　議　長　姜慧宗
副　議　長　權德化

總務院長　李雲山
副　院　長　金越海
副　院　長　文普經
副　院　長　曺幻宇

■ 宗務調整室長 片白雲
■ 教務企劃室長 高東佑
■ 交流協力室長 閔法顯
■ 文化宗務特補 石禪岩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副議長 鄭大隱
副議長 成圓峰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副院長 柳雲潭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佛之知見 示悟衆生

대한불교 천태종

종 정 김도영 대선사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부의장 용월산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043)423-7100 / FAX043)420-7399 www.chentae.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총기 37년(불기 2552년)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은 결인(結印)과 진언염송, 관법(灌法)의 신(身)·구(口)·의(意) 삼밀(三密)로써 즉신성불을 이루고자 수행하는 밀교종단입니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내걸고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정신을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종　　령　**효 강**
통리원장　**원 송**

종회의장 **우 승**　사감원장 **지 성**
법장원장 **법 공**　교육원장 **화 령**

서울경인교구장 **법 등**　충청전라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교구장 **지 공**　부산경남교구장 **대 원**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02)552-1080-3 / 팩스 552-1082 www.chongji.or.kr



대한불교관음종
www.kwanum.or.kr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Tel : 02)763-0054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 正　靈山 一空

副宗正 : 유념 法信　천호 천호　僧政院長 : 체운
元老院長 : 송산　元老委員 : 선명 성인 신수 평신

中央 宗儀會 議長 : 圓先 體義
종의회의원: 체명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송운 성수 혜광 해송

總務院長 : 圓正 性觀

규정원장:진허　규정부장: 대천　경기 종무원장: 진운
교육원장:해안　사회부장: 정안　부산 종무원장: 혜민
포교원장:해송　　전라 종무원장: 각우
문화원장:혜광　　충청 종무원장: 보정
중앙비구니회원로:대월　　경남 종무원장: 혜명
중앙비구니회장:선덕　　경북 종무원장: 도경

■ 총본산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전송 02)853-0533

봉축특집 불기2552년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

도천 스님은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13세에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 스님의 제자인 신묵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5년간 모시며 참선했다. 그후 20여년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법왕사 등에서 수행한 스님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으로 내려왔다.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 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가장 유사한 대둔산 태고사에 방부를 들이고 공양주 소임을 보았다. 1·4후퇴 때 태고사에 빨치산이 들어오자 묵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전쟁 중에 건물 7동이 잿더미가 된 태고사로 돌아온 스님은 1962년 움막을 하나 짓고 솔잎가루와 나물죽을 먹으며 46년간 두문불출하며 지금까지 불사를 겸한 노동수행(雲力)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百丈淸規)에 따라 늘 묵언하며 계행을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해 온 스님은 '수월가풍(水月家風)'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현재 화엄사 조실 겸 태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무수한 도인(道人)의 출현을 기약하며 태고사 중창불사에 심혈을 쏟고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2곳의 좋은 터 가운데 하나인 충남 금산 대둔산 태고사(太古寺, 주지 도천). 원효 대사가 '도인이 날 땅'이라며 춤을 추었다는 길지(吉地)에 둥지를 튼 절이다. 2년 전 이맘때 두 달간의 구도여행 도중에 참배했던 태고사는 여전히 맑고 투명한 녹색 기운을 내뿜고 있다. 비 내린 뒤 더욱 웅장하게 다가오는 산세는 '대둔산의 도인' 도천 큰스님의 모습처럼 범접하기 힘든 신령함을 간직하고 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 송시열(宋時烈·1607-1689) 선생이 쓴 '석문(石門)'이란 휘호가 새겨진 바위 일주문을 지나니, 큰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기자의 두 손을 잡고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라"고 당부하며 염주를 손에 쥐어주시던 큰스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진다.

절 아래서 보면, 태고사 뒤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왼쪽 봉우리는 관음봉 또는 문수봉이라 불리는데, 이런 봉우리가 있는 절은 큰 도인들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못을 박았고, 도천 큰스님은 일일이 대못을 뽑았다. 절 뒤편 중앙에 있는 바위는 의상 대사가 올라가 춤췄다는 의상대이다. 절 앞쪽으로는 저 멀리 서대산 천자봉이 보이는데, 수많은 작은 산봉우리들이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되어 태고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다. 큰스님이 범종각을 절벽 위 바위 위에 지은 까닭은 종소리가 바위를 통해 퍼져나가 태고사를 둘러싸고 있는 대둔산의 잠든 용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 원주스님이 큰스님의 건강을 염려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조실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다. 마침 과로로 눈에 통증이 생겨 쉬고 계시던 큰스님은 반갑게 불청객을 맞이 하신다.

"큰스님, 2년만에 뵙겠습니다."

"그래, 뭐하러 왔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큰스님 법문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여. 일밖에 몰라."

큰스님은 "잠시 누워서 쉬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휴식을 취한다. 다행히 큰스님은 눈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아직도 정정하시다.

큰스님이 누워 계시자, 옆에서 모시던 한호응(70·대전 도마동) 거사가 평소 곁에서 듣고 본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준다.

"요즘 큰스님은 13세에 출가해 금강산 마하연에서 은사 묵언 스님을 시봉하던 때를 자주 회상하시곤 합니다."

어린 나이에 당돌하게도 도인이 되겠다는 큰 뜻을 품은 도천 스님이 13세 때 만난 '금강산 도인'이 바로 신묵언 스님이다. 스님은 15년 동안 수월 스님의 수제자인 묵언 스님을 시봉하며 그토록 간절히 얻고자 했던 도(道)를 닦았다. 어떤 대꾸라도 하면 벼락을 내릴 정도로 엄했던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낮에는 땔나무를 하고, 밤에는 짚신을 삼고 숯불에 공양을 지었다. 물이 부족해 손을 씻지 못해서 갈라터질 때면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쌀이 부족해 끼니를 거르며 정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짚신을 신은 채 마하연에서 연화대까지 600m 정도의 눈길을 혼자서 다 치워야 했다.

이런 수행담을 듣던 한 거사가 어느 때 도천 스님께 질문했다.



"수행이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일·지계행이 그대로 수행이니 진정 하심이 될 때 비로소 준비가 된 것"

"스님, 힘드시면 집에 가시지, 왜 그토록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도(道) 하나 얻으려고…."

스님은 그 어떤 고행을 하더라도 도 닦는 본분사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도 하나 얻으려고' 오늘도 수많은 구도자들이 좌복이 닳도록 선방에 주리를 틀거나, 밤낮 없이 염불·주력하거나 절하며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가한 지 강산이 여덟 번이나 변하는 동안, 오로지 '도 하나 얻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수행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내년이면 고금에 드문 백수(白壽; 99세)의 세랍에서 풍겨나오는 법력은 과연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이란 수식어를 실감케 한다.

분단 이후 금강산에서 하산한 도천 스님은 울릉도를 빼고는 전국의 산하를 직접 걸어다니며 만행했다. 그러다 스님은 인연의 땅, 태고사를 만났다. 태고사는 금강산 마하연과 가장 유사한 곳이었고, 도인이 많이 나는 도량임을 직감했기에 평생 눌러앉은 것이다.

한 거사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난 후, 큰스님은 법성행(69) 화주보살을 불러 도량 곳곳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명하신다. 화주보살을 따라 나선 태고사 도량 곳곳은 불사가 진행중이다. 잠시도 안일과 편안함을 용납치 않는 큰스님은 올 11월 선방 완공을 목표로 노구를 이끌고 수시로 공사를 지도하신다. 대둔산 지맥(地脈)이 잘 흘러내린 선방에는 공부인들과 어르신들이 정진하게 된다. 큰스님은 선방과 더불어 경허-수월-묵언 선사를 모신 조사전과 개인 수행용 토굴도 더 지을 생각이다.

1962년부터 일을 수행삼아 불사를 계속해 온 큰스님은 오늘날의 태고사를 이룩했지만, 한번도 나랏돈으로 법당을 지은 적이 없다. 국고보조금으로 절을 지으면 나라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고사는 철저히 금강산 마하연의 건축양식을 본따서 조성할 수 있었다.

큰스님이 얼마나 철저히 근검절약하며 노동수행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일화는 무수하다.

옛날 어려운 시절, 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큰스님은 혼자서 얼마나 잘 먹고 사나' 하고 몰래 엿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큰스님은 놀랍게도 솔잎가루와 물 한 모금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안 인부들은 "참 스님이시다"라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훗날 택시기사가 된 한 인부가 전한 증언이다.

처음 태고사를 일굴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 헤진 승복을 입고 대전까지 물건을 사러 간 큰스님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대전역전시장 자판에서 3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사 드신 일이 있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돈을 쓴 유일한 일이었지만, 큰스님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셨다고 한다. 또 한번은 공양간의 수채 구멍에 밥 한 톨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신 큰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인과(因果)의 도리를 알기에 쌀 한 톨도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태고사에 정착하기 전, 아자방(亞字房; '亞' 자 모양으로 방고래를 만들고 구들을 놓은 선방)이 있는 칠불사에서 정진할 때는 공양간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때인가 쌀이 바닥났을 때, 매일 단지에 공양 해먹을 만큼의 쌀이 저절로 채워지는 신비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검소하게, 스스로 '태고사의 머슴'이라 부르며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살아온 큰스님이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심과 보살심은 더욱 스님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큰스님은 '업장 소멸만 하면 병도 물러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셔요. 집에서 나름대로 정진한 신도들이 오면 먼저 아시고 자상한 법문을 해주지만, 욕심에 찌들어 법문을 해달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말죠. 수행이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하심이 될 때 비로소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30년 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척추를 다치고 유방암에 걸려 태고사에 찾아온 법성행 보살은 하루 1000배, 하루 관세음보살 정근 3만독을 한 후 어느새 병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태고사에 찾아오는 불자들은 큰스님이

봉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www.gwanmunsa.co.kr · 주소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 전화 : 02)3460-5300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주 지 주정산 부주지 김세운

총 무 김광언 재 무 유대명 노 전 김구해 부 전 지상규
신도회장 이금복

고 문 배두출 권영철 백영기 송대현
지도위원 권영우 정유성 신선숙 방경자 최선화
부 회 장 김옥동 강숙일

총 무 최재구
교 무 윤을식
재 무 이상원
재 무 김연옥
재 무 최 현
홍 보 신중선
기 획 오덕근
조 직 서양원
섭 외 김진흡
사 업 김광자
부 녀 이상임

서초지회장 정근택
강남지회장 한형희
송파지회장 이호인
중구지회장 조장묵
동작지회장 현정국
강북지회장 이종완
강서부지회장 김충겸
경기지회장 김수웅
동대문지회장 김학복

거사회장 남극렬
지장회장 정기수
교원불자 양학기
낙 원 회 최보연
다 도 회 장홍숙
관 음 회 임선례
합 창 단 이향숙(총무)
자 모 회 표정숙
상 락 회 오연숙
청 년 회 박문호

화 주 이향숙
화 주 임숙자
화 주 정인순
화 주 정휘순
화 주 송복섭

봉축행사안내
· 봉축 법요식 : 5월 12일(음4월8일) 오전 11시 / 4층옥불전
· 점 등 식 : 5월 11일(음4월7일) 저녁 7시 / 4층옥불전
· 제 등 행 열 : 5월 12일(음4월8일) 저녁 6시 / 서초구청마당
· 특 별 기 도 : 4월 21일 - 5월 11일 저녁 9시 / 4층 옥불전
· 특별사시불공 : 4월 21일 - 5월 11일 오전 10시 / 대불보전
· 봉축동참불공 : 5월 12일 오후 1시 30분 / 7층대불보전
· 봉 축 공 연 : 5월 12일(음4월8일) 오후 2시 / 옥불보전
· 어린이 글.그림잔치 : 5월 11일 오전 11시 / 관문사 시상식 - 5월 12일 오후 2시 / 4층 옥불전



봉축특집 불기2522년

번뇌는 눈 녹듯 사라져”

항상 일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행에는 관심이 없지 않은가 하고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법성행 보살처럼 태고사의 구참 신도들은 공부와 일, 지계행이 그대로 수행임을 잘 알고 있다. 큰스님은 수행자의 근기와 인연을 보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지도한다는 것. 즉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정근, 천수다라니, 절하기, 참선 등 다양한 행법을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일러준다. 보통 관음정근은 하루 3만독, 절은 하루 1000배, 천수다라니는 하루 300독을 기준으로 한다. “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정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게 큰스님의 경험담이다.

큰스님은 불자들에게 관음정근이나 절하기를 주로 시키지만, 근기와 인연에 따라 ‘관세음보살이 누구인가?’나 ‘이뭣고?’를 찾는 참선을 권하기도 한다. 평생 새벽 1시면 일어나 참선하시는 큰스님은 기도, 참선, 간경, 주력 수행을 통해 일념을 이뤄 깨침으로 나아가도록 방편을 시설하고 계신 것이다.

공양시간이 끝난 후, 이번에는 ‘도천 큰스님의 분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진에 열심인 상좌 정안 스님을 뵈었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다. 신도들로부터 “이 세상에 없는 효자스님”으로 칭송받는 정안 스님은 1968년 10월 보름 입재 후 40년동안 기도정진을 멈추지 않은 놀라운 정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3년마다 1만일 기도결제를 하고 해제하는 바로 당일, 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고사는 사시사철 기도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이다.

“1만일 기도정진이 끝날 때마다 점점 깊고 넓어지는 마음을 실감합니다. 삼생(三生; 과거, 현재, 미래)과 사생(四生; 태, 란, 습, 화로 태어난 생명) 육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가 실재하지만, 그것 역시 마음 안의 세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삼라만상은 중생의 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업따라 인연따라 펼쳐지는 생멸하는 삶은 ‘살아있는 꿈’이지요.”

“큰스님께 공부 점검을 자주 받으십니까?” 하고 여쭈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데 뭘 묻고 답할 게 따로 있나요” 라고 하신다. 그야말로 사제지간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엿볼 수 있는 자신있는 표현이다.

정안 스님의 정근시간은 새벽 4~6시, 오전 9시반~12시반, 오후 2~4시, 저녁 6시반~8시반 등 하루 8시간.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지장보살 정근, 축원 등으로 진행되는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진다.

1967년 전남 담양군 금석면 보광사에서 큰스님을 처음 뵐 때를 스님은 이렇게 회상한다.

“옛날, 옛날, 옛날의 큰스님. 진짜, 진짜, 진짜 큰스님이란 느낌이 들었지요. 큰스님은 평생 천수다라니로 수행한 수월 큰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보살도와 일, 참선과 계행이 오롯이 하나인 수행입니다.”

큰스님은 ‘공부와 보살행과 계행 등 3가지 흐름 속에서 도를 닦으라’는 의미의 ‘도천(道川)’이란 법명을 받았는데, 흥미롭게도 속명 역시 같은 이름이다. 평생 계행을 지키고 일하면서 참선하는 큰스님의 숨은 면모를 상좌스님의 설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 근대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은 수월스님이 보름달이라면, 남방의 도인 혜월 스님은 반달이요, 덕숭총림을 세운 만공 스님은 초생달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깨달음의 깊이는 선문답을 능통하게 하고 설법을 잘 하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비’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직접 관음보살이 되는 수밖에 없다. 경허-수월-묵언 스님의 법맥을 이은 도천 큰스님의 가풍은 말없이 참선하며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마침, 선방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큰스님이 조실방에서 나오시자, 동행하며 다시 법문을 청했다.

“큰스님, 초파일을 맞아 불자들을 향해 법문 한 마디 해주십시오.”

“내가 왜 큰스님이야, 이 절 머슴이야.”

“큰스님, 한 마디라도 들려주십시오.”

“난 아는 게 없어. 일밖에 몰러.”

끝내 한 마디도 ‘아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일구(一句: 깨달음의 한 마디)에는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볼 방법이 없다. 마치 유마 거사의 ‘우뢰와 같은 침묵(一默如雷)’을 듣는 느낌이랄까.

큰스님은 결코 사족(蛇足)을 단 적이 없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살면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망상 · 분별 없는 평상심이 도이다)’의 수행이 되는 도리를 신도들에게 설한 적이 있다.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 봐. 탐진치 3독심이 눈녹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는 것을 느끼게 된다구. 그러다보면 상(相)내는 마음이 사라져, 부지불식간에. 상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처음이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거야. 그러니까 하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큰스님이 공사를 지시하는 도중, 천성산 조계암 무문관에서 2년간 폐관(閉關) 정진을 하고 나온 한 수좌스님이 큰스님께 인사를 올리며 지도 · 점검을 부탁한다(**왼쪽 사진**). 수좌와 함께 조실방으로 들어가시는 큰스님께 하직인사를 하고 손을 잡으니, 큰스님께서 가만히 손을 꼬옥 잡아주신다. ‘불교일 하더라도 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말없는 가르침이 전해진다.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를 내고, 까치는 까치 소리를 내지. 인간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지 못하고 까치 소리를 내서는 안돼.”

언젠가 큰스님이 한 거사에게 화두처럼 던진 질문이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다운 소리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 것인가. 대둔산을 내려오면서 어느덧 이 질문이 화두가 되어 가슴에 박힌다.

금산/글=김성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를 내고
> 까치는 까치 소리를 내지
> 인간이 까치 소리를 내서는 안돼”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 고 일 : **불기 2552(2008)년 5월 10일(토, 음력 4. 6) ~ 5월 19일(월, 음력 4. 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 · 사미니는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011-1710]

불계 2552(2008)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사서실장: **보 인**

원 로 원 장 **지 은. 정해. 윤혁. 지산**
교 육 원 장 **종 성** 호법원장 **보 산**
상벌위원장 **보 경**

무량선무도 도총사 **보 인**
종 회 의 장 **법 천** 부 의 장 **법우. 보각**
사무국장 **보성**

총무부장 **보 각** 재무부장 **보 광**
교무부장 **보 우** 조직부장 **다 정**
사회부장 **보 월** 규정부장 **법 연**

총무국장 **서 안** 재무국장 **보 혜**
교무국장 **보 정** 포교국장 **정 심**
규정국장 **자 운**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 7790 FAX 883-7796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엄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운
이사 지공
이사 도기
이사 화엄
이사 일명
이사 법광
이사 담화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장로의장 금봉
장로부의장 명종
장로위원 무찰
수암
청송
송은
원각
혜운
원경

종회의장 화엄
종회부의장 경원
사무처장 도안
종회의원 덕봉
법재 자명
법안 도허
지운 선행
도정 고봉
덕산 무상
남혜 운각
경담 혜원
진허

호계원장 용암
교육원장 원각
포교원장 법운
감사원장 법성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총무원부원장 법선
총무부장 용운
재무부장 혜관
교무부장 지언
규정부장 영명
사회부장 보월
홍보부장 진경
교육부장 법해
포교부장 혜성
총무국장 영담
사회국장 영우
홍보국장 자혜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용주
인천교구 용운
울산교구 도현
대구교구 석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석은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보광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청표
제주 경운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빌딩 4층 www.llbung.org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불입종

종 정 면 철

원로원장 **정 관**
총무부장 **경 암**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271-3번지 송화사 전화 043)653-4800. 4848 / 팩스 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전화 043)653-4848. 0999 / 팩스 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재단이사장, 종정권한대행 **권성우**

총무원장 **정회암**
총무부장 하동산
재무부장 김법제
교무부장 박명인
사회부장 주만석
문화부장 최혜원

중앙종의회
의 장 서법전

감찰원
원 장 임은주
감찰부장 한지관
조사부장 전법하

법인원
총무국장 양재언
사회국장 김보덕
문화국장 이지법화
포교국장 노연혜명
홍보국장 박혜성문
비구니부장 이 성

교육원
원 장 남석진
교육부장 한영각

포교원
원 장 김진표
교육부장 조명각

부산시종무원장 나석진
인천시종무원장 지보덕
대전시종무원장 안광덕
경기남부종무원장 허지월
강원종무원장 허고금성
충북종무원장 김월태공
전북종무원장 유진산법
전남종무원장 권성각진
경남서부종무원장 김 신
경남동부종무원장

비구니회
회 장 강지명

벽암문도회
회 장 김대산

자비회
회 장 이혜봉
경기북부지부장 최병익
경북지부장 주한성
인천시지부장 정해철

연합종교신문사
편집국장 장정태
기자회회장 이상훈

미타종 종도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 1동 112-39 진영빌딩 4층 TEL 02)2242-1049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摩定** 理事長 **釋解愚**
副總理 **釋大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慧 照**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可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心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解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TEL 02)496-3951~3 FAX 496-3950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사서실장 **혜관**

원로원장 **석지륜** 원로위원 **법성, 법공**
종회의장 **지언**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사정부장 **지엄**
법사부장 **제오** 사회부장 **혜주** 교무부장 **지웅**
조직부장 **묘화** 포교부장 **공행** 외교부장 **정행**

서울북부종무원장 **혜광** 충남종무원장 **혜용** 서울중부종무원장 **제현**
충북종무원장 **지명** 경기중부종무원장 **보우** 경남종무원장 **보덕**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우** 경북종무원장 **법공** 경기북부종무원장 **지공**
전남종무원장 **보경** 부산중부종무원장 **법연** 전북종무원장 **법성**
부산동부종무원장 **혜일** 대구종무원장 **혜인** 간사장 **무상**

■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전화 061)644-7273 팩스 061)644-7274 핸드폰 011-807-8428

무수리에서 왕의 여자, 그리고 왕의 어머니로…



19대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소령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란 말이 있다. 페미니스트에게 칼 맞을 소리지만 궁녀들의 삶은 그 속담에 어울린다. 왕의 승은을 입으면 하룻밤 만에 신분이 수직 상승된다. 숙빈 최씨가 그러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고.

대궐에 근무하는 궁인들 중 최하급 신분이 무수리다. 상궁들에게 세숫물을 떠다 바치는 일을 한다. 드라마에서는 중전, 후궁, 그들을 모시는 상궁의 모습만 보여준다. 무수리가 주연이 될 이유가 없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개인의 삶은 처참하다. 주로 가난한 백성의 딸들이 열 살 이전에 궁에 들어와 애기나인이 되고 엄한 훈련을 거쳐 15년 정도 되면 나인이 된다. 이때 관례식 겸 혼례식을 치른다. 신랑은 없고 신부만 있는 이상한 혼례식이다. 가상의 신랑은 당연히 왕이다. 30년 정도 되면 정5품인 상궁이 되어 마마님으로 불린다. 설령 상궁이 되어도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외출, 외박은 꿈도 못꾼다. 밤이 되면 궁궐에 사내라곤 임금뿐이다. 사내구실 못하는 내시들이 있긴 하지만. 궁녀들에겐 처녀 귀신이 되어야하는 미래뿐이다. 병들어 궁녀 역할 못할 지경이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쫓겨나야 출궁할 수 있다. 궁녀에게 사직서는 없다.

최씨는 일곱 살에 궁에 들어와 궁중 법도를 익히며 무수리로 지내다가 스물네 살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대궐을 거닐던 숙종의 시선이, 수십 명의 궁녀들 틈에 섞인 그녀에게 꽂혔다. '저 아이를 오늘 밤 침전에 들게 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이 한마디는 궁녀들에게 기절초풍할 정도의 복음이다.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고 보상이 더 푸짐하다. 최씨는 후궁이 되었다. 게다가 장희빈을 향한 왕의 애정이 식은 터에, 덜컥 아들까지 낳았다. 그 아들이 영조 임금이다. 후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세도가의 딸이다. 무수리 출신이 후궁이 된 경우는 조선 왕조 518년에 최씨가 유일하다.


300년 된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소령원.

유폐된 생활을 하는지라 궁녀들은 눈치만 발달한다. 권력의 암투에 조연이 되기도 한다. 어느 라인에 서야 일신이 편하고 승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전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최씨는 일거에 그것을 얻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판을 몰래 벌였다고 고변한 이가 최씨다. 영화를 누렸지만 효성 지극한 아들의 즉위는 보지 못했다.

숙빈 최씨는 숙종 44년(1718)에 49세의 나이로,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 별세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왕비의 무덤인 능에 모셔지지 못하고 묘에 모셔졌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최씨의 무덤 근처에다 시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시묘막이라 부르지만 99칸짜리 대저택이었다. 지금은 추춧돌과 담장 일부가 남아 있다. 세자 신분이기에 밤낮으로 무덤가에 기거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대신 보내고 가끔 출퇴근하는 시묘살이로 추측된다. 친필 비와 비각을 4곳이나 세웠다. 현재 두 곳이 남아있다. 비문이 영조의 친필이다. 덤으로 어필을 감상할 수 있으니 소령원 답사는 기쁨 두 배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인 생모에 대한 효심과 열등의식으로 즉위 후 소령묘를 왕비릉으로 격상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조정 신료의 반대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숙빈 해주 최씨 소령묘'라는 친필 비석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인 1724년에 생모를 기리기 위해 경복궁 이웃에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을 짓고 숙빈묘라 했다. 영조는 사당을 짓고는 직접 제문을 지어 올리며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영조 29년(1753)에는 숙빈묘를 승격시켜 육상궁이라 부르고, 다시 한 번 소령원에 친필 비석을 세웠다. 숙빈 최씨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조선국 화경 숙빈 소령원'이라는 친필 비문을 새긴 비석을 만들었다. 생모의 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조가 오열했다는 기록은 실록에 몇 차례나 나온다.

"내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실 사당을 세워야겠소. 종묘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짓도록 하시오! 신분이 낮긴 했어도 과인의 어머니께 그 정도는 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라 사당을 원래 집터보다 낮게 깎고 공사를 했다. 사당이 완성되자 모양은 똑같은데 왠지 작아 보이는 것이었다. 영조는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종묘와 같은 모양의 사당에 흡족해했다.



소령원(昭寧園)은
19대 숙종의 후궁이자 21대 영조 어머니 숙빈 최씨의 원소이다. 숙빈 최씨는 최효원의 딸로 1670년(현종11) 11월 6일 태어나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창덕궁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1718년(숙종 44) 3월 19일 춘추 49세로 돌아가 그해 5월 12일 당시 양주땅이었던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냈다. 원역은 산기슭 중단부에 동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봉분 뒤편에 담장을 설치하고 봉분의 양쪽으로 석호·석양을 각각 2필씩 배치했다. 봉분 정면에는 비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 문인석, 석마가 대칭으로 배열되어있다. 석물들이 전체적으로 간략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각의 장명등 기둥과 석마의 다리 사이가 막혀있는 점등으로 보아 조선후기 석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원소 아래 동북방으로는 비각 2동이 있으며 동쪽방향으로 중앙에 정자각과 왼쪽에 수복방이 배치되어 있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 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 최씨의 신도비가 보호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적 358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

정자각 뒤편 금잔디 위에 봉분이 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유일한 무수리 출신의 후궁 아들 영조는 지극한 효심으로 친필 비석 세우기도

사당이 만들어지자 영조는 숙빈 최씨의 신위를 직접 모시려 하였다.

"전하! 후궁의 신위를 직접 모시다니,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영조는 노여워하며 일을 강행했다. 상감의 앞을 차마 가로막을 수 없었던 승지(임금의 비서)는 임금의 발을 못 움직이게 했다. 결국 영조는 자신이 직접 신위를 모시는 걸 포기했다. 육상궁은 후에 비빈이 아니면서 왕자를 낳아 궁호를 받은 다른 6명의 신위를 합하여 칠궁이 되었고, 그 옆의 은정동은 뜨거운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영조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생긴 샘물이라고 전해진다.

청와대 서쪽 궁정동에 칠궁이 있다.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은 1908년 왕가 추존왕의 생모 5명의 신위들을 모아 봉안하면서 육궁이 되었고 1929년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의 신위가 더해지면서 칠궁이 됐다. 왕(추존왕 포함)의 생모이면서 대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사당이 모여 있는 곳이다.

10·26의 총성과 함께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궁정동의 지명 유래는 이렇다. 궁정동(宮井洞)에는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상궁동'이라 불렀다. 그리고 육상궁동 옆에 온정동이 있는데 이들을 합하여 궁정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소령원 가기 전 승용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보광사가 있다. 소령원의 원찰이다. 보광사는 원래 신라 진성왕 8년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후 고려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중수를 거쳤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졌다가 조선 영조 6년에 영조가 생모인 숙빈 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시 세웠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절 안에 어실각을 짓고 매월 초 벽제원(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묵던 집)에서 뒷박고개를 넘어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어실각 앞에는 영조가 심은 향나무가 300년 세월을 지키고 서 있고, 어실각 안에는 숙빈 최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웅보전에는 영조의 친필로 알려진 편액이 걸려 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왕릉에는 휴일이면 방문객들로 붐빈다. 그들이 재위 시에 남긴 치적보다 더 훌륭한 업적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한 것이다. 꽃보라가 지천에 흩날리는 봄날, 소령원은 조용하다.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이라 인적이 없다. 그래서 비공개다. 그러나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청년에게 부탁하니 입장을 허락한다. 적막감마저 감도는 봄날의 소령원, 한 여인의 삶을 추억하고 효심 지극한 그녀의 아들을 추억하니 기분이 흐뭇하다. 시간 넉넉하게 잡아 온다면 좋은 사색의 공간이다. 강하게 추천한다.

한적한 곳에 조용히 누운 무덤 주인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닦은 모양이다. 당신 생전 낮은 신분에서 후궁이 되고 효성 지극한 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은 조선 왕조에서 최장수하며 52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소령원 가는 길

대중교통 : 불광동터미널 → 광탄행 339번 일반버스 → 영장리파출소, 슈퍼앞 하차 → 도보로 20분 소요됨

승용차 : 광탄면 → 유일레져에서 보광사 방면 진행 → 영장 삼거리에서 98번 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 400m정도 가다 좌측 다리로 진입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 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사)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 정 관
원로원장 석화담

호법원장 대원 원 로 벽봉 법령
의전원장 원담 월타 무송
교육원장 구진 도원 혜암
포교원장 보광 일우 지관
연수원장 도명
총무원장 도선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도흥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성운
기획부장 무초
포교부장 지공
비구니부장 혜담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중앙종무원장 태룡
경남중앙종무원장 청강
제주중앙종무원장 의공
전남중앙종무원장 원행
경북서부종무원장 석문
충북중앙종무원장 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법
광주중앙종무원장 아도

◇각부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도명
연수국장 지우
수행국장 보각
경남포교국장 충효
수행특보 성우
사서국장 성덕
사회국장 대원
비구니국장 영암
인천포교국장 지현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391-8583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법사승단종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포항법사승 종무원장 명성 대법사
대전법사승 종무원장 정대 대법사

중앙재무부장 자운
중앙포교국장 보현 중앙총무국장 원명
대구포교국장 금강 경산포교국장 송정

종무원 국장 혜명
종무원 국장 수혜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
부산지부 051)865-7975

◇경기지부종무소
지국장 덕산
충남지부 031)483-4995

■ 마산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24-1769
■ 울산사무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대표전화 052)251-7748
■ 충남사무실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 2리 1061 대표전화 031)244-3054
■ 포항사무실 : 포항시 북구 용흥동 328 용성동 201호 대표전화 054)246-4452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532-4 대표전화 042)273-5137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원로원원장 석봉 대종사(청용사) 부 원 장 백담 대종사(백용사)
위 원 법준(월성사) 정화(용광사) 법성(화엄사) 승전(상원사) 원심(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용정사)

총 무 원 장 송 산(대원사) 총 무 부 장 덕 광(봉덕사) 교 무 부 장 무 연(법령사)
부 원 장 도 현(관음사) 재 무 부 장 도 은(연령사) 사 회 부 장 혜 산(성불사)

중앙종회의장 보 장(장안사) 부 의 장 수 운(소원사)
중앙종회의원 청 산(청산선원) 지 선(천수정사) 연 각(수도암) 백 파(동서양사)
혜 정(광음사) 이 타(학산사) 수 진(지장암) 송 연(보원사)

중앙사정원원장 대원(극락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용광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국제교화원)
부 원 장 옥용(벽송사) 부 원 장 보담(상주사) 부 원 장 현법(청학사)
사 정 부 장 수월(대원사) 교 포 부 장 진아(광명사) 부 장 성암(무우정사)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각원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삼자선원)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승원사)
부 원 장 무봉(무법정사)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화엄정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삼각사)
부 장 지연(법화사)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혜봉(지장선원)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무기(봉선사)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약왕사)

사단법인해동자비원 원장 덕광(봉덕사) 국제교화원 원장 공덕(국제교화원) 용인소년의집 원장 무봉(무법정사)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TEL 031)262-1577 FAX 031)263-1353

대통합종단 (사)대승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월 봉

총무원장 지홍 교육원장 한파 감찰원장 지운
부 원 장 혜암 종회의장 종욱

총무부장 인각 종회의원 지홍 혜암 월봉 한파 고봉 화산 경월 법광
교육부장 도일 선산 현불 정암 법인 선우 지운 무공 인각
포교부장 향산 본지 법공 혜광 연지 정혜 혜원
재무부장 혜광
교무부장 유초
감찰부장 고봉
규정부장 법인
사회부장 혜원 감사위원 법인 본지
중부종무원장 정암 경남종무원장 선우 종무국장 본지 제주종무원장 법산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보광정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번지 TEL 051)527-5431~2 FAX 051)527-7733

대통합종단 (사)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대행겸 총무원장 법 광

종 회 의 장 도진 고 시 원 장 호산
사 정 원 장 각명 포 교 원 장 수법
총 무 부 장 혜운 교 무 부 장 지허
재 무 부 장 태정 사 회 부 장 원광

서울교구원장 정엽 부산교구원장 혜성
대구교구원장 범정 경기교구원장 창담
충남교구원장 도성 전남교구원장 보운
전북교구원장 선월 경북교구원장 도정
경남동교구원장 법정 경남서교구원장 지정

■ 세계불교 임제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송원사 TEL 055)338-4008 FAX 055)334-5890 H · P 011-868-2850

대한불교 三寶 조계종

大僧 멸공 大宗師 宗正 수성 大宗師 僧正 태화 大宗師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副宗正 총무원장 代行

◇원로부원장 법천 大禪師
원로위원 효성,도문,성훈,법련,정민,흥국,정공,정안,용운,향관

◇고시원장 현각 고시부원장 일현 호법위원 법영, 수덕, 법현

◇총무원장 법장 사무총장 법경

총무부장 보장	기획실장 석연	사서실장 성운	재무부장 법공
교육부장 평산	규정부장 보현	호계부장 청파	복지부장 무해
포교부장 지공	사회부장 일각	국제부장 보승	문화부장 법고
건설부장 청조	민속부장 건록	무술부장 여원	교화부장 성보
총무국장 성조	조사국장 도담	규정국장 법운	호계국장 성득
교무국장 법진	포교국장 도연	기획국장 청봉	복지국장 해찬
문화국장 해신	사서국장 나옹	사회국장 성수	기획차장 성웅
민속국장 보화	국제국장 상효	무술국장 현무	염불국장 묘법
홍보국장 성도	교화국장 성효	사무국장 성무	

◇종회의장 청법 부 의 장 지우 사 무 장 청암
종회위원 법경. 지원. 서암. 법호. 취운. 지산. 마조. 백산. 정암. 각원. 태륜. 해석. 계월. 원영. 용현. 보산. 일도. 보영. 해인. 도연. 봉화. 법공 (무순)

◇교육원장 홍인	◇중선원장 석장	◇중선부원장 청산	◇문화원장 정수
◇염불원장 원명	◇복지원장 원각	◇복지부원장 경보	◇포교원장 우담
◇건설원장 성담	◇건설부원장 보각	◇국제원장 남산	◇국제부원장 보승
◇감찰원장 법도	◇감찰부원장 성안	◇교화위원 법장, 성보, 보장, 성효, 송파, 청암, 봉화, 해인, 원영, 일각	
◇감찰위원 법담, 보현, 도담, 덕암, 해월, 대경, 법해, 진묵, 법운, 성득, 해조, 도관, 혜담, 혜국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각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서암.지산	울산교구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북교구원장 석일도	중국교구원장 석정록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 총무원, 종단총림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불보사 TEL 055)338-0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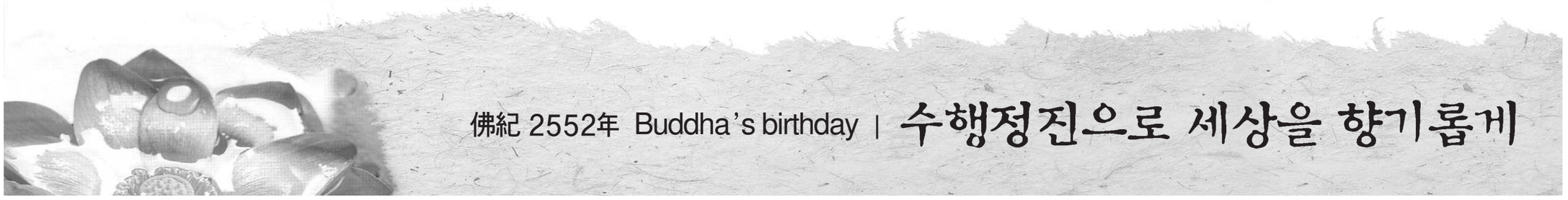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 지 연
부종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유 법 용
원로의원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김대심
이관곤 이대봉 박대월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김대월		
감찰원장	김대원	복지원장	박대성			
교육원장	김대천	연수원장	김현담			
의전원장	이두산	문화원장	김송담			
포교원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불원장	최대황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손혜원			
교화부장	정대능	포교부장	한법성			
규정부장	강만공	재무부장	정법성			
사회부장	허지광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FAX 02)379-2746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자봉

원로원장 학 암

총무원장 해월 부원장 도일
종회의장 천웅 부의장 경천
사정원장 혜명 사정위원 지안. 대광. 성원

교육원장 교덕 홍보원장 수경
연구원장 원상 참선원장 도선

총무부장 해명 문화부장 대화 홍보부장 성운
교무부장 법성 호법부장 보월 연구부장 법공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법정 복지사업부장 봉문
사회부장 도연 포교부장 월암 역경위원 지선

경남종무원장 일공 강원종무원장 대광 충북종무원장 강월
부산종무원장 진광 경북종무원장 도선 충남종무원장 경천
울산종무원장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운

자문위원 청원, 법경, 인산, 성산, 설봉, 덕봉

총무국장 선혜 재무국장 법진 홍보국장 법성
교무국장 선우 사회국장 강명
호법국장 법륜 문화국장 법연

■ 총무원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구문빌딩 4층 / 031)653-1250-1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혜공 우암정사
부종정 석 혜 승 보문정사

승정원장 석추봉 안덕사
총무원장 석진봉 가상사

종회의장 석지경 천용사
사정원장 석지운 삼정사
포교원장 석인봉 보림사
교육원장 석명산 정명사
수선원장 석지심 천보사
문화원장 석승봉 약천사

종도 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TEL 02)937-0343 FAX 02)937-0344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종 정 도암 혜우

승정원장 일암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 정일 포교원장 덕산

문화원장 도월 종회의장 지원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34-1 해월사 / TEL 043)853-2855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일송

장 로 원 장 용주 종 회 의 장 현공
장로부원장 지선 종회부의장 혜원
장로사서실장 혜명

교육원장 법인 포교원장 청광 문화원장 관도 역경원장 수혜
수선원장 서연 법계원장 법정 복지원장 용화 의전원장 동선
국제원장 월산 비구니원장 해광 호법원장 원광 호법부장 광월

총무원장 대현 총무부원장 해법 기획실장 수암 총무부장 수암
교무부장 수산 재무부장 현우 포교부장 해주 문화부장 일월
의전부장 법광 국제부장 법안 사회부장 수암 사업부장 혜명
총무국장 불현 전산국장 혜진 규정부장 지산

■ 종무원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련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성 경기남교구종무원장 일도
경기북교구종무원장 진법 경남교구종무원장 석일 경북교구종무원장 지운
강원교구종무원장 월주 충청교구종무원장 무진 호남교구종무원장 학용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번지 화남정사
전화 031)217-2170. 2633 팩스 031)217-2634

대한불교 위앙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위산(청해)
사서실장 진산

포교원장 무설 | **문화원장 법해** | **사회복지원장 혜광**

총 무 부 장 경산 재 무 부 장 원행 교 무 부 장 해관
조 직 부 장 법상 사 회 부 장 진명 법 사 부 장 혜안
문 화 부 장 혜명 교 육 원 장 청산 감 찰 부 장 무설
포 교 부 장 해덕 호 계 부 장 원각 문화지도부장 해산
감찰지도부장 대암 호계지도부장 법각 포교지도부장 해심
봉 사 부 장 향천 기 획 부 장 지호 홍 보 부 장 창덕

서울종무원장 해경 경기종무원장 해관 충남종무원장 혜안
충북종무원장 지은 전라종무원장 법해 경북종무원장 진각
경남종무원장 원각 대전종무원장 고산 부산종무원장 무산
강원종무원장 법기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산 50번지 (만경사) 041)522-3895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원성동 학생회관 1길 29호 / 전화 041)551-5537 팩스 621-5537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정봉 부 원 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비성 부 원 장 대월
감찰원장 법왕 부 원 장 성덕
포교원장 혜조
호법원장 도암 부 원 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법정 부 의 장 혜도 청량범왕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 무 처 장 현도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정법 대광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연아 포교부장 혜정 기획실장 대각
홍보부장 법정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법정 혜도 각오 범왕 법주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법정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종무원장 혜도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김해교구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부산경남법사단장 백경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대원종전국신도회 회장 권도양(귀양)법사 부회장 우연법사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
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연수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466-1번지 도양사(고시원 연수원) 054)956-9666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 총무원 055)346-2909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홈페이지 대한불교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 E메일 asp8990@hanmail.net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7) 북한산 도선사

짙푸른 노송 사이 눈부신 '영가백등'


도선사 백등과 노송.


개복숭아.


산철쭉.


큰줄흰나비와 말발도리꽃.


산솔새.


도롱뇽.

풍수는 옛 사람들의 일상이자 풍습이며, 존재방식이었다. 우리 풍수의 비조인 도선(道詵) 국사의 자생풍수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부족함을 보완한다는 풍수비보(風水裨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이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친환경 길지를 조성해간다는 점에서 풍수비보는 환경에 대한 희망학이다.

도선사 <대방중창기(大方重創記)>에 따르면, 도선 국사가 산천을 유람하던 중에 이곳에 이르러 말법시대의 불교재흥처임을 간파하고는 초막으로 창건하였다고 한다.

문헌에 보이는 북한산의 가장 오랜 이름은 '부아악(負兒岳)'이다. 산봉우리 암봉들이 마치 불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뫼(火山)-불악(火岳)으로 불리다가 부아악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선사에서 쓰는 '삼각산(三角山)'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악장가사>에 처음 나온다. 버스 종점에 내려 봉황각을 지나면 소귀천을 만난다. 봄 가뭄 중에도 물소리가 청아하다. 하폭은 3~5m, 수심은 평균 30cm 정도이지만, 곳에 따라서는 어른 키를 넘는 깊은 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다. 하상은 암반과 큰 돌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작은 돌과 자갈 등이 섞여 있다.

이곳엔 플라나리아, 옆새우, 날도래, 강도래, 하루살이 등 1급수 지표종이 산다. 물고기는 버들치와 갈겨니가 우점하지만, 계곡 휴식년제의 영향으로 근래 들어 꺽지가 나타나 희망이 되고 있다.

소귀천을 따라 옥류교에 이르면 오른쪽으로 또 다른 계곡이 내려온다. 위쪽에 개신교 기도원, 대형 식당, 도선사 등 물을 많이 쓰는 시설들이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바닥이 말라있다. 그 계곡에서 얻어 쓴 물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하수관을 통해 엉뚱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소귀천 계곡은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들이 우점 하는 가운데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려 숲을 이루고 있다. 소귀천 코스에는 참나무에게 시달린 탓인지 소나무가 그리 많지 않다. 간간이 보이는 소나무도 노송축에 든다. 몇 그루 리기다 외에는 젊은 소나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요즘 들어 가끔 북한산에 멧돼지들이 나타난다. 생태피라미드에서 맨 상층에 존재하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것은 하부 생태가 복원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매개체로 하는 광견병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다시 백운교로 되돌아오면 도선사로 오르는 길이다. 오른쪽으로는 백운대로 이어지는 숲 능선이며, 왼쪽으로는 도선사 계곡이다. 때맞추어 개복숭아, 산철쭉, 바위말발도리, 산이스라지 등의 목본들이 화사하게 꽃피우고 있다. 모두가 계곡을 좋아하는 나무들이다. 산철쭉은 진달래나 철쭉보다 그늘에 견디는 힘이 강해서 주로 계곡 주변이나 음습한 곳에서 많이 보인다. 어린 가지와 꽃자루에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으며, 화관은 연자주색이나 연분홍색 깔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도선사로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길이다. 넓은 길에 자동차 길만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심의 거리도 '걷고 싶은 길'로 바꿔가는 환경시대이다. 국립공원 측과 상의하여 도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이누길잡이가 겁도 없이 길 가운데로 날아들었다. 아이누길잡이는 사람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날아다니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하다. 아이누는 여러 종류의 길잡이 가운데 가장 일찍 나타나는 종이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 계곡 가까운 곳에서 관찰된다.

큰줄흰나비가 말발도리 꽃에 앉아 꿀을 빨고 있다. 큰줄흰나비는 날개에 굵은 줄이 나 있어서 보통 흰나비와 구분된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숲이 많은 양지에 살면서, 십자화과 식물의 꿀을 좋아한다. 가끔 습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한다.

개복숭아꽃이 필 무렵이면 유리창나비, 왕팔랑나비, 부처사촌나비, 작은멋쟁이나비, 큰멋쟁이나비, 뿔나비, 왕세줄나비, 네발나비, 뱀눈그늘나비, 대만흰나비, 큰줄흰나비 등이 보이기 시작한다.

개복숭아·산철쭉·바위말발도리 등 목본들 개화
북한산에 잦은 멧돼지 출몰… 생태복원 청신호

도선사 계곡은 오랫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수질도 양호하고 생태도 비교적 튼실하게 보전되어 있다. 제철을 맞은 관중이 막 새순을 틔우고 있다. 비교적 청정한 계곡이나 음습한 곳에 자생하는 관중은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 가장 종류가 많다. 내한성이 강하고, 금관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외관을 갖고 있어서 사찰 조경에 식재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계곡 주변으로 물오리나무들이 눈에 많이 띈다. 한때 사방용(砂防用)으로 많이 심었던 물오리나무는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들의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계곡으로 내려와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새들은 짝짓기와 둥지 만들기에 바쁘다. 여름철새로는 산솔새, 노랑할미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되지빠귀, 유리딱새, 꾀꼬리, 뻐꾸기, 검은등뻐꾸기 등이 관찰되었다. 여러 해 전 이 지역에서 천연기념물 까막딱따구리가 발견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산솔새는 참새만한 크기의 나그네새이다. 가끔은 우리나라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새로 분류하기도 한다. 등쪽은 암녹색이고 배쪽은 회백색이며, 황백색의 뚜렷한 눈썹무늬가 있다.

도선사는 풍수의 비조로 불리는 도선 국사가 개창했지만, 도선사가 앉은 형국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별로 없다. 일반인들의 눈에도 대찰이 들어설 자리로는 좁아 보인다.

경내에 들어서기 전, 오른쪽 숲 그늘에 지장보살상이 있다. 청설모가 드나들며 신도들이 공양 올린 과자를 까먹고 있다. 과자 속에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해 온갖 화학물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먹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과자를 함부로 놓지 못하도록 절에서 계몽할 일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적비-청담스님상-부도 주변에 영가백등이 눈부시게 내걸렸다. 주변의 노송 여러 그루가 멋진 산수도를 그려내고 있다. 중부내륙형으로 구분되는 북한산 소나무는 화강암과 궁합이 잘 맞다. 그러나 북한산에선 이미 소나무 전성시대가 끝났다.

도선사의 가람들은 형국도 좁은 데다 여러 대에 걸쳐서 임기응변식으로 불사를 하다 보니 배치가 산만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 옛 수행자들은 풍수에 대해 기본적인 식견을 지니고 있어서 산천비보처로서 불사를 했다. 사찰은 '자연 속에 있는 건축'이라기보다 '자연의 일부로서의 건축물'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멘트 건물인 호국참회원은 크게 부담을 주는 건물이다.

명부전은 예전에 청담 스님이 거처하던 백운정사를 개축하여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전각이다. 그 옆 작은 연못에는 도롱뇽과 무당개구리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도롱뇽은 한국특산종이다. 산란을 마치면 물에서 나와 숲속으로 이동한다.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바위 밑이나 넘어진 고목 밑에 은신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활동을 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명부전 도롱뇽은 도선사의 환경을 가늠하는 지표종으로 삼을 만하다.

도선사 주변에는 오랜 시간 동안 화강암 틈 사이에서 결빙이 일어나 그로 인해 다양한 모양으로 갈라터진 토어(tor) 바위들이 많다. 옛 사람들은 편평하게 갈라진 토어 벽면에 글씨나 그림을 남겼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도선사 마애석불도 그 중 하나이다. 자연과 문화의 절묘한 만남이다.

도선사 경내에는 명부전 앞뜰의 피나무(보리수)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 도선사 경내에는 인간의 간섭과 환경의 변화로 몇 종의 제비꽃과 별꽃류 말고는 야생화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선 적지 않은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다.

돌단풍은 전 세계에 단 1종뿐인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주로 계곡이나 냇가 바위틈에 붙어서 자라는데, 예전에는 어린잎과 꽃줄기를 나물로 먹기도 했다. 도선사 주변에서는 삼성각 뒤 계곡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뿌리줄기를 잘라 물기 있는 바위틈에 심어두면 조경가치로도 뛰어나다.

도선사 나무다리를 건너면 용암문-만경대-백운대를 지나 다시 백운교로 하산하는 산행길이 나 있다. 군데군데 돌계단이 놓여있어서 토사유출을 줄여준다. 주변 임지는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여 낙엽부식층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다양한 활엽수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다.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한 참나무류와 다양한 활엽수들이 임해를 만들고 있다. 숲의 자연천이를 위해서는 서어나무를 비롯하여 당단풍, 물푸레나무, 팥배나무 등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오염, 토양 산성화, 인위적 훼손 등으로 이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의 마을 뒷산이다.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허파로서 북한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음덕이 하늘같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 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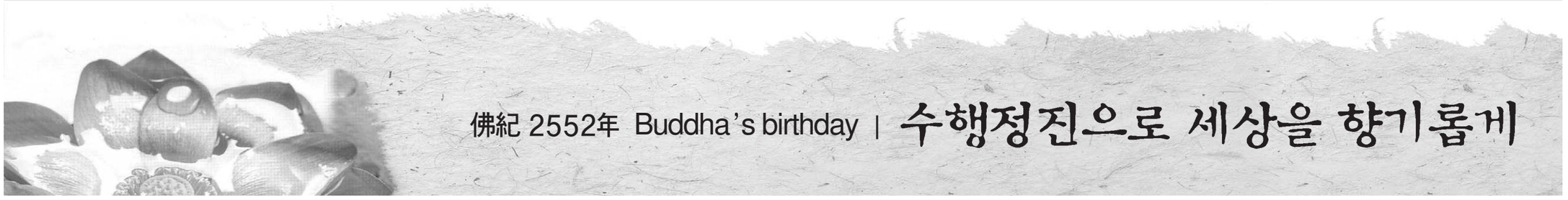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대한불교 법화종

종 정 **성파 대종사**

원 로 원
원 로 의 장 **수봉 대종사**
원로부의장 **오봉 대종사**
의 원 **금파 운명 원광 은파 지우 정수 보명 양운 법진 백담**

중앙종의회
중앙종의회 의장 **도정**
중앙종의회 부의장 **보광 관효**
의 원 **도광 송현 복규 국봉 법원 백봉 광래 원명 혜산**

총 무 원
총무원장 **혜륜**
기획실장 **암현** 사서실장 **효웅**
총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진파**
재무부장 **송현** 사회부장 **일광**
감찰부장 **효천** 종정예경실장 **광덕**
교무국장 **홍선** 재무국장 **천호**
감찰국장 **승헌** 감찰과장 **지혜**

포 교 원
포교원장 **만각** 포교국장 **도각**

각 교구 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 **효천** 경북교구종무원 **혜각** 진주교구종무원 **원봉** 강원교구종무원 **암현**
마산교구종무원 **법산** 동해교구종무원 **국봉** 전라교구종무원 **복규** 충남교구종무원 **백봉**
제주교구종무원 **광수** 경주교구종무원 **서봉** 충북교구종무원 **도찬** 창녕교구종무원 **법원**
총무원직할 **안정사**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번지 TEL 02)762-2678, 764-2678 FAX 02)747-5011

社團法人 大韓佛教 三界宗

종정 **서 허 석 법 수**

총무원장 **박 일 초** 대본산 연화사주지 **석 문 수**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http:www.samgyeoijong.org 한글인터넷: 삼계종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범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2-4호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3-8066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대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 토 종

종 정 **석지산 대종사**
부종정 **박월호**

원로원장 **법보. 혜산**

총무원장 **성일(광음사)** 종회의장 **무각(무량정사)** 포교원장 **향림(금이암)**
호법원장 **보덕(광덕사)** 선 원 장 **육허(동국선원)** 사서실장 **설정(덕수사)**

총무부장 **무상(천음사)** 규정부장 **설진(태원사)** 사회부장 **혜심(원효정사)**
복지부장 **원경(자비원)** 조직부장 **청암(정토사)** 감찰부장 **혜정(성원사)**
호법부장 **도일(자비원)** 교무부장 **혜명(관음사)** 포교부장 **보명(용왕사)**

법사단장 **대원(대원사)** 법사부단장 **대암(세광암). 도암(신도암)**

인천교구원장 **설진(태원사)** 부산교구원장 **정담(삼불사)** 충청교구원장 **향림(금이암)**
강원교구원장 **혜명(관음사)** 동해교구원장 **석범(경불사)** 전라교구원장 **정조(용화사)**

■ 총무원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5-22 석모법조빌딩 701호 / 전화 032)543-2693 팩스 032)868-2694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 정 **봉암 연종**

종정 사서실장 **현각**

원로회의의장 **정각**
중앙종회의장 **도화** 중앙종회부의장 **효봉** 중앙종회사무처장 **법원**

총 무 원 장 **법철** 총무원부원장 **무정**
사 정 원 장 **일암** 사정원부원장 **일선**
교 육 원 장 **법운** 교육원부원장 **도일**
포 교 원 장 **법보** 포교원부원장 **덕암**

총 무 부 장 **진소** 교 무 부 장 **지연** 재 무 부 장 **동월**
사 회 부 장 **상묵** 규 정 부 장 **청원** 기 획 실 장 **대공**

이하 임직원 일동
각 교구 종무원장 이하 종도 일동
전화 02)3663-9468 팩스 02)3664-9468

(재)한 중 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종정 **성 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서울교구원장 **홍 조(弘照)**
부산교구원장 **서 천(西泉)**
경남교구원장 **해 원(海圓)**
경북교구원장 **도 법(道法)**
충북교구원장 **인 호(仁護)**

창종선포문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담**

총 무 원
원로의원 **도관** 총무원장 **정관** 총무부장 **성해** 포교부장 **효은**
재무부장 **일성** 교무부장 **혜종** 사회부장 **선광** 호계부장 **일웅**
사서실장 **청명** 기획실장 **일우**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성철**
경주교구 **지법 효은 자인 법인성** 포항교구 **일령 일소 혜진 지명 일우 일웅**
울산교구 **무초 청명**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지법**
총무국장 **보성**
재무국장 **화수**
사회국장 **선광**
교무국장 **수명**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일우**
총무국장 **진설**
재무국장 **일웅**
교무국장 **법열**
사회국장 **혜문**
호계국장 **지명**

울산교구임원
종무원장 **무초**
총무국장 **청명**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칠포 대원사 TEL 054)261-7777 FAX 054)261-6119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 남산 천선사 TEL 054)748-0462 FAX 054)771-6606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⑥

나아감과 머뭄이 차례가 있고 거침과 미세함이 서로 위배 않아야

二住坐中調三事者 行人當於一坐之時 隨時長短 十二時 或經一時 或至二三時 攝念用心 是中應須善識身息心三事調不調相 若坐時向雖調身竟 其身或急 或偏或曲 或低或昂 身不端直 覺已隨正 令其安穩 中無寬急 平直正住

선정에 들어갈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하는 일은 끝내고 두 번째로 선정에 안주할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하는 일에 대해 밝히겠다.

선정에 안주하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조화한다는 것은 수행인이 처음 선정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서 안주하는 길고 짧음을 말한다.

한 번 좌선을 할 때 반드시 좌선하는 중간에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마음을 써야만 한다. 마음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일체의 혼란과 망상 잡념을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인데, 이같은 상태에서 마음을 쓴다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쓸 때는 반드시 몸과 호흡과 마음 등 세 가지가 조화됐는지, 조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료하고 분명하게 밝혀야만 한다.

즉 몸의 조화를 잘 알아서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호흡의 조화를 거칠지도 매끄럽지도 않도록 해야 하며, 마음의 조화를 들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조화된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처음 몸의 조화를 끝내고 나서 바로 단정히 앉아 지관을 닦을 경우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피로감 때문에 게으른 마음이 일어난다. 망념이 따로 일어나면 몸은 느슨하기도 급하기도 하고, 혹은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며, 혹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위로 쳐들기도 하며, 어떤 때는 몸이 이쪽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몸이 갖가지로 단정하지 못함을 알았다면 마땅히 몸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올바르게 바로잡으면서 몸과 마음이 안온하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 가운데는 느슨하거나 급한 모습이 없이 올바르게 안주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정에 안주하는 가운데서 몸을 조화하는 모습이다.

復次一坐之中 身雖調和 而氣不調和 不調和相者 如上所說 或風 或喘 或復氣急 身中脹滿 當用前法隨而治之 每令息道綿綿 如有如無 次一坐中 身息雖調 而心或浮沈寬急不定 爾時若覺當用前法調令中適 此三事的無前後 隨不調者而調適之 令一坐之中 身息及心三事調適 無相乖越 和融不二 此則能除宿患 妨障不生 定道可剋

다음은 좌선하는 가운데 비록 몸은 알맞게 조화되었다 해도 호흡기운이 조화되지 않아서 껄그럽거나 매끄럽거나, 혹은 풍상(風相)이거나 천상(喘相)이거나, 혹은 다시 호흡기운이 급하여 몸속이 팽창하고 포만감이 든다면 이 모든 것들은 호흡이 조화되지 않은 모습이니 반드시 앞에서 언급했던 호흡의 조화법을 사용하여 병통을 대치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단전 쪽에 안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호흡기운이 몸 전체의 털구멍으로 출입하면서 장애가 없다고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법으로서 호흡을 한다면 호흡이 조화되지 않는 병통을 대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수식관(數息觀)의 도를 닦을 때는 호흡이 면면밀밀하게 하여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게 출입하게 하면 정신이 안온하고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선정에 안주하는 가운데서 호흡을 조화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또 고요히 앉아 참선하는 가운데 몸과 호흡이 알맞게 조화되었다 해도 마음이 들뜨고 요동을 치거나 혼침을 하거나, 혹은 느슨하고 급함이 일정치 않아 이같은 병이 발동할 때에는 앞에서 말했던 마음을 조화하는 법을 사용하여 대치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배꼽에 안정시키고 일체의 망념을 제거하여 마음이 외부로 치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은 시간적인 선후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화되지 않는 부분을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몸이 조화되지 않았을 때는 몸을 조화시키고, 호흡이 조화되지 않았을 때는 호흡을 조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번 좌선을 할 때 몸과 호흡과 마음 등 이 세 가지 조건이 삼위일체로 융화되면 몸과 호흡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마음도 밖으로 치구하지 않는다. 이래야만 일체 묶은 병통을 제멸할 수 있다. 도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정을 닦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三出時調三事者 行人若坐禪將竟 欲出定時 應前放心異緣 開口放氣 想從百脈隨意而散 然後微微動身 次動眉膊及手頭頸 次動二足 悉令柔軟 次以手遍摩諸毛孔 次摩手令煖 以揜兩眼 然後開之 待身熱稍歇 方可隨意出入 若不爾者 坐或得住心 出既頓促 則細法未散 住在身中 令人頭痛 百骨節彊 猶如風勞 於後坐中煩躁不安 是故心欲出定 每須在意 此爲出定調身息心方法 以從細出欲故 是名善人住出 如偈說

進止有次第 麤細不相違 譬如善調馬 欲住而欲去

세 번째로는 선정에서 나올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하는 모습에 대해 밝혔다. 선정에 들어갈 때는 거친 데서 미세한 데로 들어갔으나 선정에서 나올 때는 그와는 반대로 미세한 데서 거친 데로 나와야 한다.

선정에서 나올 때 세 가지 일을 조화한다는 것은 수행인이 좌선이 끝날 무렵 선정에서 나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정에서 나오기 이전에 우선 다른 인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또는 명자 법상을 반연하기도 하고 육근 육진을 반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최초 선정에 들어갈 때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 일념으로 귀결시켰으므로 선정에서 나올 때 다른 인연에 방심하여 마음을 쫙 펴고 화창하게 하지 않아 그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병환이 생길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흩어서 다른 모습을 반연해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입을 벌려 몸 속에서 탁기를 토해내고 맑은 기운을 호흡하여 모든 맥이 나의 뜻을 따라 온몸으로 유통한다고 생각한 뒤에 미미하게 움직여야 하며 절대로 거친 마음으로 기운을 급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양쪽 어깨 죽지를 움직이고, 두 손과 머리와 목을 움직인 뒤에 두발을 움직여 몸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몸이 경직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온몸의 털구멍을 마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요히 좌선하는 가운데 전신의 털구멍이 모두 열렸기 때문이다. 만일 마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몸을 동요하게 되면 풍기가 몸으로 들어와 풍습증을 받기가 쉽다.

그 다음으로는 양손으로 마찰을 하여 손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두 눈을 감고 문지른 뒤에 눈을 뜨고 몸에서 일어난 열이 약간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마음을 자유롭게 선정에서 나와야만 방해로움이 없다.

그러나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안주했다 할지라도 선정에서 나올 때 거친 마음으로 급하게 하면 마음의 미세한 법이 몸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통을 일으키거나 모든 뼈와 사지마다 경직되어 행동거지가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

이를 비유하면 바람기운에 피로를 느끼는 것과 같다. 이것이 풍습증인데, 이 병을 앓게 되면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이 번거롭고 들떠 편안하지 않다. 따라서 수행자는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여 경솔하게 행동하여 몸에 병통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정에서 나올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하는 법인데, 이와 같이 미세한 곳에서 거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선정에 들어가고 안주하고 나올 때 등 세 가지 일을 훌륭하게 조화했다고 할 수 있다.

게송에서는 "나아감과 머뭄이 차례가 있고, 거침과 미세함이 서로 위배하지 않아야만 한다" 라고 하였다.

출정할 때 미세한 데서 거친 데로 나가고, 입정할 땐 거친 데서 미세한 데로 이르러 순서를 어지럽게 해선 안 된다. 이를 비유하면 사람이 말을 잘 길들이면 털끝만큼도 뜻을 어기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면서 가고 머무는 것이 자유로워 전혀 막히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선심소(善心所)

⑤ 정진심(精進心)

'정진심(精進心)'은 십신(十信)중의 하나로 믿음을 향하여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를 앎으로써 끊임없는 정근을 통해 선업을 닦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진심은 모든 선행을 끝까지 닦고 모든 악업을 남김없이 끊는 수행과정에서 만족함이 없는 향상정진과 이로 인해 그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그 자체 성질을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게으름을 대치하여 선업을 끝까지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으로써 그 현실작용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스로 강건하게 수행을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번뇌인 염법(染法)이나 또는 무기업에 있어선 '정진'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을 수행하고 악행을 끊는 마음 쉼없는 정근 번뇌에 물들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위를 쉴 사이 없이 부지런히 저지르면서 나날이 더러운 죄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데, 이것도 부지런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진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정진이 아니라 '해태심(懈怠心)'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악행을 부지런히 행한 만큼 선행도 퇴보를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던 '삼선근'을 통해서 모든 선업을 일으키고, 다시 정진을 따라서 이미 일으켰던 선업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모든 선업이 나날이 높고 좀 더 밝은 곳으로 취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정진에는 선업을 끝까지 원만하게 채우고야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통상 지(智)·인(仁)·용(勇) 등 세 가지의 덕목으로 모든 선업을 총체적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선업을 이 세 가지 덕목에 대비해 본다면 삼선근은 '인'을 행하는데 해당되고, 정진은 '용' 즉 용맹에 해당되며, 지혜로 사리를 결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무치는 '지' 즉 지혜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선근의 뒤를 이어서 바로 정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677호 「무탐심(無癡心)」은 「무치심(無癡心)」으로 바로잡습니다.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재)대한불교전통조계종
우 리 불 원

승정부원장
주지 일오 청해

■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6-6번지 3층
TEL 055)364-3494

禪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
社團法人 牛谷禪院
<부설> 牛谷심성개발교육원

■ 牛谷일산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1-3 삼성프라자빌딩 3층
TEL 031)975-3127~8 / www.zenkorea.org

■ 牛谷부산선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오션타워 1930
TEL 051)740-6288~9 / www.zenkorea.org

■ 牛谷심성개발교육원(www.wooko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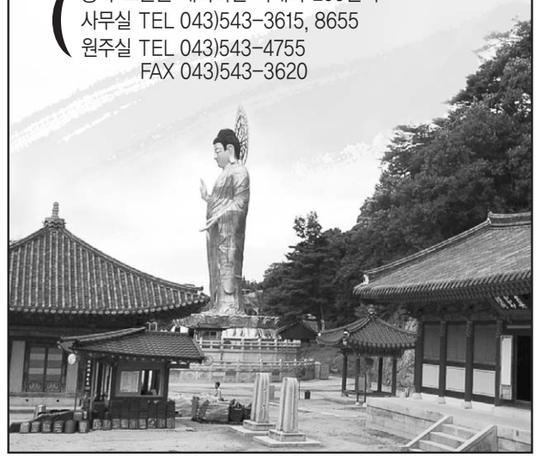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 주 사

주지 노현

총무국장 현 우 기획국장 현 관
교무국장 각 림 재무국장 도 안
포교국장 현 덕 호법국장 혜 우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TEL 043)543-3615, 8655
원주실 TEL 043)543-4755
FAX 043)543-3620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 성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4 / FAX 02)3411-8108
www.kbiguni.org



社團法人 大乘佛敎曹溪宗

종 정 법공성운

부종정 법성혜암　　원로원장 지오법각

총무원장 청송청파
감찰원장 대공지현
문화원장 동민
교육원장 월곡혜종
감사원장 월곡혜종
선 원 장 성관행운
종정사서실장 성득
원로위원 현각

총무부장 대월동산
감찰부장 동암
포교부장 도광혜운
문화부장 보공인중
교육부장 동담
선원부장 혜성

서울교구원장 도현무하
경기북부교구원장 덕진도광
경기남부교구원장 지공도월
강원교구원장 운성정고
충북교구원장 도환
충남교구원장 도원
경남교구원장 영산동우
부산교구원장 동만동조
경북서부교구원장 도균
울산교구원장 혜공

종회의장 현공도일
종회부의장 도환
종회위원 승삼
종회위원 도경
종회위원 동성
종회위원 지안공허
종회위원 도관
종회위원 경운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302-81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84-6 13길42호
TEL: 042-222-6522 / FAX: 042-535-5522

종단 법인 사무소
621-893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TEL: 055-336-0108,335-0178
FAX: 055-336-7070/ H·P: 011-595-6522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사)대승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유전사
조 실 법공성운
주 지 월곡혜종
대 회 장 이옥남 신도회장 오정희
봉축회장 최용화 지전회장 안순덕
청년회장 윤여옥 총 무 유재은
신도회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2-2번지
전 화 042-257-7778 휴대폰 011-451-0778

(사)대승불교 조계종부종정 주석사찰 **대원사**
조 실 법성혜암
주 지 도공
총 무 도석
신도회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2-2번지 전 화 042-527-3800 휴대폰 017-403-3800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백두산 성불암
주 지 청송청파
총 무 동암
신도회일동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 시례
전 화 055-336-0108,335-0178
팩 스 055-336-7070
휴대폰 011-595-6522

(사)대승불교 조계종 원로원장 주석사찰
호국사
조 실 지오법각
주 지 유광
신도회일동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선4리 산181
휴대폰 018-393-5500

(사)대승불교 조계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영각사
주 지 도일현공
신도회장 백인기
신도회일동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20번지
전 화 041-736-4607
휴대폰 011-409-1038

(사)대승불교 조계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보은사
주 지 대공지현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산리 510-3
전 화 052-238-8819
휴대폰 010-4554-1412

(사)대승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주석사찰
현각사
주 지 현각
신도회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1동 297-5번지
전 화 042-535-5619
휴대폰 018-220-0566

(사)대승불교 조계종 문화원장 주석사찰
천수사
주 지 동민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918-23번지
전 화 051-331-4446
휴대폰 010-4411-4108

(사)대승불교 조계종 선원장 주석사찰
대덕사
주 지 성관행운
신도회일동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전 화 043-872-8210
휴대폰 011-9219-0105

(사)대승불교 조계종 종정사서실장 주석사찰
감은사
주 지 성득
신도회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63-98번지
전 화 042-224-1112
휴대폰 010-3033-0124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주석사찰
문수산 화엄사
주 지 대월동산
신도회장 보현행
총 무 감로심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16번지
전 화 052-222-9337
휴대폰 011-9238-9337

(사)대승불교 조계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금륜사
주 지 도광혜운
신도회일동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593번지
전 화 055-367-3624
휴대폰 010-7579-8200

(사)대승불교 조계종 문화부장 주석사찰
보문사
주 지 보공인중
신도회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2번지
전 화 043-264-2925
휴대폰 010-8260-6366

(사)대승불교 조계종 교육부장 주석사찰
불모사
주 지 동담
신도회장 허학성(북 구)
총 무 청정문(한옥희)
간 사 배덕행(이가은)
신도회일동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712번지
전 화 055-343-3015
휴대폰 016-866-6742

(사)대승불교 조계종 선원부장 주석사찰
금강선원
주 지 혜성
신도회일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2번지
전 화 031-383-8117
휴대폰 010-9771-8117

(사)대승불교 조계종 감찰부장 주석사찰
성불암
주 지 동암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832-3번지
전 화 051-305-9634
휴대폰 010-4577-9634

(사)대승불교 조계종 서울교구원장 주석사찰
도법사
주 지 도현무하
신도회일동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전 화 02-429-0769
휴대폰 017-331-0769

(사)대승불교 조계종 경기북부교구원장 주석사찰
성운사
주 지 덕진도광
신도회일동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29번지
전 화 031-675-9877
휴대폰 010-9484-7622

(사)대승불교 조계종 경기북부교구원장 주석사찰
일광사
주 지 지공도월
신도회일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491번지
전 화 031-753-2379
휴대폰 010-9119-2379

(사)대승불교 조계종 충북교구원장.종회수석부의장 주석사찰
청룡사
주 지 도환
신도회장 김상기
총 무 광현,홍명옥
신도회일동
충북 청주시 상평구 산성동 356-1번지
전 화 0043-297-6276
휴대폰 011-461-9414

(사)대승불교 조계종 충남교구원장 주석사찰
대명사
주 지 무천도원
신도회장 오동호
신도회일동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6-1번지
전 화 041-841-5727
휴대폰 010-6321-8899

(사)대승불교 조계종 경남교구원장 주석사찰
천불사
주 지 영산동우
총신도회장 김영철
신도회장 유준현
총 무 유정옥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421 숭촌
전 화 055-354-6038
휴대폰 010-4568-6048



(사)대승불교 조계종
경북서부교구원장 주석사찰
신불사
주 지 도균
신도회장 김철옥
총 무 손덕자
신도회일동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2리 985번지
전 화 054-748-5052
휴대폰 010-9575-5052

(사)대승불교 조계종
강원교구원장 주석사찰
약천사
주 지 운성정고
신도회장 박구금
신도부회장 김묘심
총 무 정법심,김평심
신도회일동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2리 142번지
전 화 033-562-0448
휴대폰 010-9177-0448

(사)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원장 주석사찰
성불암
주 지 동만동조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69번지 4/5
전 화 051-338-8836
휴대폰 011-574-3219

(사)대승불교 조계종
울산교구원장 주석사찰
국통정사
주 지 혜공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41-1번지
전 화 052-225-9337
휴대폰 010-5539-9559

(사)대승불교 조계종
인연암
주 지 승삼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65-1번지
전 화 052-268-8826
휴대폰 010-6658-9375

(사)대승불교 조계종
칠보사
주 지 도경
신도회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57-4번지
휴대폰 01-416-5654

(사)대승불교 조계종
관음정사
주 지 동남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933-162 10/5
전 화 051-743-5750
휴대폰 010-9393-5750

(사)대승불교 조계종
관촉사
주 지 지각
신도회일동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휴대폰 019-482-7204

(사)대승불교 조계종
도법사
주 지 도현
신도회일동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전 화 02-429-0769
휴대폰 017-331-0769

(사)대승불교 조계종
수정사
주 지 선정
총신도회장 장원일
미륵회회장 서정희
부 회 장 이범인
총 무 최경미
신도회일동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142번지
전 화 041-754-1622 휴대폰 011-9784-9760

(사)대승불교 조계종
도성암
주 지 장파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14-54 8/6
전 화 051-331-4949
휴대폰 011-9550-4948

(사)대승불교 조계종
명심암
주 지 혜인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4-52번지
전 화 051-557-9808
휴대폰 010-9475-9898

(사)대승불교 조계종
성불사
주 지 보현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422-25번지 6층
전 화 051-513-7108
휴대폰 011-9025-3234

(사)대승불교 조계종
세원암
주 지 화심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50 13/5
전 화 051-781-6033

(사)대승불교 조계종
미타원
주 지 지안공허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1443-1 삼부A B동 101호
전 화 052-275-3266
휴대폰 016-447-3266

(사)대승불교 조계종
혜각사
주 지 동성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27-53번지
전 화 051-333-9704
휴대폰 011-575-9707

(사)대승불교 조계종
심광사
주 지 동각
신도회일동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796-1번지
전 화 055-854-8526
휴대폰 010-7113-7234

(사)대승불교 조계종
약사암
주 지 연화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 603
전 화 070-7536-0316
휴대폰 010-4846-3968

(사)대승불교 조계종
약수암
주 지 득원
신도회일동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354-1번지
전 화 055-331-8150

(사)대승불교 조계종
북암사
주 지 도관
신도회일동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1구 36-2번지
휴대폰 011-459-8353

(사)대승불교 조계종
용궁사
주 지 연경
신도회일동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936번지
전 화 055-583-3335
휴대폰 016-3607-8871

(사)대승불교 조계종
우남철학원
주 지 혜안정
신도회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63-25번지
전 화 042-824-7030
휴대폰 010-3009-7748

(사)대승불교 조계종
자비원
주 지 혜원
신도회일동
부산시 진구 양정2동 22-32 다스랑빌리지 808
휴대폰 011-575-6577

(사)대승불교 조계종
천인사
주 지 황호정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45-1번지

(사)대승불교 조계종
달마정사
주 지 경운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357-7
전 화 052-266-0740
휴대폰 010-9514-1666

(사)대승불교 조계종
상원사
주 지 원공
신도회일동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1리 511번지

(사)대승불교 조계종
현겁사
주 지 법철
총 무 보명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 삼익비치A311-601
휴대폰 010-3835-9298

(사)대승불교 조계종
혜연사
주 지 유광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68-2번지
전 화 052-267-3278
휴대폰 010-2857-0007

(사)대승불교 조계종
무량사
주 지 선경
신도회일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391-6번지
전 화 043-848-5311~3
휴대폰 010-2078-2579

(사)대승불교 조계종
승득 무영
혜택 혜각
대영 동철
법승
보현(박은아)
갑재(노태준)

(사)대승불교 조계종
월광사
주 지 월광
신도회일동
경남 창녕군 직교리 444번지
휴대폰 010-3256-6141

(사)대승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 지 해광
신도회일동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111번지
휴대폰 016-285-9420

(사)대승불교 조계종
약사사
주 지 의안 정오
총 무 서광 의안
신도회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6 B-6
휴대폰 010-6346-4098

(사)대승불교 조계종
영수사
주 지 경덕
신도회일동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랑리 193-32

(사)대승불교 조계종
남강식당
대 표 석혜경
오옥순
경남 김해시 서상동 50-2번지
전 화 055-336-7605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네 마음부터 보아라!

제주지원의 여러분, 그리고 큰스님네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명 깊고 감사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는 불교가 목탁이나 치고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고 점이나 보고 사주나 보는 마구니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하여간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한 지구 안에, 즉 한 버스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한 버스 안에서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네 자리 내 자리,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불교의 심오한 뜻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란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돌 하나의 생명도 모두가 '불(佛)'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그 생명들은 전부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끝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전체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진리에 순응해야 하며 시대가 발전되는 대로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그 시절에 맞게 방편으로 썼던 용어를 지금 시대의 용어로써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 바깥으로 끄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네 마음부터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을 것이고 부처님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부처도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예로 든다면, 그 나무의 잎새, 가지가 무엇으로 인해서 푸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싹이라면 여러분의 영원한 뿌리, 근본 불성은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만이 제 뿌리에서 철분 지분 수분, 이 모두를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태양열과 공기력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상응하면서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대 성인들과 모든 부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부처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부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무가 제 뿌리를 믿어서 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바로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그렇게 만 가지 맛이 남으로써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맛을 보고 그 뜻을 짐작을 하고, 그 맛을 보고 부처님의 묘한 뜻을 알고, 그 맛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자기 근본 뿌리를 믿지 않고 아무리 바깥으로 찾아 봤자입니다.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한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도 바로 오신통을 그대로 역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지인데 그것도 이름 해서 다섯 가지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가고 오면서 행하고, 남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속으로 어디서 내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섯 가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것은 어떻게 따진다면 한 덩어리의 컴퓨터밖에는 되지 않느니라. 그 행하는 도리의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누진의 대뇌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신통 자체를 굴린다고 했습니다. 오신통 안에서는 오신통을 굴릴 수가 없으니까 오신통을 벗어나야 되죠. 통 밖으로 나가야 그 통을 굴리듯이 말입니다. 아리송합니까? 하하하….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또 먹는 것까지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 해서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 데 도가 있는 줄 알지 마시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도가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생활이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바로 잘 굴리고 못 굴리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각자를 보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자생중생들이 꽉 찼습니다. 자생중생들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이 자생중생을 어떻게 해야만이 제도를 하고 화하게 해서 보살로서 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바로 본인 자체가 견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생중생들이 만약에 작용을 멈추고 어떠한 병이 들거나 파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몸뚱이를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이 몸뚱이 속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그 인연에 따라서 주어진 악업 선업이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물 한 컵을 먹었다 합시다. 물 한 컵을 먹었을 때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共食)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죠. 내가 일할 때도 같이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봤다 하더라도 '내가 봤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번 게 없고요. 모두가 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높다 낮다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높다 낮다 할 수가 없는가.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벌었다'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망했다' 또는 누구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줬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살고 있다' 그저 매사 게나, 나, 나, 나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오신통이 컴퓨터와 같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줘서 입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모든 거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입력이 될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에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된 대로 말입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그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애고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성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세균성이라고 하고 인과성이라고 하고,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지금 물질세계에서 물질과학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과학으로 물질세계에만 등장을 한다면 절대 그것은 올바른 과학이 아니며 올바른 천체물리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학이 아니고 올바른 철학이 아니고 또 올바른 천문학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에 의하면 (물컵을 만지시며) 이것이 부피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해 내는 것이 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견했으면 그와 더불어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마실 줄 알고, 잠자고 싶으면 잠잘 줄 알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줄 아는 것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유인이 돼야만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부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그걸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생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제도가 된 거고, 제도를 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즉 지금 현재의 말로는 원자에서 분자로서 입자가 수만이 나가서 응신이 돼

☞28면으로 계속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소승은 우리들의 몸에(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맑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재)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천견 스님이 천도재 기도 집전>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 연기와 풍경(바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탱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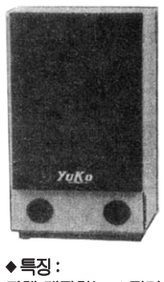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어요

☞27면에서 계속

서 바로 각양각색의 중생들에게 응신이 돼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체가 없으면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가는 아촉이니 이 아촉불 자체가 전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잘 제도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업보나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이런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식을 지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 모든 애고가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각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에 의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것을 관습이나 습에 끄달리고 애고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 한생각을 자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몸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둘째는 어항에서 벗어나거라." 하셨는데 그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죠.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마음들이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희는 그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 이 법계를 다 한 찰나에 둘러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바로 부처님의 뜻도 알 뿐만 아니라 큰스님네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것이 없거든요. 이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는지 모르죠. 물론 뱀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개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 번 그런 말을 한 예가 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늙은이 애도 없고 모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도의 진리를 너무나 가깝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온통 욕심이 나게 하고 분기가 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선장으로 다스려라. 다스리면서 내면에,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넣어라."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맡겨 놓지 않는다면 그 업보는 없어질 수가 없고 그 번뇌 망상은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껏 지금 편안할 때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조각조각 나서 가루가 된다 한들 뭐가 속이 상합니까?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 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 **도(道)가 아주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마음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도 역시 형성될 때에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대천지세계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검은 대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거기에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대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를 형성시키고 별을 형성시키고, 별을 형성시켰으면 태양을 형성시키고 위성도 형성시키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형성을 시키고 모두를 형성시켰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처럼 나가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한테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바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도가 오든 안 오든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날 위해서, 우리 승려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물건을 사러 간 거지 돈을 가게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그 물건의 값어치가 되는 대로 돈을 내놓고 그 물건을 사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돈 준 사이도 없고 저쪽에서 물건 준 사이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므로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도는 생활 속에 있는 거지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없고 마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에 의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부처 바로 전 살던 데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무슨 도깨비처럼 날뛰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믿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뭇잎들이 자기 뿌리를 안 믿고 딴 나무를 믿는다거나 딴 이름을 믿는다거나 딴 형상을 믿는다 하면 에너지가 자기 나뭇잎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아라!" 했고, 달마 대사께서도 "너부터 알라" 했고, 모든 부처님들, 각 계각층 선지식들께서 다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너를 모른다면, 과거의 너를 모른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죠. 과거의 너를 잡고 가야만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타파할 수 있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모른 체하고, 즉 말하자면 자기 뿌리를 모른 체하고는 딴 싹, 딴 이름, 딴 형상을 믿고 온통 나를 살려 달라, 이사를 가는데도 잘 가게 해 달라, 죽게 돼도 낫게 해 달라, 이러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신계가 지금 물질계하고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지금 의학계에서도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대치를 할 텐데 어디서 온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만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그 학술을 배웠느냐, 어떤 놈이 그 학술을 배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모두가 마음 빼놓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도 30%, 많이 쳐야 40%밖에는 이끌어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60%는 누가 끌고 갑니까? 모든 게 정신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심성계에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자 여러분은, 얼른 쉽게 말해서 (물컵을 만지시며) 이 둘레가 어떠니,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니, 어떻게 만들어졌느니, 몇 해가 됐느니, 이런 거를 연구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거는, 보고 알았으면 갖다가 먹을 줄 알고, 대치해 놓을 줄 알고 옮겨 놓을 줄 알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도다 이겁니다. 그러니만큼 도가 아주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찰나를 뒤집어보지 못하고 그 업식에 의해서, 습관 습성에 의해서 영 고쳐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상스럽다고만 생각할 수밖엔 없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부터 알라" 하니까 저놈 이상스런 말만 한다고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죽인 게 아쉽죠, 모두?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한생각을 잘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삼분의 일이 어떡하고 지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시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이 오늘 학교를 간다더니만 안 가고 저녁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대하십니까? "요놈의 새끼야, 응? 공부하러 가랬더니 어디 가서 퍼질러 다니면서 놀다가…, 요놈의 새끼!" 하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욕을 퍼붓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욕이나 말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마음으로 잘못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걸랑 "아이구! 너 배고프지 않았니? 어디 가서 이렇게 자고 왔니? 어디 가서 이렇게 놀다 왔니? 용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에다 맡겨 놓으라고요. 끌어 쓰는 용도는 다 달라도 전력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력이 다 똑같듯이 아들의 주인공 뿌리와 내 뿌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주인공! 저 아들의 마음이 저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은 천리만리라도 통합니다.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지 못하니까 아주 무시하죠? 그러니 통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답니다.

아주 난폭하고 공부도 안 하고 등록금 주면 갖다가 삭혀 버리고 술 먹어 버리고 이렇게 하던 아들을 가진 신도가 있었는데, 자꾸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 주면서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서, 하루는 항아리를 닦고 있는데 "피곤하죠, 엄마!" 그러면서 "내가 좀 들어 드리고 내가 좀 닦아 드릴게." 하고 그날부터 착해져서 지금까지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중 박수)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것은, 생활 속에서 남편이 잘못했다거나 괴롭히더라도 말로다가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행해 주시면서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남녀를 막론해 놓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화목하고 질서 있게 행하세요.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을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야.' 하고서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바로 전기가 통하듯이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과거 무심과 지금 현재 유심이 같이 둘이 아니게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화목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 주고 그렇게 되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도 중에 많이 있습니다. 본원도 그렇고 지원도 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천도를 했습니다만 내가 제주도에 처음에 와 보니까요, 그 4 · 3 분규 아시죠? 4 · 3 분규! 저쪽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제주도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저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그냥 아주 샌드위치가 돼서 숨으려고만 애를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땅속으로 돌틈으로 모두 은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한 때 뱀이 무지하게 많았죠? 뱀 말입니다. 그렇게 돌 틈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죽으니까 그 영혼들이 다 그냥 혼비백산을 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탄생이 될 수밖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제주도에서 많은 곤욕을 치루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뱀이 집 가로 막 기어들어서요. 그러나 지금은 보려 해도 별로 볼 수 없죠? 어떻습니까?

대중: 예! (대중 박수)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5월 29일 제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정수에 2~3방울만…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개발!!

관불수향 출시!!



灌佛杉香

거룩한 불탄일을 맞이하여 능인향당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관불수향으로 성스러운 관불의식을 더욱 경건하고 향기롭게 누리십시오.

관불수향(약 20㎖)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격 : 120,000원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1〉
초파일 이전에 관불수향을 주문하시는 스님께는 능인향당의 대표향인 **능인향** 1통과 **침향선향**의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2〉
능인향의 우수성을 알리고저 전화를 주시는 모든분들께 불가의 원향으로 제조한 고도로 순한 선향 샘플을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능인향당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용화삼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시판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비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남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료 관련 국제 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다수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직접 돌며 구한 원자재로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불수향이란

관불, 관욕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수에 희석하여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사용법

청정수에 1~2방울을 타서 희석하여 사용하되 양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방울 정도면 세숫대야 하나 정도를 희석할 수 있는 양으로, 1병으로 약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욕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관불수향의 재료

불가에서 신성시하는 신목인 5단 향목(침향, 전단, 자단 등)을 주종으로 하여 정향과백리향 등 5화에서 직접 추출한 향유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지난 3년여에 걸친 신제품 실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덕 큰스님들께 우선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관불수향의 주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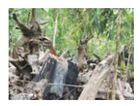
• 침향 : 세계 3대 향(침향, 사향, 용연향)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향으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향이며, 사기를 몰아내고 인체의 기를 북돋아 주는 등의 약성이 뛰어나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중약대사전 등에 그 약효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전단향 :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날에조차 향기를 묻힌다고 하는 백단의 뿌리부분으로, 최초로 불상을 조성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신목 중 하나. 인도가 원산지로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화장품이나 향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된다.

• 자단향 :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불가에서 중요한 공양물로 여기는 향나무. 사기를 몰아내고 간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나무결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고급 조각 재료로도 이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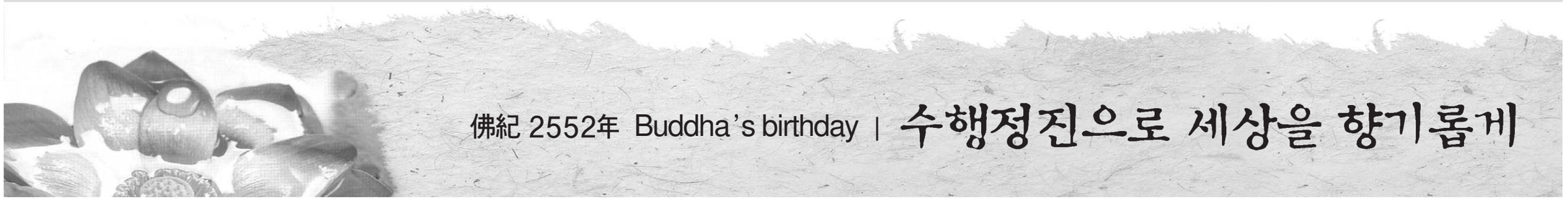
제작동기와 제작과정

불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관불, 관욕의식은 전단과 자단 등 불가의 신목을 다려서 향수를 만들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방 이후 화학향이 발달하고 일제향의 유입으로 툴루엔 등에 값싼 향수를 섞은 향들이 사용되면서 그 편리함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향을 부러뜨려 사용하는 것으로 성스러워야 할 향탕수를 대신하는 현상이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습니다.

새벽일찍부터 향물을 끓여 관욕준비를 하시던 예전 노스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다시금 불가의 청정한 법도를 되살리고자 하는 불교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능인향당에서는 불가의 성지를 직접 찾아 초기 불가의 전통을 연구하고 확인작업을 하여 불가의 신목을 찾아내었고, 그 특성상 유성(油性)이 많은 불가의 향목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용성화 하면서 피부미용과 아토피 등에도 효험이 있는 백단 등의 향목을 첨가하는 등 7년여의 노력끝에 전단과 침향, 백단 등 불가의 신령스러운 향기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간단히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현대적인 관불, 관욕 전용향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능인향당 能仁香堂

본사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홈페이지 : www.nihwa.com 직영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조계사 앞



한국불교 여래종

종 정 석인왕 031-747-8303 016-363-6923

승정원장 **석무공(대용호사)** 011-304-6879
종회의장 **석법수(도선암)** 055-962-7621
포교원장 **보당(보국사)** 011-864-8800
연수원장 **법인(천불사)** 011-450-3078
원로원장 **석일홍(일흥사)** 031-832-6091
총무원장 **법룡(대성암)** 011-378-8837
규정원장 **해륜(황용사)** 010-2551-2426
종찰원장 **명안(대약사사)** 010-9292-4828

총 무 원
총무부장 **송화(보현암)** 043-643-2988 010-6283-9993
재무부장 **보혜(화엄사)** 051-723-1851
문화부장 **묘수(문선암)** 011-368-8967
교화부장 **서광(연화사)** 010-4705-1073
사회부장및 홍보부장 **정암** 010-9944-1075
법사부장 **성호(문수암)** 033-744-2160

호 법 원
호법부장 **보상(약사사)** 011-9540-5229
감찰부장 **호공(여래사)** 011-219-3550
비구니 회장 **해광(불정사)** 019-270-3900
총무 **선덕(만연사)** 010-6661-0296

호 법 원
원로위원 **능엄(천관산)** 031-388-6662
원로위원 **연화(약사사)** 031-449-1853
원로위원 **범오(명불암)** 033-735-5958
원로위원 **관조(백운정사)** 043-652-1270

한국 대승 불교 조계종

종 정 김봉진
총무원장 윤화봉

원 로 원 장 **관능**
총 무 국 장 **운고**
경남종무원장 **등정**
경북종무원장 **지영**
부산시종무원장 **운고**
울산시종무원장 **혜관**
강원도종무원장 **해운**
광주시종무원장 **법장**
경기도종무원장 **총해**
서울시종무원장 **혜정**
교 육 원 장 **등정**
감 사 부 장 **약산**
감 사 **사우**
감 사 **대진**
호 계 부 장 **법경**
비 구 니 원 장 **덕산**
비 구 니 총 무 **용주**
비구니재무국장 **덕심**

■ 총본산 : 경남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05번지 ☎ 055-521-1236. HP: 011-9528-4026
■ 총무원 ☎ 055-351-0562. HP: 010-8331-0320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유지재단

< 회원 및 단체 안내 및 등록 안내 >

대한미타조계종
한국미타조계종
대한불교미타종
한국불교미타종
세계불교법왕종
대한정토불교
불교조계종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한국불교단체진흥회 회장 정회암
02)2242-7985/017-390-0909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축

"길은 우리들의 수많은 염원이 모아질때 비로소 만들어 집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佛法의 길을 중앙신도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회관 모연 동참 안내
농협 053-01-268597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여여불교대학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동문회, 복지회, 합창단, 선림회, 지장회, 관음회, 교무위원, 여여선림
여여산악회, 기초교리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참선반, 법화경반, 여여불교대학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 FAX.(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 www.yeoyeo.net (한글'여여선원')



불상,석탑,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러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낙산사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 낙산사
· 낙산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 불교대학
· 관음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 노인복지센타
· 낙산 노인전문 요양원
· 상락원(실비노인전문요양원)
· 무산 지역아동센타(의상공부방)
· 낙산사 무료급식소
· 보현회, 의상회

대한불교 조계종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수행하는 도량, 정진하는 불자, 나누는 깨달음



봉축법요식 : 5월 12일(월) 10:00 대웅전 앞마당
봉축점등식 : 5월 12일(월) 19:30 대웅전 앞마당

www.bongeunsa.org

봉은사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모든 불자님들의 서원과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주지 명진

奉恩寺 대한불교조계종 선종수사찰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조 실 보광혜정대종사
부조실 경하현성
회 주 진불장혜성
주 지 선묵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www.dos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 TEL (02)993-3161~3



꽃꽂이 강의
매주목요일
오후 1시~3시



사부대중일동

기 원 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 림 꽃 예 술 중 앙 회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제25교구 본사 奉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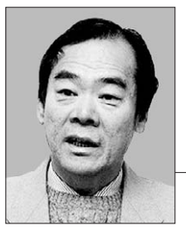
조 실 월 운 회 주 밀 운
주 지 인 묵 부주지 해 송



총무국장	보 인	기획국장	장 산
교무국장	지 환	재무국장	보 관
사회국장	법 원	포교국장	지 견
호법국장	환 적	종책실장	혜 림
문화원장	왕 산	문화국장	지 학

·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장자어린이집
남양주시 노인 복지관
남양주시 청소년 일시쉼터
남양주시 지역아동보호센터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 031)527-1956 전송 : 031)527-1958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이근후열린마음의원

‘가정의 달’을 다시 생각하다

5월 가정의 달이 또 돌아왔다. ‘또’라는 말을 다시 쓰는 이유는 매년 우리들이 맞이하고 보낸 가정의 달이지만 언제나 5월 한 달 뿐 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실현이 소홀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근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일 년 365일 모두가 가정의 날인데 굳이 가정의 달이라고 새삼 정해 놓고 실천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다. 하긴 말은 옳지만 건강한 가정으로의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5월 한 달이라도 정해 놓고 마음새김을 하자는 논리일 것이다. 1930년대의 한 사회학자가 당시를 기점으로 50년 정도가 지나면 가정이란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 이해되기로는 당시 논문을 썼던 사회학자의 개념으로 정의 내렸던 가정이란 개념이 변화할 것이란 강한 시사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했을까? 구조적으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했다. 그것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른 가족구조의 적응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이에 더하여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가족으로 확고히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과정에서의 진통을 보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중심축에 있다.

독립적인 자아와 자기중심적인 자기실현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가족구성원 각자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어나가는 추세가 변한 것이라면 변한 것이다. 옛날의 가족제도 아래에선 자신이 주체일 수도 있고 종속된 존재일 수도 있고 위상이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독립적인 자기중심의 실현을 하려고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문제로 찾아온 내담자를 만나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의 종이라고 표현한다. 자녀는 자녀대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항변이다. 갈등의 중심축에 서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처님에게 묻는다면 역시 <부모은중경>에 설한 내용을 다시 설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부모은중경>에서 지적하는 바가 지금에도 달리 주장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와 지워진 인연의 중요성을 설파한 내용을 수정할 만큼 다른 정론이 없다.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인연을 새기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쉬운 이야기를 누가 모르랴 하지만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는듯하다. 옛날에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알지도 못하는데 행함을 기대하겠는가. 부자자효(父慈子孝)란 말이 있다. 부모는 마땅히 자애롭고 자녀는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부모는 지나치고 자녀는 모자라는 사랑이라서 자녀에게 효도할 것을 더 많이 가르친 적이 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부모자녀 간의 사랑을 원천적으로 다시 학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모르면 가르치고 알면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 <부모은중경> 말씀이 변함없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은 세월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부모와의 소중한 인연을 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어떤 방편으로 실현하여야 할까는 가족구조의 변화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들은 옛날처럼 대가족제도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일차적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단일 문화와 가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치적 다문화 속에서 지구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할 환경이라면 마땅히 실현과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통적인 행동양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선 꼭 전통적 방법만이 효를 실현하는 외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방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에 온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현대식으로 실현해갈까 깊이 생각해 보자. 미국 前 대통령인 레이건의 아들이 최근 한국에 와서 “치매환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의 경험담이니 절실하긴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궁금하다. 어쨌든 오늘날에 걸 맞는 사랑의 표현이 어떤 행동일까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저걸 왜 타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㊷ 놀이공원에서 만난 부처님

놀이공원의 공포

“삼촌, 왜 그래?” 대학생 한군은 당황하고 있었다. 놀이공원에 괜히 왔다고 생각했다. 일요일에 조카를 봐달라고 누나부부가 용돈을 준 날이었다. 하루 종일 뭘 할까 물어보니 초등학생 조카는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다. 문제는 바이킹을 탈 때였다. 조카가 꼭 같이 타자는 것이었다. 엉겁결에 함께 줄을 섰다. 바로 눈앞에서 바이킹이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한군은 끔찍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바이킹을 탔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 기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몸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것 같아 무서웠다. 움직이는 압력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내려올 때도 고통스러웠다. 지옥 같던 몇 분이 지날 때 한군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잘 내려올 수도 없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워보기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카 때문에 또 타게 된 것이다. 잔뜩 겁이 났다. 조카에게 “너 혼자 탈 수 있지? 삼촌은 밖에서 기다릴게” 했다. 조카는 “싫어. 혼자 타면 재미없어. 같이 타, 삼촌” 하며 손까지 잡았다. 한군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길도 없었다. 오직 바이킹을 탄 후에야 정해진 대로 나가는 길이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오고 걱정이 되었다. 조카에게 “넌 바이킹 좋아하니?” 했더니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데! 난 올 때마다 꼭 타.” 조카는 한 술 더 떠서 “탈 때는 꼭 가장자리에 타야 돼. 그래야 제일 높이 올라가서 스릴이 있거든. 가운데 자리는 덜 움직여서 재미없어, 삼촌, 우리 탈 때 빨리 가서 양쪽 끝에 앉자, 응?”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니, 가뜩이나 현기증이 나고 무서운데 끝에 앉아서 제일 높이 올라가자고? “끝자리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적당히 앉자.” 해보았지만 “아냐, 그래야 재미있어!”하며 조카는 완강했다. 그 귀엽던 조카가 왠지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이제 공포가 한군을 사로잡았다. 차례가 줄어들 때마다 한군의 가슴은 점점 저려왔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아이도 태연하게 타는데 난 이게 뭔가 싶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혹시 고소공포증인가 싶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괜찮을 거라고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 해도 되지 않았다. 예전 기억이 떠오르며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울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 고문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 한군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다는 부처님이 떠올랐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속으로 외쳤다. “부처님, 도저히 못 타겠어요. 두려워요.” 몇 분 후면 차례가 된다.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한군은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열심히 마음속으로 애원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끝내 운명의 차례는 왔다. 조카는 신이 나서 한군을 이끌고 제일 끝자리로 갔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꼭 고문대에 앉는 것 같았다.

드디어 바이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군은 앞의 난간을 꽉 붙들고 ‘죽을 준비’를 하였다. “부처님, 살려주세요!”하고 마음으로 외쳤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상했다. 바이킹이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분명히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다. 몸과 마음에 아무 압박감이 없었다. ‘고장났나?’ 하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바이킹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평지에서 천천히 차를 타는 것 같았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움직이며 편안한 것이다. 이상한 기분으로 마쳤다. 조카는 “삼촌, 그거 봐, 끝에 앉으니까 더 많이 흔들리지?” 한다. 흔들리기는커녕 너무 편안했는데. “그래, 재밌던데” 하며 미소까지 지어주는 여유가 있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그 날 내내 한군은 그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생각했다. 아니, 예전과 똑같은 바이킹인데 왜 그렇게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을까. 문득 타고 있는 동안 무척 편안하고 자비로운 느낌까지 들었음을 회상했다.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기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을 찾은 것뿐이다. 정말 그래서 마음속의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하고 생각하니 놀라웠다. 내가 무서워하니 자비롭게 나투어 실제보다 느리게 느끼도록 해주신 것인가, 스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라는 말씀이 그 전에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못했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통했나봐요, 신기합니다.” 놀이공원에서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한군에게는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다는 자성본래불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부처님 만나는 길을 닦자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 큰 소리로 부처님오신날! 하고 외쳐 봅니다. 과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물론,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장 되어 있는 ‘본래무일물’의 진리라는 선가(禪家)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체가 연기적 순환 구조 속에 있음을 깨달아 집착의 굴레를 벗어난 곳이 ‘부처의 자리’라는 교학의 근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가? 라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기2552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던지는 이 질문의 유효성! 인간 세상에는 부처님이 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고 온갖 범죄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와 계신 곳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범죄가 있는 곳, 인간의 꽃이 시들고 악의 꽃이 무성한 곳에 부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다. ‘착함도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던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놀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음’을 알고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거문고 줄을 고르라’던 가르침도 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 걸까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던 그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토대로 부처님이 오시던 그 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 부처님이 와 계시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납니다. 왕비의 옆구리를 열고 길에서 태어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의 깨끗한 산실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나뭇가지 아래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계급과 권력과 권위 그리고 부와 명예를 따르기보다는 인간 본래의 모습 우주의 본래 진리로 통하는 길을 추구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길에 와 계십니다. 계급 보다 낮고 권력이나 권위, 부와 명예 보다 낮은 길,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로 향한 길에 부처님은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를 외칩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믿지 않는 불자는 없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극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존엄의 선언이고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은 없음을 밝힌 것이며 마땅히 일체 생명이 더불어 편안한 세상을 열겠다는 사자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입니다. 존엄한 생명을 존엄하게 알고 온 생명이 더불어 행복고자 노력하는 그 곳에 부처님은 와 계십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쪽에 있습니다. 자신의 안쪽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일체를 걸림 없이 들이고 낼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만나는 길을 닦읍시다.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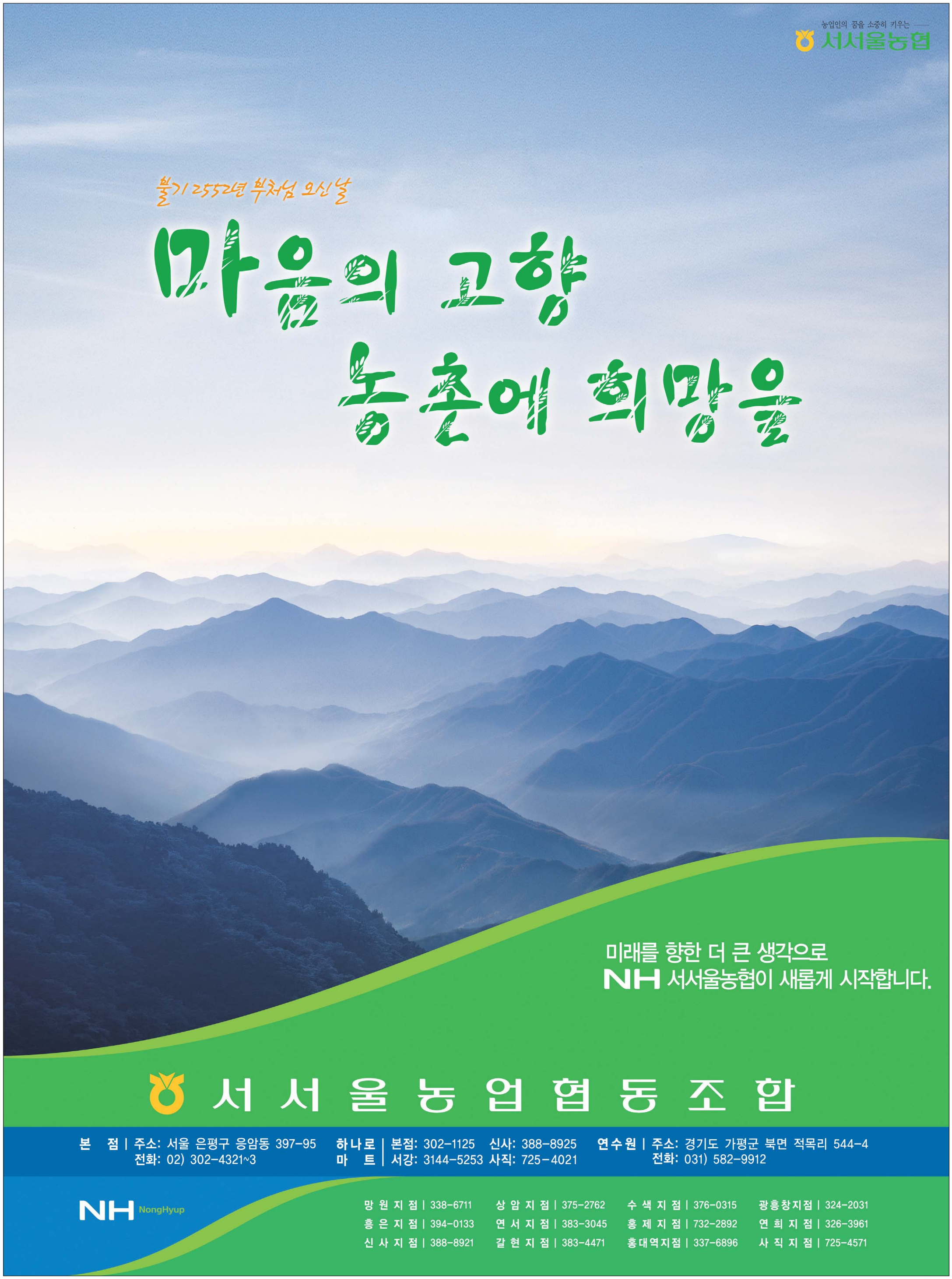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서울농협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고향
농촌에 희망을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 서서울농협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 서 울 농 업 협 동 조 합
본 점 |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02) 302-4321~3
하나로 마트 | 본점: 302-1125 신사: 388-8925
서강: 3144-5253 사직: 725-4021
연수원 |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544-4
전화: 031) 582-9912
NH NongHyup
망 원 지 점 | 338-6711
상 암 지 점 | 375-2762
수 색 지 점 | 376-0315
광흥창지점 | 324-2031
홍 은 지 점 | 394-0133
연 서 지 점 | 383-3045
홍 제 지 점 | 732-2892
연 희 지 점 | 326-3961
신 사 지 점 | 388-8921
갈 현 지 점 | 383-4471
홍대역지점 | 337-6896
사 직 지 점 | 725-4571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흥겨운 佛心 세계의 잔치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축제는 올해도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다. 5월 3일 전야제의 화려하고 신바람 나는 무대로 시작된 연등축제는 4일 하루 종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 우정국로를 가득 채운 시민과 불자 외국인 관광객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활발했으며 각국의 불교전통과 풍물을 알리는 행사도 불자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대문 축구장에서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등축제는 어울림과 나눔의 한바탕 잔치판이었다. 잔치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 대동한마당으로 이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 연등축제는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범불교적 여망을 불자들의 삶으로 회향하는 흥겹고 뜻 깊은 잔치였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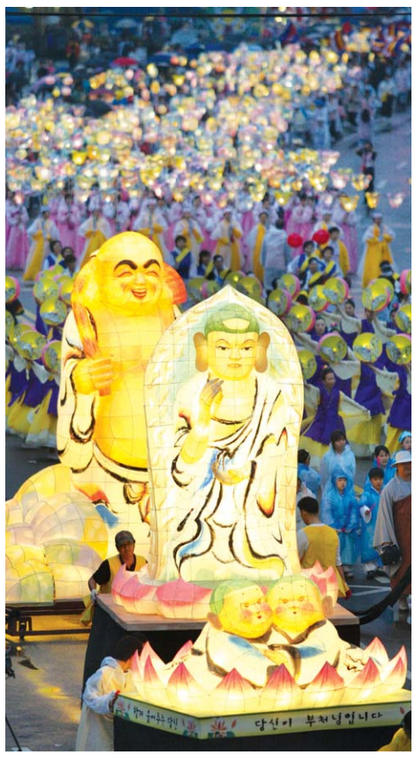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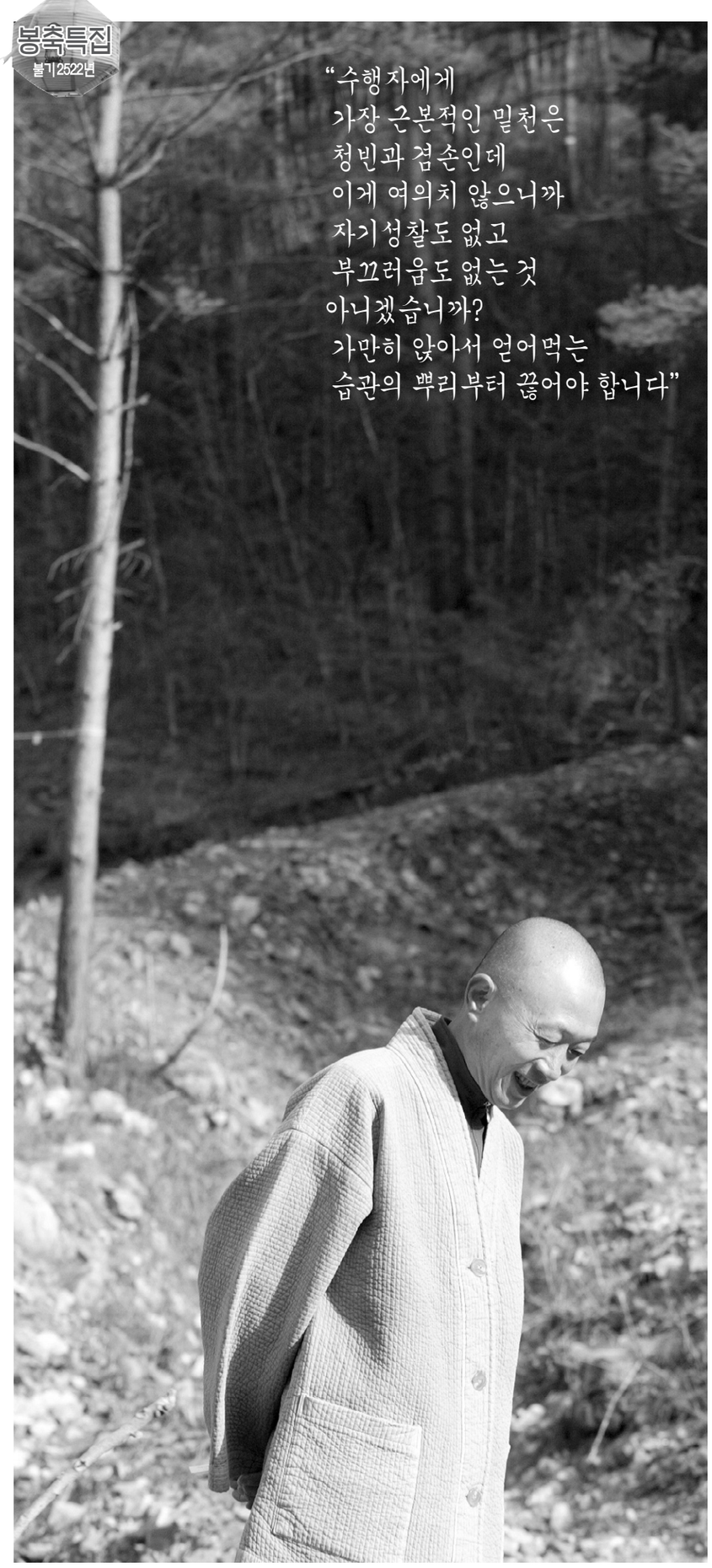








봉축특집 불기2522년



곰자리 토굴…영봉 스님

"앉아서 받아먹는 불교는 그만"

산마다 봄이 찾아왔다. 봄은 울긋불긋한 산비탈의 꽃 잔치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트랙터가 판판하게 다져 놓은 밭이랑에 씨감자를 넣는 농부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봄이 한결 실감난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골짝 마을의 봄 풍경도 씨감자의 촉처럼 애틋하게 돋아나 있었다. 곰자리 토굴(熊座蘭若). 굽잇길을 돌고 돌아 찾아간 토굴은 여느 농가와 다를 것이 없는 단 한 채의 촌집이었다. 큰 산 깊은 골짝에 있는 것도 모자라 앞집의 비닐하우스에 가려진 채였다. 그러나 마당가의 장작더미와 장독대, 반들거리는 마루와 은은한 향내가 수행자의 도량임을 알려주었다.

지붕 얕은 토굴의 주인은 영봉 스님이다. 한때 조계종단과 산악인들에게 짠하게 이름이 났던 스님이다. 토굴은 조용했다. 3칸 집의 가운데가 법당. 부처님께 절을 하고 나오니 오른쪽 밭머리에 앉아 호미질을 하는 스님이 보였다. 두어 뼘 가량의 오가피나무들이 밑둥에서 파릇파릇한 싹들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일어서서 허리를 펴는 스님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했다.

"오가피나무가 참 많네요."

"5년쯤 되었는데 뿌리를 제법 실하게 내렸어요."

"스님이 직접 가꾸시는 겁니까?"

"그럼요. 불자들에게 쌀 한 됫박이라도 거저 얻어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도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재배하신다구요?"

"앉아서 얻어먹는 불교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도들에게 받아먹는데 익숙해져서 불교집단(승단)이 걷잡을 수 없이 물질화되고 세속화 권력화 되고 있잖아요? 시주 무서운 줄 알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외제 고급 승용차타고 골프치고 하는 스님들 이야기가 방송됐죠? 난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 토굴 마당에 구덩이 파고 들어가 묻히고 싶었어요. 그런 방송 한 두 번 나왔느냐고 하겠지만 그런 방송 뒤에 처절하게 자기성찰을 하고 피눈물 나는 참회로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 무참한 현실을 만든 게 누굽니까? 수행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밑천은 청빈과 겸손인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성찰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청빈하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앉아서 얻어먹는 습관의 뿌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격해지고 있었다. 더러 농사짓는 스님도 없지 않은데, 영봉 스님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타락한 불교계의 현실을 잘라내는 '활인검(活人劍)'을 벼리는 것 같았다. 마당으로 걸음을 옮기며 스님의 역설(力說)은 계속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급성장한 경제 덕택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경제의 속사정은 도탄에 빠지기 일보직전이고 물질만 추구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정신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어요. 가치관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한 국난보다 '안쪽 살림(정신)'이 무너지면 더 큰 국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중들을 이끌어야 할 집단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불교집단이야말로 가장 먼저 자각의 새벽을 열어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가 경제에 굴복당하고 종교가 세상 정치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불교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얼렁뚱땅 묻어가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앞장서서 얽혀들고 있는 현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 우리(승단)가 줘야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과 법으로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고르게 보살펴야 합니다."


영봉 스님이 거처하는 곰자리 토굴 전경.

영봉 스님은 오래전 다섯살의 링 린포체로부터 들은 한 마디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스님이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린포체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스님이 그때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수직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게 됐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그것은 바로 부딪침이라는 것을. 우리 불교는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관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방에 앉아서 도를 깨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선방은 부딪치고 또 부딪치며 느낀 어떤 절절함을 정리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 부딪치지 않은 채 학습된 어록 몇 구절로 관념화된 깨달음을 좇는 것은 아무래도 허무한 일일 테니까요."

사뭇 진지하고 힘이 들어간 스님의 이야기 방향을 슬쩍 돌려 보았다.

"장작더미가 꽤 큰데요."

"원래 토굴살이의 밑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장작입니다. 산중에서 긴 겨울을 나는데 장작은 필수니까요. 그래서 토굴을 나갈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 1년 치의 장작을 해 두고 곡식 한 독을 장만해 두는 전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해 둔 것만 축내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작더미가 큼직하네요. 한 3년 치는 되겠는데요?"

"나는 장작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선 1년 치는 내가 쓸 것이고 또 1년 치는 혹시 내가 죽으면 육신을 태울 것이고 또 1년 치는 다음 사람이 쓸 것, 이렇게 3년 치를 확보해 둡니다. 나무를 할 때는 기계톱을 쓰지 않는 것도 철칙입니다. 기계톱을 쓰면 그 엔진소리에 온 산의 나무들이 벌벌 떨거든요. 장작을 쪼개면서 내 번뇌를 타파하고 장작더미를 쌓아 올리면서 내 하심을 쌓고 지게를 질 때마다 내 업을 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토굴살이에서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더니 영봉 스님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행으로 결부시키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대중생활과 독살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수행을 돕는 가요?"

"어느 쪽이다 하는 기준이야 없겠지요. 다만,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생사(四無生死)를 말합니다. 먼저 지(知)무생사는 알음알이의 단계인데, 감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감이 맺히니까요. 그 다음은 체(體)무생사인데 체험과 학습의 단계지요. 감이 감으로 자라나는 동안 비바람과 햇살 등 모든 여건들에 부딪치며 작용되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로 계(契)무생사는 부딪침을 받아들여 융화되는 단계입니다. 다 자란 감이 서리를 맞으며 자신의 안쪽까지

↗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대한불교 조계종 명 봉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 TEL 054)653-1365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흑응산 연 방 사
주지 일봉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4-2464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덕산정사.덕산불교대학
주지 해암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산3-4 TEL 054)652-2601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영 봉 사
신도일동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석탑동 1039 TEL 054)854-1349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지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고 경 사
주지 자광
신도일동
납골당 봉안 영구관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TEL 054)638-8887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 석 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김 용 사
주지 혜창
부주지 정업
사부대중일동
■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10 TEL 054)552-7006/FAX 054)553-5352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산 청 량 사
주지 지현
사부대중일동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39 TEL 054)672-1446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운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 HP 011-9002-8523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재단법인 선학원 관음사
주지 도기
사부대중일동
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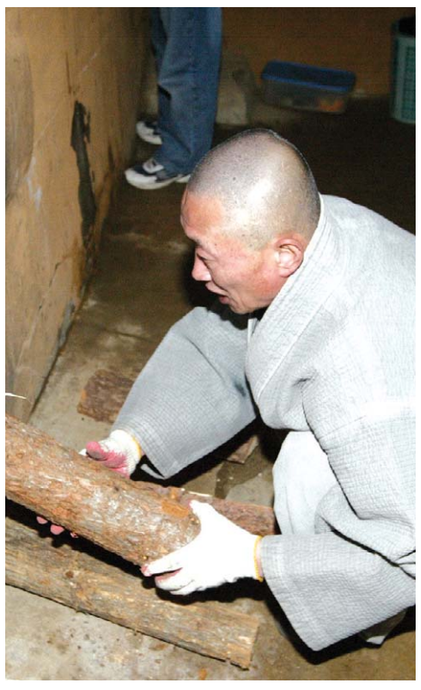
봉축특집 불기2522년



쌀 한 됫박이라도 거저 받아 먹을 수 없어 오가피 농사를 짓는 영봉 스님.

"관념의 굴레 벗고 세상과 부딪쳐야"





익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이 용(用)무생사인데 이는 바로 활용과 수용의 단계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를 사람도 먹고 새들도 쪼아 먹는 단계지요. 대중 속에 있든 토굴에서 독살이를 하든 용무생사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잘 익히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몫입니다."

"스님의 대답이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수행자는 항상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인'이 '완성자'의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불교계는 과정의 소중함보다 완성자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것이고 관념놀이에 빠져 진리의 고갱이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의 불교계를 향해 '서리도 맞지 않은 감이 홍시라고 한다면 그 떫은 맛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원로 중진들은 불교 현실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부분적인 이야기겠지만 선방 선객들이 공부는 밀쳐두고 해제비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미 선도 관념놀이에 깊이 병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푸른 잎이 돋지 않은 앞산에 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마당가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 영봉 스님이 선방이란 단어를 꺼내자 봉암사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봉암사가 조계종특별선원으로 지정될 때 스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요."

"아, 그거 참 오래 전의 이야기에요.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사이에 있는 희양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 나는 봉암사 선방에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봉암사마저 관광지가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원천 스님 원행 스님과 최후의 수단으로 할복을 할 각오를 다지고 반대에 나섰지요. 원천 스님은 해인사 출신이고 원행 스님은 통도사 출신 그리고 나는 송광사 출신이니 3보 사찰의 선객이 뭉쳐 봉암사를 지키자고 결의했던 겁니다. 정부기관과 총무원 그리고 종단의 수좌들을 나눠 맡은 다음 국립공원 지정 반대와 봉암사 특별선원 지정을 추진했어요. 당시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봉암사마저 지키지 못하면 한국불교의 가풍을 어디서 찾느냐"며 의지를 수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결국 앉아서 받아먹는 불교에서 자급자족하며 옹골차게 정진하는 불교로 바꿔보자는 취지였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영봉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에 불전국역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주축이었던 것도 기억이 났다.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경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종단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데서 "더 이상 기대조차 못하게 하는 비참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당시 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산악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해종 스님이었다. 산악인들 사이에 스님은 '전설'이었다. 전문적으로 산악등정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스님이 1990년 이후 안나푸르나 산군을 위시한 히말라야의 큰 봉우리들을 차례로 등정했기 때문이다. 원정대도 꾸리지 않은 단독으로. 요즘도 해발 4000미터에 이르는 네팔의 솔로콤부 지역 자록콤파에 있는 토굴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스님에게 히말라야는 아주 특별한 산일 수밖에 없다.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왜 히말라야를 오를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스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음 히말라야를 오르고 싶었던 마음은 부처님이 생을 거듭하며 수행하던 산이란 단순한 이유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난 히말라야에서 몇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야말로 생사를 둘 아니게 체험하는 확실한 선방이라는 생각이었지요. 해발 4000m 이상을 오르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사방은 눈 덮인 산뿐이니 순간적으로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가게 되지요. 편한 곳에서 말로만 '생사일여'를 떠드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새록새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카필라국의 위치는 길이 3000km에 이르는 히말라야의 중앙지점입니다. 안나푸르나 산봉우리들을 오른 것(1990년)도 그 까닭이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부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관념 속에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깨닫고 길에서 진리를 설하다가 길에서 육신을 버린 부처님, 그 길의 의미를 생각하고 생각하다보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히말라야는 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도량입니다. 사람들은 등산, 등정, 정복 등의 표현을 하는데 그것 보다는 입산(入山)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산은 6바라밀을 아주 절절하게 설법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셸파나 포터, 키친보이 등)과 무엇이든 공평하게 나누는 보시의 정신이 없으면 팀웍이 깨지고 맙니다.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에 절제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지계입니다. 또 인욕의 덕목은 산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인욕을 버리면 곧바로 죽음이니까요. 끝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산행은 곧 정진의 도리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동(動)은 절대 정(定)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하니 곧 선정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은 지식을 초월한 자기의지의 결집으로 생존의 지혜를 길러 줍니다. 나는 산에서야말로 6바라밀의 가르침과 그 도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배웠고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히말라야는 생사를 둘 아니게 체험하는 확실한 선방이에요. 해발 4000여m를 오르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가게 되지요."

"네팔 자록콤파에 있는 스님의 토굴에 한국의 스님들이 가서 정진할 수 없나요?"

"토굴이야 늘 열려 있지만, 원하는 분이 없지요. 해발 4000m 지점에 오르면 고소증이 극심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는 참선이다 뭐다 하는 격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와 가짜를 다 꺼내볼 수 있는 곳이지요. 선방에서는 구참 대접을 받는 몇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모두 적응하지 못하더군요. 저도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오래 고생한 곳이지만…. 아무튼 나는 4000m를 견디지 못하는 선객들에게 '그간 헛공부 했구나'하고 한 마디 했어요. 사실 국내에서 선방 이력을 '계급장'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보면 꼭 히말라야의 '큰 선방'을 체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스님은 부엌에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화장실 안쪽 벽에 도배를 했던데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깨끗해야 할 곳입니다. 인간은 오물을 생산하고 버릴 줄만 알았지 관리할 줄 모르거든요. 이곳 화장실에는 휴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배설물만 받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나에게는 그곳이 산신각이라니까요. 하하하."

영봉 스님은 토굴을 한 해 한 번만 개방한다. 문은 늘 열려 있지만 공식 법회는 부처님오신날에만 연다. 토굴이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신도는 20여명이지만 등은 200여개가 걸린다. 스님이 모은 세계 각국의 등이 형형색색 토굴을 장엄한다. '등값'은 받지 않는다. 성의껏 공양 올리게 한다.

"더 많은 스님들이 '히말라야 선방'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뒀습니다만, 그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공양물이 넘쳐 나는 선방이 아니라 생사의 경계조차 희미한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침묵 앞에 앉고자 재출가 재발심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네팔에서 현지인 셸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입산하는 사람과 현지인들은 소통이 잘 될수록 좋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굴의 봄밤은 정적 속에 묻혔다. 느닷없이 찾아 온 나그네의 질문도 이제 바닥이 났다. "내 말이 격하다고 다듬을 필요는 없다"는 영봉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수첩을 든 기자를 부끄럽게 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도망치듯 첩첩산중 굽잇길 두터운 어둠을 헤치며 하산했다.

강릉/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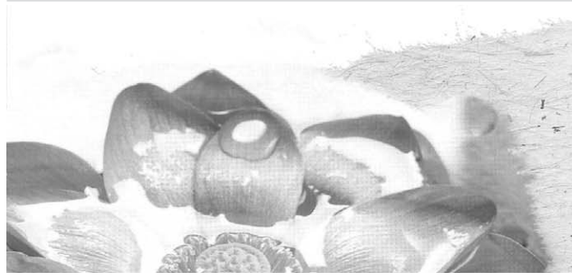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약 왕 사
주지 정 명
사부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1번지 불암산 약왕사
TEL 054)371-6665/FAX 054)371-6675

마이산탑사
주지 이왕선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대한불교조계종
마니산 정수사
신도일동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
TEL 032)937-3611

불교교양대학
대각정사
주지 해 각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835-3
TEL 02)2699-6384

길상해운 관음도량(불사중)
제천 성불사
주지 서광(청산)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686번지 호반길
TEL 043)644-4366 / H·P 011-485-4080
청풍호, 호숫가 대덕산 성불사에서는
극락전을 불사중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 금강율원
학장 율주 묘 엄
대중일동
거사림회 · 관음회 · 승만회 · 청년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TEL 031)256-4127 / FAX 031)254-3371

大韓佛教 曹溪宗 第四教區
雉岳山 龜龍寺
住持 慈光(遠行)
제1기 原州佛教大學院(2년)
제8기 原州佛教大學(1년)
상설 Temple Stay 운용
■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 / FAX 033)732-1211
E-mail : guryong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 관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진관무위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백화사
주지 일 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8-2
TEL 02)381-9103~4 / FAX 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정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각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조계종
탑골승방 미타사
주지 원 호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1
TEL 02)923-0492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남사
회주 원공 정무
원로위원
매월 첫째주 일요일 중심회 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봉축행사기간 : 4월 20일 ~ 5월 12일
대중일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16-2
TEL 031)755-0329, 721-0329
FAX 031)722-3761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곳
봉화산 법만사
사부대중일동
■ TEL 02)433-6591, 6592

염불선 수행 정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성원사
행수 여강 주경 주지 현공 정현
사부대중일동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www.sungwonsa.org
■ 포교당 · 유치원 : 강원 강릉시 회산동 4-5
성정사 (포교당) 033)642-0142/성원유치원 033)642-0143
■ 정중선원(염불 참선도량) :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4-5
TEL 02)3288-3386 www.sungwo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주지 동 조
문보덕화
신도회장 여옥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2-2번지
TEL 063)225-9867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보타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보타사
TEL 02)928-2074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 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처장 임선학 기획실장 문종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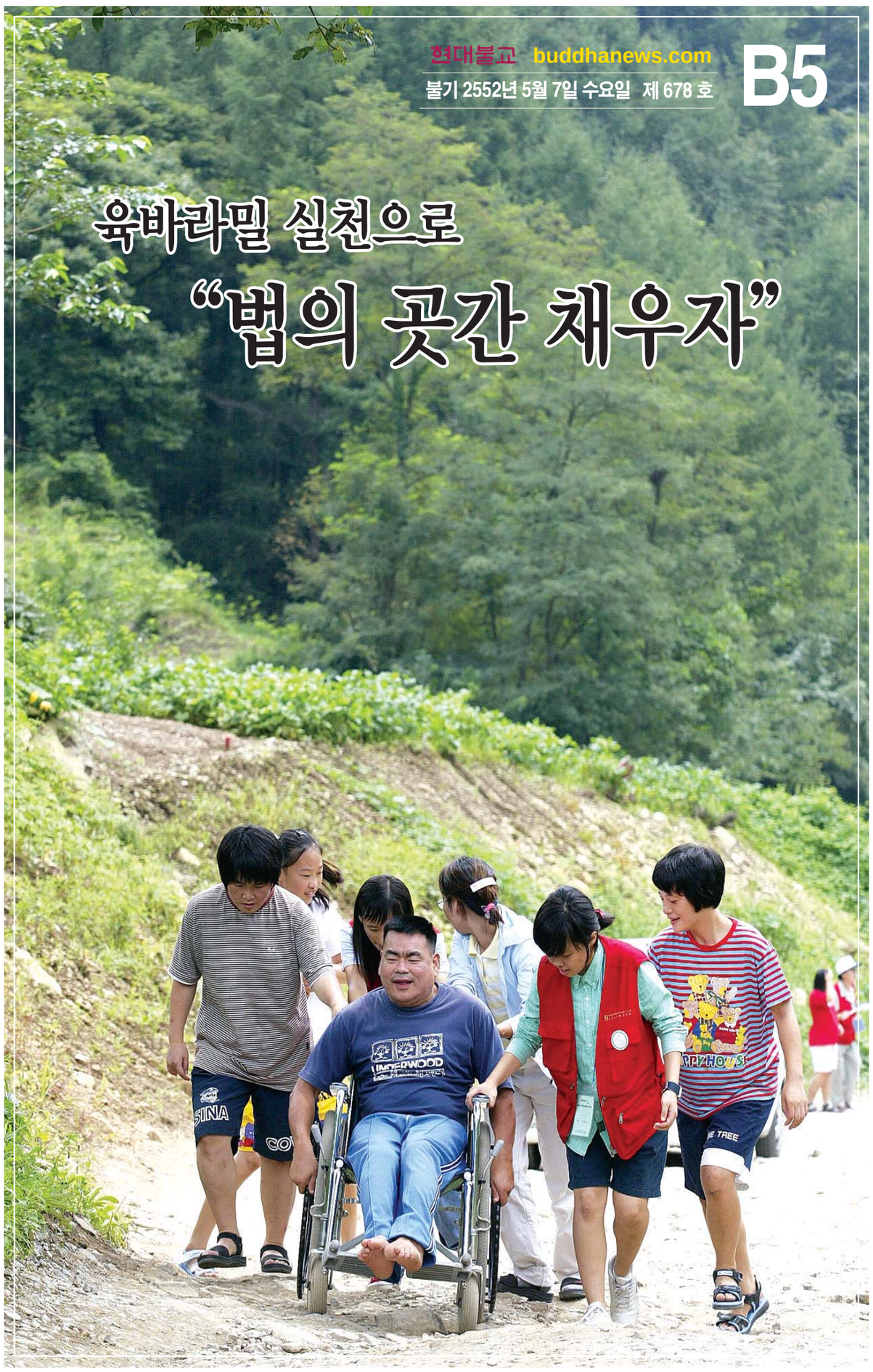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 :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지 장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8
홈페이지 : www.jeungsimsa.org

재단법인선학원
인과선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운정사
주지 청 운
부설 광운불교대학
광운사 033)433-91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부처님 오신 날



육바라밀 실천으로 "법의 곳간 채우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세상이 아무리 '고(苦)'로 가득하다 해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행복한 것 같다' 싶다가도 또 가끔은 '행복한 삶'이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우리 주위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부딪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커지면 사람들은 점점 공허해진다.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의식주를 비롯한 물질의 충족은 기본이다. 삶의 기본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는 '생존' 이상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질과 명예로 채워진 삶이 행복한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종종 사회지도층이나 부자들도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신의 생을 마감하곤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민 1605명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젊음 ▲상대적으로 큰 만족감 ▲가족과 여가 중시 ▲높은 교육 수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종교행사에 자주 참석(종교의 종류는 무관) 등이다. 결혼여부나 절대적 소득수준은 '행복하다'는 의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 결과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재확인할 수 있다. 가족,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이들에 대한 가치가 발견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 말이다. 이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의 중요성이다. 종교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불교를 통해 무엇을 보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불자들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 행복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길로 나가는 '육바라밀' 즉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지혜) 바라밀을 닦음으로서 피안, 즉 행복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대승불교경전인 <대품반야경>에서는 '만약 보살 마하살이 육바라밀을 닦는다면 모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육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이루 다함이 없는 법의 곳간'이라고도 한다. 육바라밀은 불자가 불자답게 하는 기본 행(行)이면서도 최고의 수행방법인 셈이다.

중생은 탐(貪, 탐욕) · 진(瞋, 성냄) · 치(癡, 어리석음) 삼독(三毒)에 빠져 항상 괴로움에 시달린다. 육바라밀은 이 삼독을 걷어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궁극의 길이다.

그런데 육바라밀은 '혼자'가 아닌 '세상과 함께 하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개인이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불자다운 삶을 이뤄나갈 때 내가 속한 세상도 편안해지고 이 개인과 세상의 선(禪)적 연결구조를 통해 결국 정토(淨土)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결국 피안은 다른 어떤 만들어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과 유기적으로 화합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닐까. 육바라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춘원 이광수가 시 '육바라밀'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지금, 춘원의 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육바라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김강진 기자**

육바라밀 /춘원 이광수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布施)'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持戒)'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忍辱)'을 배웠노라.
자나 깨나 쉴 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精進)'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禪定)'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般若)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나투신 부처님이시라고.

글 싣는 순서
B6 보시·지계의 삶으로 행복해요
B7 인욕·정진의 삶으로 행복해요
B9 선정·지혜의 삶으로 행복해요



봉축특집 불기2522년

보시의 삶으로 행복해요

■이태화 민다무역 대표·한울촌 촌장

"재물은 유익한 곳에 써야"

"뭘 바라고 하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에 가서 등 달고 기왓장에 이름 쓰면 업장소멸 됩니까? 조건이 붙는 '보시'는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전문가(?) 이태화 (주)민다무역 대표(54)가 설파하는 보시의 의미다.

민다무역 회의실에서 만난 이 대표는 정열적인 카리스마가 넘쳐흘렀다. "부처님 제자로서 보시는 곧 보살행이기에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보시철학이다.

"보시도 처음 마음냈을 때 행동에 옮겨야합니다. 생각을 오래하면 욕심이 자라나서 보살심을 녹여버립니다. 항상 '공수래 공수거'를 떠올리죠."

재력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불철주야 돈 벌기에 골몰한다. 요즘 이태화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에 눈을 돌렸다. 중산층을 겨냥한 실버타운을 짓고 그 수익을 돌려 서민을 위한 무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한 때 철인 스님(안일사 주지)을 은사로 출가생활을 하기도 했던 이 대표의 법명은 정묵(定默), 호는 무난(無難)이다. 그의 호를 딴 무난장학회도 운영한다.

고3 말이던 1972년 10월경 불교서적에 심취해 출가를 결심

무료급식 · 장학금 등 보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 노력

했다. 양산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범어사 ·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했다. 봉암사에서 두 철 안거에 들기도 했다.

군 제대 후 절로 돌아가지 않고 경남대 무역학과에 진학해 수출기업에 입사했다. 1991년 피혁의류수출업체인 (주)민다무역을 창업했다. 첫 해 90만불의 수입을 올린 이래 수출에 박차를 가해 수출 1500만불을 달성했다. 그 공로로 2007년 3월 상공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보다 사회진출이 늦어 주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던 그가 보시에 눈을 돌린 계기는 IMF를 겪으면서. 이 대표는 "첫 사옥을 샀던 1998년, 넘쳐나는 실직자와 불우이웃을 보며 '기업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다. 인근 면남초등학교에 결식아동 6명을 지원한 것이 보시행의 첫걸음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면목7동에 있던 사옥 옥상에서 매주 토요일 점심 무료급식도 시작했다. 50여명 모이던 무료급식은 사옥을 군자동으로 옮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매주 200~300명이 찾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모교인 경남대에 매년 4명 장학금 지급, 장안초등학교 결식아동 6명 지원, 광진노인복지관 · 자양복지관 광진푸드마켓 · 인덕원 · 군자동 거주 차상위빈곤계층 지원, 한국노인의 전화 및 연화원 후원, 광진구청 불자회 후원 등 끊임없이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결산해보니 이런 식으로 사회에 환원한 돈이 1억6300만원에 달했다.

이 대표의 명함에는 (주)민다무역 대표 외에 한울촌 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있다. "2001년 한울촌 법인을 설립한 후 시작한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이 난관에 부딪쳐 아이디어도 필요했고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기술을 배울 생각에 2002년 한림대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 대표는 "그곳에서 원우 2명이 노인전문요양시설 너싱홈(nursing home)을 제안해 서울 광진구 능동에 2004년 10월, 10억원을 들여 한울촌 너싱홈을 개원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너싱홈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태여서 보건복지부에서 두세 차례 한울촌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옥도 리모델링을 거쳐 너싱홈으로 꾸밀 계획이다.

2003년 불교복지이론을 배우고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커리큘럼을 대해보니 불교사회복지 이론이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교학부장 김호성 교수와 일본불교대 사회복지학부 박광준 교수를 만나 불교사회복지 이론 정립의 시급함을 토론했다. 마음이 통한 이들은 의기



투합해 발원했다. 불교사회복지 개론서를 만들어보자고.

2007년 1월 이들의 '결사'는 이루어졌고, 이 대표는 박광준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 첫 결실이 올 2월 13일 열린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경 2차 심포지엄을 거쳐 내년 말 <불교사회복지 개론>이 발간된다.

"각 사찰마다 특히 교구본사와 A급 말사는 복지시설을 하나 이상 자체 운영해야한다"는 이 대표는 "시줏돈을 회향하는 방법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최고의 지혜이자 인재들이 일할 터전을 공급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태화 대표에게 왜 보시를 하냐고 물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저라고 깨달음에 대한 욕심 없겠어요. 다만 지금 처지에 수행에 전념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상구보리는 뒤로 미루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하화중생으로 눈을 돌린 것이지요. 재물은 잠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 가지고 있는 동안 잘 관리해 유익하게 써야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후진 양성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국불교가 행복해진다"고.

布施

강지연 기자

지계의 삶으로 행복해요

■윤성희 조계사 문화센터 요가강사

"계율은 행복한 삶의 열쇠"

"저의 불자상은 지계바라밀을 통한 정념(正念)입니다. 마음챙김 속에서 청정함에 머물고자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 본다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지계바라밀이란 청정 무결의 꽃을 가꾸며 살아가는 불자 정인(淨仁) 윤성희(47) 보살과 함께 라일락 향기를 따라 안동별궁 돌담길을 걷는다. 도착한 곳은 찻집 문향재(聞香齋), '차 향기를 듣는 집'이란다. 그녀의 삶을 닮은 따뜻한 오미자 차 한 잔에 마음이 평안하다. 지계바라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바이의 이야기는 자못 향기롭다.

새벽5시. 고3 아들이 깨어나기 전 정인 보살은 거실에 마련된 불단에 청정수를 올린다. <천수경>에 이어 능엄주를 외고, 108배와 참회문을 염불한다. 입시발원 기도문도 잊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이 집안에 가득 퍼진다. 모든 예불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뤄진다.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시간. 밤새 속이 비워진 상태에서 가뿐히 아침 요가를 한다.



'마음 편히 머물고 쉬는 우리 집이 바로 법당이지요, 가족이란 이름의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불자 가족의 상'이라 믿는 그녀이다. 청정수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날 아침 가족의 행복한 밥상이 된다.

정인 보살은 남편과 대학생 딸, 고3 아들과 함께 사는 주부다. 이 시대의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며느리이며 딸이다.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는다. 그녀는 현재 조계사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이러한 그녀의 인생은 법명 '정인'을 통해 하나로 통류(通流)한다. 맑을 정(淨), 어질 인(仁). 남양주 봉인사 지산 스님께 받았다. 이미 상광월(常光月)이란 법명을 지녔던 그녀에게 정인이란 법명은 요가적 삶을 예고했다. 붓다의 지혜와 자비를 양 날개로 삼아 지계바라밀을 따르는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정인 보살은 인생이라는 저마다의 숲을 행복하게 가꿔가는 비결이 지계바라밀에 있다고 말한다. 아쉬탕가 요가(Astanga-Yoga)에서는 <요가수트라>를 여덟 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 1단계가 '야마(Yama)'라 부르는 금계(禁戒)다. 그 내용은 인류의 공통된 보편적 윤리로 탐욕과 욕망, 집착 등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과 무지를 변화시켜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다. 요가의 다섯 가지 금계란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음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이다. 여기에 불교의 보살 계율인 '술을 마시지 말라'를 더한 총 여섯 가지 금계를 지닌 삶을 살아간다.

불살생(Ahimsa, 不殺生)은 비폭력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어떤 것에든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불망어(Satya, 不妄語)는 정직이다. 바른 품성을 기르고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다.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팔정도(八正道)에 나오는 정어(正語)가 지향하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 불투도(Asteya, 不偸盜)는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과분한 찬사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불사음(Brahmacharya, 不邪淫)은 금욕이다. 완전한 금욕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결하게 하려는 마음자세이다. 정상적인 관계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승화된다.

불살생 등 6가지 금계 실천
요가명상으로 心身정화 노력

불탐(Aparigraha, 不貪)은 무소유다. 반드시 필요한 것 이외의 소유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점차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한다.

불음주(不飮酒)는 지혜이다. 육식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수행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지혜는 연기를 환멸하는 과정의 보물지도와 같다.

정인 보살은 15년의 신행생활 속에서 기도의 처음과 끝에 "마음을 맑혀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변함없는 화두를 지니고 있다. 삶의 지침이 된 지계바라밀이 요가의 본질인 명상과 만난 것. 때문에 요가 명상은 불교의 사마타(止, Samatha) 그리고 위빠사나(觀,Vipassana)와 다르지 않다.

그녀는 단순히 요가 동작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계율을 지니면서 요가의 본뜻을 실천한다. 마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몸이기에 계율로써 마음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자기의 중심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에 충실해야 하는 해답이 지계바라밀 안에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다면 지난 과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 지금 현재를 중요시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인 보살은 그러한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힘이 바로 지계바라밀이라고 강조한다.

持戒

가연숙 기자

5월에 있는 木曜강좌

"선문촬요 (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참선! 모르고 하면 어리석음만 짓습니다.

달마 祖師께서 "禪門"을 열어주는 길 "선문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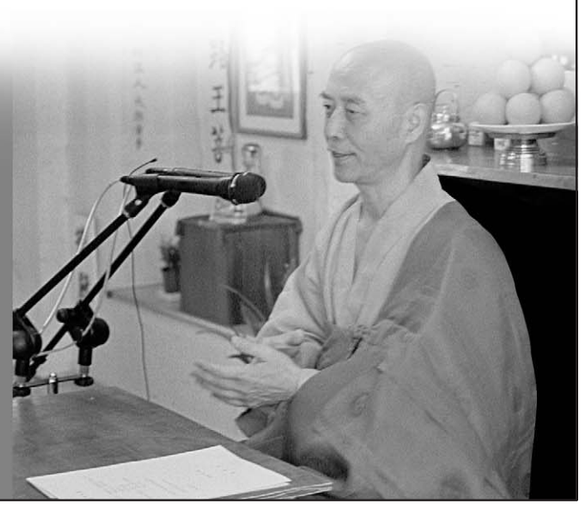
그냥 널려져 있는 불교는 약처방은 있으나
의사 없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쓰면 오히려 불교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은 스트레스로 묶여 있습니다.
禪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긴장을 풀게 합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밝아집니다.
묶여있는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은
바로 그가 오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문촬요"는 서산, 경허스님 등 모든 종사가 의지했던 서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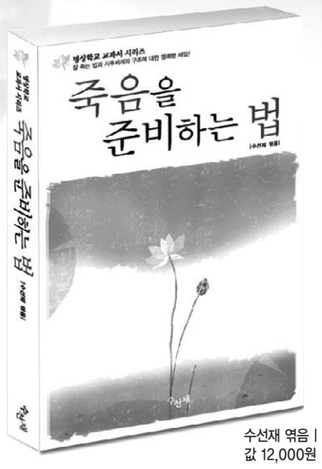


서울 六祖寺 현웅스님께서 직강설 합니다.

■ 일 시 : 시작 - 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회향 - 08년 9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교재 주문 가능)
■ 동 참 비 : 4-5개월간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예금주 육조사)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在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음.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죽음을 준비하는 법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아무말 없이 빙그레 웃고 있던,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문의전화 02)722-6653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목적 있게 사는 법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봉축특집 불기2522년

인욕의 삶으로 행복해요

■ 익산 대원경·덕산거사 부부

"흘린 땀방울만큼 下心 커져"

"절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아프고 힘들지만 참으면 육신을 조복 받고 한마음으로 3000배, 100만배 절할 수 있죠."

익산 사자암 삼천배 정진회를 이끌며 전북 지역 포교불사의 동량인 대원경 보살(심명숙 · 51)은 절수행 전문가다. 개신교 집안에서 성장해 시어머니 권유로 처음 사찰을 찾아 절했을 때는 "벼락 맞을까봐 무서웠다"는 그녀가 지금은 어떻게 절수행 전문가가 됐을까?

대원경 보살은 "부처님께 약속한 대로,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웃는다. 보살의 절수행은 1996년 임실 상의암 동효 스님을 만나서 시작됐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0만배 정진하던 동효 스님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대원경 보살은 스님에게 절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매일 500배부터 시작했다. 보살은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다 보니 500배가 몸에 익었다. 스님이 1000배로 올리라 해서 매일 하다 보니 1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어느새 하루 1만배는 거뜬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실상사 일초 스님을 만나 <화엄경> 공부에 몰입했던 그녀

인고의 세월 견디며 절수행

"고비 넘기니 하루하루 행복"

지만 경전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화엄경> 공부가 너무 어려워 못하겠다"는 보살에게, 일초 스님은 "그거 안할라면 100만배 해라"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은 예전 1000배씩 100일 해본 경험에 100만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 1000배씩 시작했다. 2주 후 보살에게 진도를 물은 스님은 매일 2000배로 올렸고, 1달 후부터는 매일 3000배씩 하게끔 했다. 매일 3000배에서 4000배씩 하게되니 몸이 너무 고되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보살이 일초 스님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 보살에게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의 구절을 들려줬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 없고, 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다(배슬(拜膝)이 여빙(如氷)이라도 무연화심(無戀火心)하며, 아장(餓腸)이 여절(如切)이라도 무구식염(無求食念)이니라)"

대원경 보살은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설명을 듣고 다시 마음을 내 4000배로 올렸다. 그로부터 보름 후 스님은 매일 5000배를 하라고 했다. 힘들어 못하겠다고 할 때마다 <초발심자경문> 구절은 되풀이됐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그녀 스스로 생각해도 우직했다. 그런 그녀에게 스님은 "멍청해서 계산이 없어야 수행한다"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은 절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보살은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울었다. 그러다 참회의 눈물이 흘렀고, 결국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결국 하루에 1만배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의 절수행에는 다른 신도들의 수군거림부터 남편의 성화 등 마장도 많았다. 하지만 절수행이 무르익을수록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됐다. 자신을 낮추며 절할수록 하심도 커졌다. 보살은 마장으로 다가온 이들에게도 감사의 3배를 올렸다.

불보살 가피도 따랐다. 꿈에 두 스님이 나타나 몸에서 썩은 피를 빼낸 뒤 보살의 몸은 건강해졌다. 또 몸이 고되 밤이면 끙끙대는 아내가 안타까워 "힘들게 절은 왜 그리 많이 하냐"며 핀잔줬던 덕산 거사의 꿈에는 사천왕이 나타났다. "보살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냐며 사천왕이 호통을 치는데 정신이 번쩍났다"는 거사는 그 날 이후 보살을 도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했다. 수행도 열심히 했다. 거사는 대원경 보살을 "선배님"이라 부른다. "선배님을 따라 절을 하던 어느 때 눈물이 흐르더니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선배님에게 3배를 올린 적도 있었다"는 덕산 거사(황금용 · 58)의 주특기는 <관음경>(<묘법연화경> 중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처음부터 염불하는 것이 좋았다는 거사는 "관세음보살을 닮겠다"는 원을 세우고 <관음경> 독송을 시작하게 됐단다. 아무 때나 독송



을 한다는 거사를 길 가던 사람은 비웃기도 했다. "당신은 나와 지나칠 인연인데 나는 <관음경>을 독송하고, 당신은 나를 웃으며 지나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덕산 거사.

거사는 "수행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처음 한입은 입이 얼얼할 정도로 차지만 익숙해지면 단 맛이 느껴진다는 것과 같다. 인욕으로 수행의 고비를 넘기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 말했다.

함께 수행하니 부부가 나누는 대화는 모두가 법담이고, 부부가 같은 꿈을 꾸는 일도 잦았다. 집안일은 절로 풀렸다.

"부처님께 한다고 했으면 꼭 해야 한다. 부처님 법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 마음 낸 것 지키다 보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대원경 보살, 그리고 "선배님을 도울 뿐"이라는 덕산 거사.

2007년 9월 사자암 결사를 마친 대원경 보살의 소문은 전주까지 퍼져 이제는 송광사에서 수행결사를 이끄는 중이다. 하나, 둘 조심스럽게 절수행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50여명이 넘었다. 부부가 흘린 땀방울과 인고의 세월보다 대원경 보살과 덕산 거사의 행복은 한없이 커보인다.

조동섭 기자

忍辱

정진의 삶으로 행복해요

■ 아미타 정근하는 박종갑·박상숙씨

"도반이 수행에 큰 힘이죠"

무엇이든 꾸준하게 해 나가기가 힘들다. 일껏 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은 경계가 금세 닥쳐오기 때문이다. '작심 3일'이라는 말도 그만큼 좋은 습을 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

그런데 매일 아침 염불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박종갑(64 · 법명 미타행) · 박상숙(65 · 법명 수월행)씨가 그 주인공이다. 염불수행 도반으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해 가며 바라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精進)'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만난 장소는 박종갑씨가 운영하는 한복집이었다. 박씨는 동네에서 40년간 한복집을 지켜왔다. 일을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놓지 않는 박씨. 한 자리에서 삶을 가꿔온 그의 정성이 담뿍 묻어나는 가게 자리 역시 박씨 삶 속의 정진 현장인 셈이다.

옆 동네에서 38년간 세탁소를 운영했다는 박상숙씨는 지금은 집안 조카에게 일을 물려준 상태다. 세탁소 일을 접고는 얼



마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병간호에 나섰다. 그런 중에도 박상숙씨는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계속해왔다.

이들의 하루는 오전 4시경 시작된다. 일어나면 먼저 깨끗이 목욕재계 하고 각자의 집에 마련한 기도실에 들어간다.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천수경>을 봉독한다. 그것이 끝나면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을 읽는다. 그리고 '발원문'을 통해 그날 하루 동안의 원을 세우고 '나무아미타불' 정근에 들어간다. 이들의 정근은 108염주가 1000주가 될 때까지 계속 된다. 이런 의례를 모두 거치면 꼬박 2시간이 걸린다.

이런 아침이 두 사람에게는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다. 박상숙씨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되어서 아침에 그렇게 정진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도반이 된 것은 10년 전, 동산불교대학에 함께 입학하면서 부터였다. 이천 영원사(주지 성원)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갑씨가 먼저 동산불교대학에 등록한 후 친구 박상숙씨를 '끌고' 들어갔단다. 박상숙씨는 "이 도반이 날 끌고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아직까지 두고두고 인사다.

이들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불교기본교리에 대해 배우고부터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회상한다. 배움 없이 신행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 때부터야 '정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며 말이다.

이들은 동산불교대학에 다니기 전에도 신행에는 적극적이었다. 박종갑씨는 매월 초하루에 3000배 철야정진을 해왔었다고 한다. 박상숙씨 역시 불자 집안에서 사찰 찾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독실한 불자였다. 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2%'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었다. 이들은 동산불교대학을 통해 교리와 사상에 대해 접함은 물론 염불만일회에 가입, 염불정진에 대한 원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절인연을 만났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신행 활동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됐다.

정진을 계속 하다 보니 이들이 정진을 하며 세우는 원도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웃'과 '사회'로 점차 넓어져갔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을 세우면 그 가피가 훨씬 빠르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박종갑씨)

이들은 현재 이천지역 동산불교대학 졸업자 20여명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염불봉사(장례봉사)와 군법당 지원, 이천

10년을 함께 매일 염불정진

이웃·사회 위한 願도 함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후원, 어린이법회 후원 등을 이끌고 있다. 지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 이들이 현재 매일 같이 세우는 원이기 때문이다.

염불봉사의 경우, 박종갑씨가 염을 하고 박상숙씨는 요령을 흔들며 상가(喪家)를 함께 지켜준다. 특히 돈이 없어 영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역 사회에 오랜 기반이 있다 보니 이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으레 이들을 찾는다.

"이 봉사를 하고 싶어 동산불교대학에서 불교장례의식도 배웠어요. 어느 날 부턴가, 봉사를 하겠다고 발원했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박상숙씨)

염불봉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불교 유치원 하나 없는 상황이 아쉬워 이에 대한 발원을 하다 보니 인근 불교회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게 됐단다. 개인의 수행력이 결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인드라망 처럼 연결돼 있구나 싶다.

이들은 스스로를 '그냥 시골 할머니'라 말한다. 맞다. 겉모습은 그저 정다운 우리 이웃이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법을 만났다는 기쁨, 사회 속에서 하나씩 이뤄져가는 원을 세우는 보람 등이 이미 꽉 차 있다. 이웃 중 누군가 이들처럼 사회를 위해 마음을 내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같은 불자로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강진 기자

精進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신도일동
불교 교양대학, 교양대학원 운영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천봉산 흥복사
주지 선곡 철형
사부대중일동
■ 경북 상주시 만산동 113번지 TEL 054)534-5633/5634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한천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TEL 054)652-6911

대한불교 조계종
월명산 동국사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 462-5366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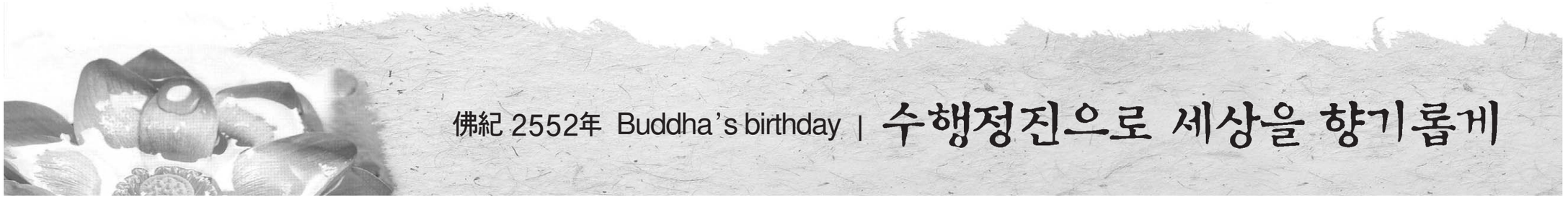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사
주지 종현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69번지 TEL 063)471-0198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지장기도 도량 수양산 벽종사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449 TEL 054)281-1517/1527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참선마을 금강선원
주지 초중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950-3번지 TEL 055)931-9590 홈페이지 : http://www.ggzen.or.kr/

대한불교 조계종
월명산 관음사
주지 재곤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TEL 063)471-0198

한국불교 태고종
오성산 성흥사
주지 송월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번지 TEL 063)453-0050 홈페이지 : http://sungheungsa.com 인터넷 카페 : 네이버 군산 성흥사



독성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 성 암**

회주 **수봉 세민**
주지 **만 월 현 종**

사부대중일동

진실한 기도가
알고싶거나 해보고 싶은분
[매주 토요일 철야독성기도]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TEL 02)988-9300,1996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범 음 대 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인 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1번지
TEL 02)392-3239

(사)대한불교선각종

종 정 **영담 정업 대종사**
총무원장 **석정암**

전국 각 교구 본사 종도일동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번지 선각총림 옴천사
종무소 : TEL 061)433-2233
FAX 061)433-2425
H·P 010-4628-8325

지혜와 광명의 성지 적멸보궁
사 자 산 법 흥 사

주 지 **도 완**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번지
TEL 033)374-9177~8
FAX 033)374-9176

대한불교조계종
천 자 암

조 실 **활 안**
신도회장 **여옥란**
문보덕화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상리
TEL 061)754-3708
H·P 011-657-3785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 지 **정 호**

신도회
사부대중일동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TEL 02)379-299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휴 휴 암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정진도량

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대한불교조계종
아 차 산 영 화 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外
사부대중 일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 지 **무 공**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2호
TEL 02)904-0016,0081

대한불교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 지 **박보산**

신도일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전화 032)763-1237

부처님 오신날
(주)VIP여행사

대 표 **이학인**

불교성지 사찰순례 전문여행사

-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북경
- 지장도량 : 구화산+황산+상해+항주+소주
- 관음도량 : 보타산, 낙가산
-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나라 : 미얀마, 양곤
- 영혼의 도시 : 티벳일주

경남 진주시 신안동 8-10
신안동 055)743-5001
E마트 055)741-9999

在日本韓民族
佛教徒總聯合會

總 裁 **釋泰然**
最高顧問 **崔德山**

顧 問 **釋圓然**
會 長 **金光德**
副 會 長 **成慧光**
宗 務 長 **尹禪弘**
總務部長 **金無識**
敎務部長 **吳東浩**
財務部長 **鄭體相**
執行理事 **釋道子**
執行理事 **釋正道**
執行理事 **釋淸剛**

日本 大阪市 東成區 神路 3-17-8寶嚴寺內
電話 +81-6-6971-4216
FAX +81-6-6971-4211
E-mail : kjbulgyo@zazen.or.jp

公益法人 **大韓佛敎 華嚴宗**
大本山 **藥 師 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嚴僧伽獎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敎華嚴宗獎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TEL 02)730-0798~9 / FAX 722-3205

봉축특집 불기2522년

선정의 삶으로 행복해요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일상생활 禪 아닌 것 없어"

"일상생활에 선(禪) 아니고 도(道) 아닌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에 집착하지만 깨달으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순간이 바로 도달해야할 과정이고 목적지더군요."

"마음을 쉬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선정입니다. '무수지수(無修之修: 닦음 없는 닦음)'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돈오무수(頓悟無修: 몰록 깨쳐 닦음이 있을 자리가 없음)'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52 · 법명 如山) 교수,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광우병 치료법을 연구중인 전문가로 TV 등에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우 교수가 서울대 교수불자모임인 불이회(不二會) 회원이며, 불교적 생명윤리에 대한 명철한 식견으로 <생명과학과 선>을 저술했고, 그 바탕에는 치열한 구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어려서 신촌 봉원사 인근에 살며 자연히 불교를 접했던 우 교수는 서울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불교반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 우희종 교수가 나름대로 내렸던 답은 "세상에 빚을 갚기 위해 산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택해 공부했던 것도 과학이면 주위에 무엇인가를 해줄

마음 쉬는 것 수행이자 선정
'無' 자 화두 들고 '나'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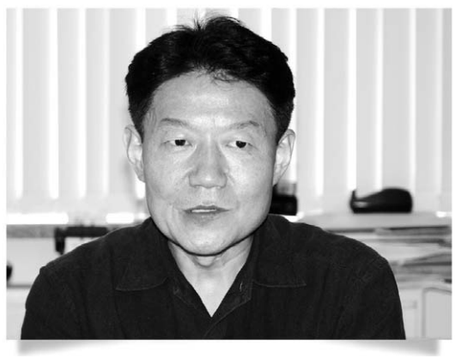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당시 지도법사였던 무진장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그였지만, 그를 온전한 불자가 되게 한 것은 삶의 시련이었다.

미국생활에 익숙했던 아내의 귀국반대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우 희종 교수는 심한 충격에 빠졌다.

우 교수는 "교과서적이고 합리적 ·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내게 이혼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지 않다는 결론까지 도달했지만 삶의 기준에 대한 회의를 지울 수 없었다. 혼란스러움 속에 '나'를 알고 싶어 진제 · 송담 등 선지식을 만났다"고 말했다. 우 교수가 전남 송광사를 찾았을 때 당시 유나였던 현전 스님은 "이것만 하면 된다"며 그에게 '무(無)'자 화두를 줬다. 그때부터 우희종 교수는 화두에 몰두했다.

오로지 '무'자만 들었다. 우 교수는 "화두에 몰입했다가 적색 신호를 못 봐 사고가 날 뻔도 했지만 특히 운전 · 운동할 때도 화두 집중이 잘 됐다"고 말했다. "화두 공부를 하다 의문이 생겨 현전 스님을 찾아도 스님은 '더 해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가르침이었다"는 우희종 교수는 결국 '무'자 화두를 체득했다.

우희종 교수는 "늘 하듯이 화두에 집중하면서 화두에 집중했을 때 멀리서 애절한 곡조의 노래(카루소)가 들렸다. 그 순간 노랫소리가 마치 딱 맞는 열쇠처럼… 마치 캄캄한 밤에 전등이 켜지듯 몰록 세상이 환해졌다. 공(空)하지만 꽉 찬 듯한 공(空),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었다"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감정은 마음의 바다가 일렁이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등 모든 감정을 여의었다.



그 후 우 교수는 현전 스님에게 여산(如山)이라는 법명을 받고 유발상좌가 됐다. 화두를 깨기 전까지 책 읽기를 권하지 않던 스님은 틱낫한 스님의 <평화로움>을 주며 읽으라 권했다. 우희종 교수는 "<평화로움>을 읽으며 '무'자 화두를 들며 느꼈던 것들을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계속해서 <경전> 등을 섭렵하며 자신이 체득한 경지를 다졌다.

고교시절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나 혼자 평안하고 말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빚을 갚기 위해 산다"했던 고교시절의 자답은 "너와 나 차별이 없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때부터 우 교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행복을 누렸다.

신림동 고시촌 한 사찰에서 <금강경>을 강의했고, 소년원 종교위원 봉사활동은 12년을 넘겼다.

우 교수에게는 꿈이 있다. 프랑스 '플럼 빌리지'와 같은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종교를 초월한 일반인들의 수행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벌써 거창에 3만평의 터를 마련하고 천천히 준비 중이다.

"깨달음은 방편이지 결국 '깨어있음'을 강조한 것 아니겠냐"는 우 교수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밖으로 향한 관심을 안으로 돌리면 진리를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야부 스님의 '요휴변휴(要休便休: 쉴 필요가 있으면 곧 쉴지니)'라는 구절은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를 뜻한다. 그런 뜻에서 서재를 '휴휴재(休休齋)'라 이름했다"는 우 교수는 가장 아끼는 구절이라며 다음의 싯구를 소개했다.

"쉴 필요가 있으면 곧 쉬니 산골 사람 노래와 사당의 술에 촌사람 즐거운 것이, 풍류 없는 곳에 절로 풍류가 일어난다(要休便休 巴歌社酒村田樂 不風流處自風流)."

조동섭 기자

禪定

■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원장

"깨달음은 지혜롭게 사는것"

"깨달음은 슬기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깨우쳐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불법을 잘 안다(百戰英雄知佛法)'고 말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올해 정년을 맞은 홍익대 금속공학과 김원수 교수(65)는 교수불자협의회(회장 김용표) 창립멤버에 걸맞게 불심이 깊다. 故 백성욱 박사 가르침을 따라 40여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금강경> 독송을 해왔다. 5년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원장을 맡아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선 그는 "<금강경>을 수지 · 독송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실천 · 수행이 따르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1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재학 시절부터 불교에 매료됐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등 불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그에게 ROTC 장교(학군 3기) 생활은 힘들었다. 군생활로 오계를 지키기 힘든 것도 고통이었다. 김원수 교수는 "군대에서 힘들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러다 학생 시절 알고 지내던 김재웅 법사(금

강경독송회)를 통해 1966년 처음 백성욱 박사를 만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백 박사에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 · 판단 · 감정을 갖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중생심을 바쳐 불심과 바꾸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와 반야 등을 저절로 깨친다는 가르침이었다.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라. 파계도 결국 마음이 지어낸 죄일 뿐이었다"는 그는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까지도 부처님께 바쳐 자유를 찾았고 마음 편하게 군생활을 마쳤다. 전역 후 그는 '불교 공부가 참 좋다'는 생각에 100일만 수행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수행은 4년을 훌쩍 넘겼다. 그는 백 박사 농장에서 수행하던 때를 회고하며 " 농장에서 일하며 수행하는 것은 절집 행자생활과 비슷했다. 일하다 보면 분별망상이 가라앉았다. 특히 백 박사의 부처님께 올라오는 감정 등을 바치라는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는 선 수행과 진배 없었다"고 말했다.

낮에는 일했지만 주야로 <금강경> 강독을 했다. 올라오는 생각은 모두 부처님께 바쳤고, <금강경>을 읽을 때는 제3분 '대승정종분'을 실천하며 부처님께 법문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여겼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 2번씩 40여년을 <금강경>과 함께했다.

김원수 교수는 "<금강경> 독송은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경전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전을 대하는 용심(用心)을 중히 여기는 그는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을 갖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40여년간 한마음으로 읽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하심정(下心亭)'이라는 이름의 무료급식소를 운영중이다. "하심 해야 업장이 소멸된다. 오만은 업장을 키울 뿐이다. 자기 죄업이 태산 같음을 알아야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이름이다. 서울 망원동 바른법연구원에서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는 3년을 넘어 이제는 지역의 명소가 됐다.

무료급식 봉사에는 바른법연구원 도반들이 함께한다. 매일 15명씩 자원봉사에 나서 하루 200여명씩 손님을 맞는다. 무료급식 봉사를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 표현한 김 교수는 "대개 준다고 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부처님 시봉한다고 생각한다. 하화중생(下化衆生)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불자라면 신심을 갖고 부처님께 다가가

40여 년 '금강경' 독송
믿음으로 슬기·지혜 키워

스스로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백 박사는 깨달음 대신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말했다"며 세상 이치와 통하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슬기와 지혜가 자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법연구원 도반들 모두 하심정 봉사를 수행으로 삼다보니 법열과 희열을 느낀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늘었다"며 "식당 · 병원 등 구체화된 사업을 펼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 성공한 불자 경영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혜는 세상 모든 이치에 분명한 것"이라며 "반야는 세상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숨쉬는 것처럼 필요한데 대중들이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을 대개 마음 밖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설명하지만 백성욱 박사는 마음 속 분별 · 차별 등이 잘못이라고 가르쳤다. 밖으로 향한 관심을 안으로 돌리고, 모두가 내 착각인줄 알아야 여래를 볼 수 있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김원수 교수의 다짐에서 불자의 참행복이 엿보였다.

"행복은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행은 부처님과 멀어짐에서 비롯되지요."

조동섭 기자

智慧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비법을 속성으로 전수하여 자신과 환자가 대만족하니
회원님께 적극 권장합니다. - 의학박사 신충수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 정 :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 용 :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질,난치병), 무통무혈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라틱
■ 개 강 : 2008. 5월 8,9일(야간반) 19시
5월 9일(주간반) 14시
5월 18일(일요일반) 13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 터 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고급과정(4개월)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특강(5개월)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 요잡작업,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등
2.수 업 : 5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1시~5시 (경우에 따라 요일을 변경 할 수 있다.)
3.자 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번지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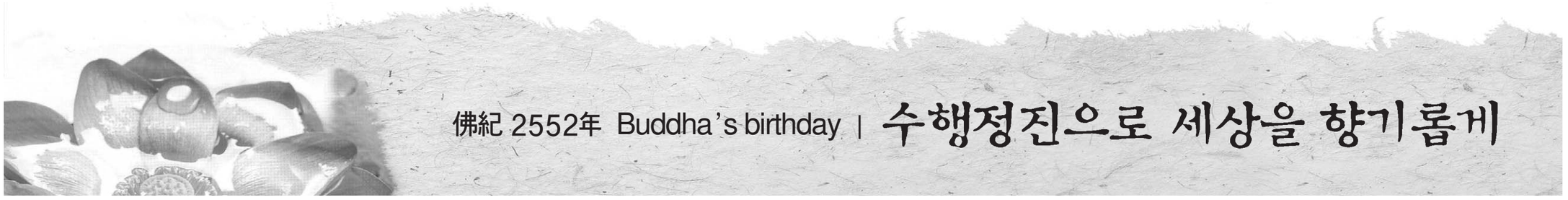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 공념 학당에서는 기초에서 백가지 비법인 백법까지 마스터 할 수있는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간안내 '육임이 보인다'

육임공부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강의록이 출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임이 어려워 공부를 망설이신 분은 새로 출간된 '육임이 보인다'로 공부 하시면 보다 간결하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각 점단마다 국수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지 않은 시간법으로 초사를 말할수 있도록 강의록에 수록 되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 각 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TEL 062)223-3168
홈페이지 www.wongaksa.org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학교

이 사 장 주종광
교 장 김용태
교 감 이종서
교 법 사 일 릉
행정실장 이은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2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고등학교

이 사 장 주종광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이아용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 정 실 장 김흥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5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광주무각사

주 지 청학스님

무각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TEL 062)383-0108
FAX 062)375-6057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 엄 사

조 실 도천 도천
문 장 혜광 종산
선원장 선등 현산
주 지 포월 종삼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TEL 061)782-7600
www.hwaeomsa.org

해 인 출 판 사
해인불교서점

대 표 金圭夏

■ (이전주소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번지
반월당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7호
TEL 053)425-0108, 421-0108
FAX 053)421-0109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 표 김동호합장

■ 공 장 : 053)811-5331
휴대폰 : 011-517-5978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TEL 053)252-6411
053)255-0008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원장 흥 륜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0-7100 /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청 주 용 화 사



회 주 미룡당 월탄
주 지 각 연

사부대중스님 일동

신도회장	대도심
거사림회 회장	노봉익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송관호
종무소 사무장	금강심
교 무 부	광명화
충북불교대학 교무처장	이 암
행정처장	대혜심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용화사
사부대중 일동

■ 청주시 흥덕구 사직 1동 216-1
TEL 043)274-2159 / FAX 043)273-4059

킴스치과병원

킴스치과병원의 진료철학
감사하는 마음
협동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손해볼 줄 아는 마음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마음

원 장
의학박사 김 석 순(담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신 도 회 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34번지
(황금사거리 → 구.황금아파트방향 우측 100m지점)
TEL 053)753-2875
홈페이지 http://www.dentalkims.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銀 海 寺

회주 · 주지 법 타

환경 친화적인 장례문화

팔공산 은해사 수림장

www.eunhaesa.org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 (054)335-3318 종립승가대학원 (054)336-2381

佛紀 2552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교 무	정수
학 장	덕민	재 무	종천
선원장	종우	사 회	각천
부주지	장주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종민
기 획	정문	신도회장	변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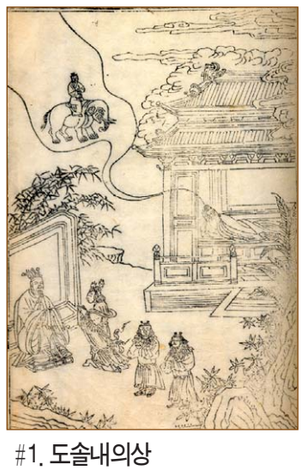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성림원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봉축특집 불기2522년

치밀한 구도로 경건한 가르침을 새기다


#1. 도솔내의상


#2. 비람강생상


#3. 사문유관상


#4. 유성출가상


#5. 설산수도상

부처님일대기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세 번에 걸쳐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으며, 청나라 때 한 종류의 <석씨원류>가 만들어 졌다. <석씨원류>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며, 부처님 일대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판화로 제작되어 있다.
명 경태년간(1450-1456)과 명 성화 22년(1486)에 제작된 <석씨원류>는 1쪽의 그림에 1쪽의 설명이 들어간 형식이며, 명 가정 35년(1556)에 제작된 <석씨원류>는 상도하문식으로 1쪽의 화면에 위쪽은 그림이고, 아래쪽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청 가경13년(1808)에 만들어진 석씨원류도 1도 1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판식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석씨원류>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암사판'은 명나라 사신으로 간 정두경이 1631년(인조9)에 북경에서 대경화상으로부터 받아와 1673년(현종13)에 남양주 불암사에서 복각한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으며, 원판이 잘 보존되어 국가 보물(제 591호)로 지정되어 현재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선운사 <석씨원류>는 명 가정 35년(1556)판을 사명대사가 사절단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1질을 가지고 귀국하여 인조 26년(1648)에 최서용, 해운법사 등이 고창 선운사에서 간행하였다. 청나라판은 우리나라에서 복각되지 않은 판본이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는 '불암사본' 석씨원류 1,2,3,4권 전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선운사본'은 2, 4권만 소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나라본의 원판 1장을 소장하고 있어 중국 사찰판본의 판각 솜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판본의 영인본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복각본과의 비교를 통해 판화교류사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불암사본'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중국판본의 화려하고 세밀한 부분 '등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원본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 팔상도 '를 통해 부처님 일대기를 정리하지만 여기서는 아홉 개의 옛판화를 통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자.


#6. 수하항마상


#7. 성등정각상


#8. 녹원전법상


#9. 쌍림열반상

#1.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카필라성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아나기 위해 마야부인의 태속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마야부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의 태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잘 표현되고 있으며, 자식이 없어 노심초사하던 정반왕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이야기의 전개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림만 보아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태자를 잉태하여 산달이 되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데바하다(천비)성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껴 무우수 나무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는 장면을 왼쪽 화면에 잘 표현하고 있다. 옆구리를 통해 부처님을 받고 있는 천녀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이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면의 오른쪽 장면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 하늘의 아홉용이 부처님을 씻어주는 모습과, 사람의 부축도 없이 스스로 사방을 일곱 걸음 걸었으며,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송이가 피어올라 그 걸음을 받쳐주었다는 경전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곱 걸음씩 걷고 난후에 사방과 상하를 둘러본 보살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를 향해 사자처럼 외친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세상오심을 알리는 인간해방선언의 말씀이 우리 귀를 지금도 울리고 있는듯하다.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싯달타 태자가 성의 동서남북 네 문을 통해 저자거리에 나가 고통스런 백성들의 삶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원본에서는 네 장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사람의 죽음 장면을 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인간현실을 느끼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생로병사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태자는 성을 나와 몸을 돌려 카필라성을 보면서 사자처럼 외친다. "나는 이제 차라리 스스로 절벽 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위에 떨어질지언정, 모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 죽을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짐한대로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하면 결코 카필라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비장한 결의를 높은 성을 말을 타고 넘는 장면으로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겪으며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아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깨달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듯 설산의 모습이 눈이 녹아 따뜻한 봄을 연상시키고 있다.

#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선정에 들어가 갈등이 심하지만 수행이 자신과의 투쟁임을 깨닫고 용맹 정진하여 마침내 마군의 항복을 받고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모습이다. 천군만마를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마음의 번뇌와 싸워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마군들이 부처님께 항복하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7. 성등정각상(成等正覺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완성한 고오타마는 기쁨으로 선언한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선언하며 이제 여래의 세계를 선언하노라."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깨달음의 순간들을 새로이 정리해 보고자 계속 그 자리에서 명상에 들어간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8.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곳에서 500리쯤 떨어진 녹야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귀의시키는 모습이다. 이 그림을 통해 2600여 년 동안 인류에게 희망과 광명의 빛이 되신 불법의 전파가 이루지는 위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9.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한 후 자기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용맹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는 모습이다. 열반에 드신 부처님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이 화면에서 바로 나올 듯이 묘사되어 있다.

한선학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국내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전산화에서 정보화로!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비라' 도입효과
· 체계적인 신도 관리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신뢰성 증대
· 접수/신도/마감/통계/연말정산 등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행정업무처리
· 행정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열람의 편이성
· 선진화된 다양한 전자 결재시스템
·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한 예약 서비스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자동예약 문자발송(생일, 제사, 축원, 신도, 단체 등)을 통한 맞춤형 신도관리서비스
사찰과 신도간의 신뢰감 확 보
행정업무 Process의 체계화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비라 종무행정 도입에 따른 종무행정관리 업무는 향후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사찰의 정책에 반영하기위해 사찰의 운영현황, 신도 현황, 접수 내역 현황 등의 통계자료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사찰운영과 포교의 활성화 및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도간 쌍방향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 제공
- 지대방 기능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지원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 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 송광사, 봉선사, 부석사, 봉인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중
㈜탑스컴 TOPSCOM www.topscom.net
TEL 031)965-6629 / FAX 031)965-6627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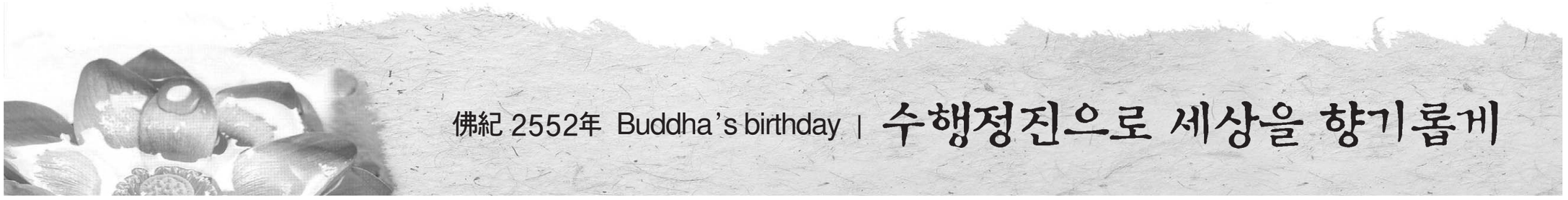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평165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회 주 **지 성**
주 지 **상 원**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대한불교조계종

대 해 사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 할 뿐이로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 신심명 중에서 -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대동 160-6번지
TEL 053)818-4055
홈페이지 http://www.daehaesa.org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김법운(칠곡 동명사)**
부 원 장 **전민덕(안동 유일사)**
총무국장 **권법도(안동 연봉사)**
재무국장 **이혜융(경산 불종사)**
규정국장 **최지증(성주 오왕사)**
사회국장 **서지산(김천 월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TEL 053)857-4339
FAX 053)857-0206

정법 대승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상 원 사

총무원장 **석 고림**

(사단법인:문공부등록단체)

경주 상주시 낙동면 상촌1리 산112-2호
TEL 054)534-3268
H·P 011-9935-2947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

대구교구원장 **석 담**
부 원 장 **혜도** 종회의장 **지언**
총무국장 **무상** 감 사 **도정**
사회국장 **무경** 교정국장 **고봉**

대구교구종도
**덕양 지현 자광 법성 법광 두암 용암
인오 지청 명신 무법 정암 지용 혜정
송천 만성 자행 혜련 무상심 보리심
보명화 대법화**

입종문의 : 총무국장 **무상**
H·P 010-4534-6697
TEL 053)986-7134
FAX 053)986-7135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봉식**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일동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이도각**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교무국장 **일 우**
재무국장 **지 성**
감찰국장 **무 법**
사회국장 **선 행**
종회의장 **도 정**
부의장 **진 덕**
부의장 **법 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EL 053)766-7231
FAX 053)766-7232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
어린이천자문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회 주 **우 학**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
TEL 053)474-8228
FAX 053)472-6268
홈페이지 http://www.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주 지 **법 선**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홈페이지 www.munbin.org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포 항 교 구 청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4번지
TEL 054)246-2231
FAX 054)248-5612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플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본래 한 물건도 없었으니…’

오늘의 禪語 ⑱ 본래무일물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일물(無一物)’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집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가 무일물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이 말 만큼 깨달음의 상태를 훌륭하게 나타낸 말도 드뭅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란 우리말로 풀이하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또는 ‘본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으로 청정한 마음 상태, 텅 빈 공(空)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번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서 깨달은 상태, 진리와 합일된 상태입니다.

또 ‘본래’라는 말 뜻 속에는 번뇌가 있었는데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번뇌란 없다는 뜻입니다. 선은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번뇌가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한 물건(번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무일물의 상태, 무소유의 상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엔 왜 번뇌가 있게 된 것일까? 번뇌가 생기게 된 것은 사치, 허영, 시기, 질투 등 갖가지 욕망과 무지로 인하여 이물질(오염)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고, 그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가 다름 아닌 깨달음입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세탁), 그것이 수행이고, 그 먼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본래무일물은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 스님이 처음 쓴 말입니다. 그가 입산하여 행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스승 오조홍인(五祖弘忍, 594~674)이 모든 대중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뛰어난 사람을 정하여 내 법을 계승시키고자 하니, 각자 오도송을 하나씩 지어 바치라”고 했습니다.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는 대통신수(大通神秀, 606~706)였습니다. 그는 스승 홍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몸은 곧 보리를 기르는 나무이고 (身是菩提樹)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다 (心如明鏡臺)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時時勤拂拭)
먼지가 묻지 않게 해야 한다 (莫使有塵埃)

‘육체는 깨달음(보리)을 기르는 나무와 같고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털고 닦아서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조혜능은 이 게송을 보고 본질에 어긋나는 시구라고 픽 웃었습니다. 애당초 번뇌란 없는 것, 즉 본래무일물인데, 무엇 때문에 먼지가 묻지 못하도록 털고 닦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지어 법당 벽에다 붙였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고 (菩提本無樹)
명경 역시 받침대(臺)가 없는 것이다 (明鏡亦非臺)
본래 한 물건(번뇌)도 없는데 (本來無一物)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는가 (何處有塵埃)

혜능은 신수의 게송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혜능은 본질적으로 번뇌가 생길 수 없다는 관점 견지
“본래 부처”라는 생각은 수행 자체를 부정할 위험도

오조홍인은 아직 행자에 불과한 혜능(노행자)에게 법을 전하는 징표로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을 주고 법을 전했습니다.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던 신수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계도 받지 않은 행자에게 당했으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는 신수에서 혜능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게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신수는 번뇌가 일어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읊은 것이고, 혜능은 ‘본래무일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읊은 것입니다. 신수의 입장은 수행을 통하여 먼지(번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혜능은 본래무일물이므로 애당초 먼지가 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혜능과 신수의 게송을 잘 살펴보면 두 말이 다 옳습니다. 다만 신수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깨달음이란 끊임없이 닦아야 하는 것이 되고, 혜능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본래 부처인데 닦을 것이 뭐 있느냐”는 식의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체를 부정하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는 명예나 지위 또는 재산을 얻기 위하여 많은 애를 씁니다. 욕망이란 허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하여 갖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합니다.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짓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삶의 가치를 오로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유’ ‘본래무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집착으로부터 좀 떨어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선(禪)이 아닐까?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생명 바칠 각오로 보살행 서원

⑱ 용시 아가씨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용성(龍盛)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受記)를 받은 용시(龍施)아가씨 또는 용시보살은 <용시보살본기경(龍施菩薩本起經)>과 <용시녀경(龍施女經)>에 등장한다.

부처님이 비야리성의 암라나무 절에 계실 때, 탁발을 하다가 수복(須福) 장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마침 열네 살의 용시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부처님을 뵙고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겠다고 결심한다.

이 때 악마는 용시가 큰 뜻을 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장차 부처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제도할 것을 걱정한다. 악마는 용시의 아버지로 변장한 후, 불도는 얻기 어렵고 여자는 전륜성왕이 될 수 없음을 말하며 용시를 아라한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용시는 보살도를 받들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악마는 용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애가 타서 마침내 악담까지 한다.

“만약 보살의 행을 하려면 세상도 탐내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네가 정진하여 능히 누각 위에서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고 하면, 후에 부처가 될 수도 있으리라.”

용시는 이내 난간 가에 서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다.

“이제 하늘 안의 하늘(天中天)께 귀의하옵니다. 일체지(一切智)로써 제가 구하는 바를 알아주옵소서. 생명 버리기를 청할지언정 보살의 뜻은 버리지 않겠나이다. 몸으로써 부처님께 보시하오니, 원컨대 꽃을 흩뿌리듯 하여지이다.”

용시가 바로 몸을 날려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아직 땅에 닿기도 전에 남자로 변화되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니, 5색의 광명이 입안으로부터 나와 한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 그 빛은 도로 돌아가 부처님 몸을 세 바퀴 돌고 정수리 위로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 여인이야말로 전 세상 동안에 이미 만 분의 부처님을 섬겼고, 이후에는 갠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미래의 부처님을 공양할 것이니라. 7억6000만 겁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것이니, 명호는 용성(龍盛)부처님이라 할 것이며, 그 수명은 1겁 동안이니라. 열반하신 후에는 경전과 도가 흥성하다가 반겁이 지나면 스러질 것이니라.”

이 때 용시의 몸은 부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용시가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저를 놓아주시어 사문이 되게 하소서.”

부모가 이내 허락하자, 안팎의 권속들이 모두 위없는 도(道)를 닦겠다는 뜻을 내었다.

<용시녀경>에서 용시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아라한을 넘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해 함께 열반에 이르겠다는 보살도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전형적인 대승의 구도자로 묘사되고 있다. 용시는 전세에 닦은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자마자,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처럼 보리도를 이루리라” 서원하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보살도는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정도의 원력이 있다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진리 위해 목숨 거는 원력 발휘
부처님 친견 후 성불 수기 받아

이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동자로 도를 닦을 때,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것은 생멸의 이치다(諸行無常 是生滅法)”라는 게송의 뒷 구절을 듣기 위해, 절벽에 몸을 던진 후 “생과 멸이 다 소멸하고 나면 적멸한 것이 즐거움이니라(生滅滅已 寂滅爲樂)”라는 게송을 나찰귀신으로부터 듣게 된 것과 흡사하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간절함이 있다면, 깨치지 못할 화두가 없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확철대오 하려면 세 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我)라고 하는 생각,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자존심과 명예 등등, 무아(無我)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또 비우며 아상(我相)을 죽이고 또 죽이는 처절한 자기 부정과 이를 통한 대 긍정의 정반합(正反合)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 백 척의 높은 장대 위에서 한 발 내딛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각오로 철저히 ‘거짓 자기’를 죽이는 실험에 뛰어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김성우 기자(buddhapia5@buddhapia.com)

신행게시판

●**자광사 연등 점안법회와 가족음악회**=대전 자광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5월 11일 연등 점안법회 후 곧바로 가족음악회가 이어진다. 저녁 7시 자광사 1층 조사전에서 열리는 가족음악회를 만끽해보자. (042)822-9220

●**반냐라마 5월 수행**=반냐라마 사띠 스쿨이 5월 9~11일 20기 사띠수행워크샵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6~8일 해운대 〈금강경〉 특강, 서울 수행특강 등이 열린다. 15일에는 대구수행특강, 16일에는 다보산수행특강이 열리며 19일에는 왓싸깃중수행이 시작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각 지역 반냐라마에서 자체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연등축제는 봉축법요식, 관욕, 탁발, 공양, 창작등 만들기, 연등 밝히기, 예불 및 좌선, 행선 등으로 진행된다.

●**명상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마음동산 꾸미기’**=우곡선원이 5월 10일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마음동산 꾸미기’ 제3기 2강을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제3기 3강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마음동산 꾸미기’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우곡심성개발교육원의 명상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인터넷(www.wookok.org), 이메일(pusanwk@wookok.org)로 가능하다. (051)740-6288

●**호두마을 집중수행**=천안 위빠사나 명상센터 호두마을이 빤디따 비왐사 사야도의 지도로 집중수행을 마련한다. 5월 20~29일, 31일~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위빠사나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기회. 미얀마에서 초청한 빤디따 비왐사 사야도가 위빠사나의 정수를 가르친다. (041)56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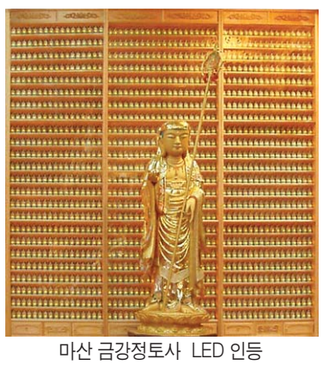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기본수행 및 집중수행**=서울 보리수 선원이 6월 16~21일 110차 기본수행을 진행한다. 수행시간은 매주 월~토 오전 10시~12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열린다. 참가비는 5만원. 6월 14~21일에는 110차 집중수행이 계획되어 있다. 오후 4시 30분 시작해 오전 10시에 끝나는 과정이다. 참가비는 10만원. 이에 앞서 5월 12일 오전 10시 보리수선원 수행홀에서는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가 봉행된다.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봉축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오색등

공단등
팔각 봉축 접등

종등

칼라(보카시)연등

영가등

만월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14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 법 인 설 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대한전통불교
무형 문화 제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바라,나비무,법고,
고장,천도재,49재,점안식
010-7579-8200(서창)
금륜사 도광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
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무진장 합장

통도 바라춤,나비춤교육생 모집
(법고무,사찰학춤,살풀이,
극락무,한국무용일체)
*절의 모든 행사를 여법하게 모셔드립니다.
위치: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75-12번지
(두실전철역3번출구 다비치안경 4층)
"혜연 불교무용학원"
원장:최 혜연심(전 부산시립무용단 출신)
011-9233-6302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모든 제 의식 가능한 스님)
제 의식 봉행할 때만 오셔 도 됨
부산 근교 스님 환영
051)502-6569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1분 모십니다
(50대 - 60대)
연꽃피는 절 (경북)
011-522-1237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실, 건강하신분
(부산 가야동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시고 출가의 뜻을 둔 남여행자 모십니다
011-337-3991

조계종 사찰에서 행자구합니다
출가 수행의 뜻이 있는 남자
▷자격:17세~45세, 고졸
1인1실 개인지도함
054)452-0845
054)452-6065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기도할수있는 장소(한강이남서울부근, 부산부근, 빈가옥,산 기타 보시나 무임으로 약 3년정도 빌려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선망 조상님,천도재,49재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분들께서도 연락주시면 무임으로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010-4475-3552
02)934-335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기원정사)
055)353-0303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41)836-5066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100일기도 가능한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42)271-624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팔공산)
010-3189-8745

오래계실 부전스님, 가족처럼 함께할 공양주, 종무실 처사,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016)9730-3003

알려드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과
혜수(신능운)스님 간에
체탈도첩에 대한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명 : 연대불교 신문사 증정지사장 혜철

2008년 4월 30일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혜수 (신능원) 합장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역 학 공 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전생 · 빙의 · 자기 최면 · 치료최면

개 강 일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2개월 주 1회 (총 8회)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6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 지도자. 최면 관심자
교육내용	자기 최면 / 타인 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전생퇴행법 / 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스트레스 / 수면장애

◆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 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 이용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것인가를?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수강비가 수백만원씩 해야만 고급교육일까요?
훌륭한 강사 입니까?
소승은 최면의 본질적 이고 체계적인 최면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희망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무조 정락 합장

사단법인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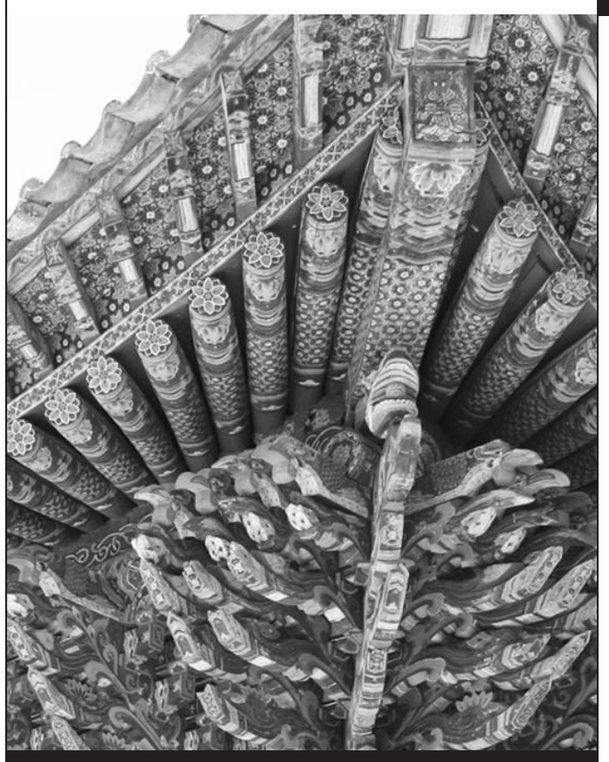


원장 우혜안 스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위치 : 충북	위치 : 강원 동해
법당 : 21평	법당 : 13평	법당 : 20평
요사 : 20평	요사 : 40평	요사 : 60평
부지 : 190평	부지 : 380평	부지 : 800평
가액 : 7억 5천 (융자 2억 가능)	가액 : 3억5천	가액 : 5억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수행과 포교의 일거양득처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중 2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유명한 사적공원과 산이 있어 일년내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으며 수행과 포교를 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량으로 양도하기 아쉽지만 부득이 인연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042)633-84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2천만원

010-3553-7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절터 별장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근교
- 관리지역 약 500여평
- 가액 : 4천5백만원

010-4707-80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임법당 1, 공양간 1, 컨테이너방 2개
- 산신불 모셔져 있음
- 스님 기도하기 최적합
- 물좋고 조용한 산사 산약초, 텃밭 있음
- 가액 : 3천만원

010-4660-5388

제주 암자 안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4평. 마당에 연못 있음
- 임법당 30평(법당 15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18-590-358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경인 국도변)
- 평수 : 70평
- 방3, 법당, 공양간 도시가스, 샤워실, 시설완비
-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지하철역 부근
- 50평(6층 건물중 6층)
- 특징 : 교통편리, 전망좋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588-22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 시내
- 50평, 4층 건물중 3층
- 법당1, 큰방2, 사무실2 살림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

010-5669-1414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상주시 화남면 속리산 아래
- 약 170평. 계곡접
- 목조, 흙벽돌 건물 건축중인 토굴
- 가액 : 4,000만원

011-701-0232

사찰 및 암자터

- 위치 : 경남 남해 용문사 뒷편
- 임야 : 2,200평(관리지역)
- 평당 7만원(절충가능)
- 저수지, 계곡 함께 접함 뒷산에 와불부처님 형세

055)833-7447

사 찰 안 내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생활주거지는 포항입니다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에어컨, 심야보일러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542-0982
054)762-7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안성
- 법당, 방2, 주지실, 공양간 마당넓음, 주차장있음
- 지상권
- 가액 : 2500만원

010-4172-512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000만원

010-9115-683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총 2000평
- 현재 임법당 있음 법당터 정리되있음
- 가액 : 4억2천만원

010-4172-51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시장삼거리
- 50평(2층 건물중 2층)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급하게 쓸 역학도 가르쳐 드림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법당 20평(2층)
- 삼존불, 시설완비
- 일신상 법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급히 양도하고자 함
-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는 차후 상의

016-451-7646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안 계곡 (가야산)
- 크기 : 450평
- 앞쪽 계곡, 뒤는 산
- 임법당, 요사채 45평, 방7개 옛집 12평, 창고 20평 전답 800평 사용
- 심야보일러, 법당, 주방 일체완비
- 특징 : 해인사 계곡, 해발 900고지 최신 황토방, 요사채
- 가액 : 9천 8백만원(대출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010-6797-3223

대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요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로변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1-538-22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0-2877-77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내
- 2층 건물중 2층 약 30평
- 법당1, 방3, 주방 에어컨등 시설일체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역학하시는 분 적합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일체 450만원(절충가능)

011-9590-507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은 경치좋은 동강 앞
- 대지 200평, 전 570평 군부지 약600평 사용중
- 법당 16평 신축 요사채 35평
- 가액 : 2억3천만원(절충가능)

011-792-896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지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 대지 500평 중 현재건물 380평
- 전망좋고, 교통편리 현재 주택건물, 목장으로 사용 대웅전 사찰로 적지
- 어떤형태로든 용도변경 가능 (복지시설, 요양원도 가능)
- 가액 : 4억9천만원

010-4148-6777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양평 용문산자락
- 평수 : 250평
- 좌청룡 우백호, 정남향 전망, 경관 최고
- 투자가치 최적지
- 가액 : 시가 2억5천을 1억5천에 급 양도함

011-531-556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내당동
- 법당 40평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6594-8808

미륵사 절 안내

- 위치 : 이천시 갈산동 76-1번지 (이천 법원 옆)
- 대지 513평, 법당 25평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6억 5천만원

031)638-6880
010-5600-6880
017-212-6880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사찰암자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내 천은당 한의원과 같이 있는 한옥 1채
- 평수 : 약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67-41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바닷가 5분거리, 주문진 해수욕장
- 건물 2동, 대지 80평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 (기한 5년까지 가능) 양도가 9천 500만원(등기 완료)

011-9918-5251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반야계곡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토굴 포교원 안내

- 서울 강동구 천호역 10분거리
- 인구이동 많음, 1층 상가 17평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700만원
- 역학 보살님 적합

02)482-2101
010-7135-4030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봉축특집 불기2522년

부처님 오신 날



그림 · 김홍인

주택가가 끝나는 곳부터 터 닦이를 끝낸 계단식 택지가 시작되었다. 굵은 돌멩이와 썩은 목재들, 여기저기 놓인 똥 무더기… 어찌나 을씨년스러운지 버려진 공동묘지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소리 높고 소나무 향기 진했는데… 코너를 돌자 정혜사가 저만치 보였다. 담장 너머로 아슴푸레 불빛이 새어나오고 법당 안에 피워 놓은 향내가 맡아지는 듯싶었다. 하지만 이 속도로 걷는다면 몇 십 분이나 걸릴는지… 비스듬한 비탈길을 올려다보니 미리부터 정신이 아뜩해졌다. 수술 직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겨드랑이며 사타구니, 종아리 곳곳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마음은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정작 팔이며 발은 제자리에서 비비적댈 뿐이었다.

아무래도 이상이 생긴 게 틀림없어. 재수술, 그래, 어쩌면 재수술을 받을지 모른다잖아.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병, 좁고 긴 호리병 속으로 쑤욱 빨려 들어가는 듯 아뜩해지던 마취의 순간, 어지럽고 메슥거리고 오장이 뒤집히는 괴로움… 그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삐질삐질 식은땀이 났다. 또다시 어제 걸려온 최명숙의 전화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언니, 정신 언니가… 오늘 새벽에… 갔대요… 임파선이랑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서… 처음부터 수술이 무리였대요. 의사가 안 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수술 한 거래요. 언니, 무서워요. 정신 언니 같은 사람이 죽는데, 그런 착한 사람도 가는데…"

서울대학병원 4인 병실에서 알게 된 최명숙은 안정신의 죽음을 자기 죽음과 결부시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곱고 착한 사람은 천주님이 이뻐해서 남들보다 먼저 데려가신다잖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 역시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암환자인 우리들은 언제나 시한폭탄을 몸속에 넣고 사는 것 같았다. 함께 암 치료를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건 내 몸속 시한폭탄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었다.

절마당에 서서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하는데 공양주보살이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이구머니나, 누군가 했드만… 헌데 소리소문도 없이 시간에 웬일이래유?"

전화 한 통 없이, 그것도 해 저물 무렵 절을 찾은 것이 맘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냥, 불쑥, 오고 싶어서요. 노스님은… 벌써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수연시님이 노시님 모시구 지방에 있는 상가집에 가셨구만유. 속가 적부텀 인연 있는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아직 저녁 공양 안 하셨쥬?"

"먹구 왔어요. 제 걱정 마시고 일 보셔요. 전 법당에 올라가 있을 게요."

벗다가 수연 스님이 나를 보고 반갑게 두 손을 모았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요. 기도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삼천 배는 자신이 없고… 천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힘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 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하려면 절하는 것 말고 독경이나 참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수연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채 말했다.

수연 스님은 다시 한 번 내 의사를 물어 본 후 신도들과 함께 법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염주를 굴리며 천 배를 하기 시작했다. 한 쪽 가슴이 없어지니 몸이 균형을 잃고 자꾸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절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체투지를 해서라도 내 마음 속 번뇌와 두려움을 덜어내고 싶었다.

다 늦은 시간에 정혜사를 찾은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집안 공기를 피할 요량이었다. 나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지난가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남편뿐 아니라 친정식구들이 날 유리그릇 다루듯 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쉬쉬했다. 언니, 어디 안 좋아? 아프지 않아요? 당신,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그런 질문들조차 내 비틀린 마음은, 내가 괜찮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 "한 쪽 가슴이 없어지니 몸이 균형을 잃고 자꾸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절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 않았다."

뒤늦게 공양주보살이 법당 안에 들어왔다. 땅딸막한 체구의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절하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힘이 하나도 들어보이지 않게,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가뿐가뿐 절을 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공양주보살은 줄곧 지장보살을 불렀다. 입으로는 평생 과부 만든 몹쓸 사내라고 하던, 오래 전 죽은 남편을 저렇게 지성으로 천도하는 것이라지. 그녀의 절하는 모습을 취한 듯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던 안정신씨 모습이 겹쳐 보였다.

유방 절개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날 밤이었다. 나는 푹 꺼져버린 오른쪽가슴을 만지며, 없어, 없어졌어, 정말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언제나 그 자리에 달려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눈이나 코나 입이 없어진 것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울컥울컥 울음이 밀려나왔다. 마취제를 한 대 더 맞고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어느 순간 너무 아프고 쑤셔서 끙끙대는 내 어깨며 오른팔을 주물러주고 있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가 바로 4인 병실의 같은 유방암 환자, 안정신이었다.

안정신은 늦은 밤이면 침대마다 돌아다니면서 걷어찬 담요를 덮어주고 링거액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누가 시키거나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힘든 일을… 왜 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천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웃에 봉사하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잖아. 그러면 구원 받기도 쉽고 영생할 수 있어. 명자씨도 천주님 믿어 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안정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길 잃은 양이며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할 천주님의 자녀라고 표현했다. 천주님 말씀만 믿으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믿음이 부러웠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즐겁다면 그 천주님을 나도 한번 믿어 볼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절을 할 때마다 양팔이 가슴을 지그시 누르니 딱딱한 특수 브래지어가 오른팔 안쪽에 닿았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다. 며칠 전 지하철 안에서 본 아가씨의 봉긋한 가슴이 생각났다.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몸에 착 달라붙는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아가씨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중년남자는 힐끔힐끔 그녀의 몸매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사당역에서 내릴 때까지 나는 그녀의 볼록한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더욱 돋보인다더니… 내가 언제 내 가슴을 저토록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민 적이 있었던가. 지하철 안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오른팔로 오른쪽 가슴을 가렸다. 그럴 때마다 팔에 닿는 특수 브래지어의 딱딱한 감촉은 내 기분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다.

절을 하고 있는데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바람 쐴 겸 정혜사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모른 척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혼자서 덜덜거리다가 제 풀에 지쳐 끊어지고 말았다. 어젯밤 남편은 잠결에 무심코 내 가슴언저리를 더듬었다. 더듬거리던 손이 무엇엔가 데인 듯 움찔했다. 나는 이미 잠이 깨었지만 깊이 잠든 체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베란다로 나가 어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오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최근에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남편이 양치질을 하고 돌아와 다시 내 곁에 누울 때까지 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척해야 했다.

유방암이라는 1차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수술날짜를 잡을 때까지 내 마음은 생각보다 덤덤했다. 맹장을 떼어내고 자궁에 붙은 물혹을 도려내듯이 일찌감치 암세포를 없애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암세포는 이미 잘려나가고 없는데 정작 내 맘속에서 또 다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사사로운 일에도 부르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신경이 바늘 끝처럼 예민해서 누구라도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찌르고 싶어졌다. 가슴 속은 온종일 체한 듯 답답하기만 했다.

공양주보살마저 나가고 법당에는 나 혼자 남았다. 절간처럼 조용하다더니 사위는 한량없는 적막공산이었다. 천 배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쪽, 겨드랑이 등 오목한 부위마다 흥건하게 땀이 괴었다. 땀 때문인지 아니면 살과 살이 스쳐서 그런지 수술자국이 가렵기 시작했다. 절하기를 멈추고 앉아 오른팔을 옷 위에 대고 세게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왼손을 옷 속에 넣고 가려운 부위를 쥐어뜯었다. 그러나 가려움증은 점점 온몸으로 퍼져갔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아니 뼛속까지 못 견디게 가려웠다. 한 번 가렵기 시작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데굴데굴 구르거나 팔짝팔짝 뛰거나 손톱을 세워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제 풀에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 왜 이러고 살아야 해? 그만 이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어버렸으면…'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봉축특집 불기2522년



김우남 경남 하동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 졸업. 2001년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2006년 첫 소설집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실천문학사) 출간, 2006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됨, 현재 계간 〈문학나무〉 상임 기획위원.



그림 · 김홍인

나는 부처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원망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의 결과인가요? 그동안 내가 받은 육체적 고통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어야 합니까? 얼마를 더 견뎌야 내 업장이 모두 소멸됩니까?'

대형거울에 비치던 낯설고 생경한 내 몸뚱어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겨드랑이에서부터 기다랗게 생겨난 절개선이며 광목천을 굵은 바늘로 홈질한 것 같은 수술 자국... 찢어진 걸레를 누덕누덕 기운 것 같은 그건, 몇 십 년을 같이한 내 몸이 아니었다. 한 쪽만 덜렁거리는 유방은 더욱 볼썽사나웠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얼굴을 타고 줄줄 흐르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보살님, 골물 좀 타왔어유. 어찌나 절을 열심히 하시는지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이네유. 큰 수술 하신 지 얼마 안 됐잖어유. 무리하심 안 되쥬. 시님께서 그만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셨슈."

"괜찮아요. 삼천 배도 아닌데... 절하는 게 몸에 좋은 운동이라잖아요."

일어서며 합장을 하는데 온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얼른 바닥에 놓인 염주를 집는 시늉을 했다.

"참, 아까 댁에서 사장님이 전화 주셨어유. 잘 도착하셨냐구 물으시더구만유. 푹 쉬고 천천히 오시라고 하대유."

"나 때문에 일찍 잠도 못 주무시고... 곧 내려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려유. 지 옆에 보살님 이부자리 펴놨응께 바루 내려오셔유."

나는 공양주보살이 갖다 준 꿀물을 마시고 아픈 어깨를 주물렀다. 갑자기 등이 결렸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등줄기가 당기고 아팠다. 유방암이 재발할 때는 등이 결리고 아프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정말 암세포가 또다시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건가. 조직검사 결과는 모레 아침에 나온다고 했다. 무서웠다. 온몸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를 살려 주세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어 불렀다. 내가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찼다. 관세음 주력을 하며 미친 듯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문득 안정신이 서럽게 울며 기도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다. 새벽녘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다가 세탁실에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천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까? 모든 걸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기며 천주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야 하나요? 천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울음과 한탄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천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신은 아무 데도 없단 말인가.

그날의 우울했던 기억을 잊고 싶었다. 한참 동안 머리를 바닥에 대고 태아처럼 웅크렸다. 앉은자리가 오줌을 싼 것처럼 흠뻑 젖었다. 땀을 흘리고 났더니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다. 졸지 마. 참선 중에 조는 수행승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죽비소리 같은, 안정신이 내지르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정신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마리아 성상만 눈앞에 덩그마니 나타났다. 아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님, 사랑으로 충만한 마리아님,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한 여인 하나 구원해 주지 못한 마리아님,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야 했나요? 그녀가 얼마나 더 희생했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천주님이 자꾸 원망스러웠다.

세 시간 이상 지난 것 같았다. 다리가 뻣뻣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엉금엉금 기다시피해서 공양주보살 방으로 내려왔다. 방바닥이 따끈해서 좋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공양주보살은 단잠을 자는데 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큰 절의 사천왕문을 지날 때 본 무시무시한 형상을 꿈속에서 내가 다 겪어야 했다. 혀가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에 나는 내내 몸부림을 쳤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음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서 그 많은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어야 했다. 겨우 잠이 든 것은 행자스님의 도량석 돌며 외는 염불 소리를 들은 후였다.

>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때가 되면 지기 때문 아닐까.
> 그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 아무것도 없구나."

아침공양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수연 스님이 나를 불렀다. 자기 방에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다.

"보살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고생 많으셨지요? 몇 번이나 그만 두시라고 하려다가... 보살님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싶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수술 이후에 생긴 버릇이었다.

"스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남들은 비껴가는 일인데 저에게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해요. 멀쩡한 그들을 괜히 물어뜯고 할퀴고 싶어요."

얌전한 수연 스님이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주저리주저리 부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

"밤새 천 배를 해도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아요. 친정엄마 따라서 일찍부터 절에 다녔는데 부처님 가피는 못 받을망정...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업장이 소멸되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기도만 하시는 스님들은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수연 스님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결심을 한 듯 굳은 표정을 한 채 입을 열었다.

"보살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실래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나는 눈만 껌뻑였다.

"보살님만 고통을 가지신 게 아니랍니다. 저도 전생과 이생에 지은 죄를 업장소멸하려고 매일 아침 백팔 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제가... 미혼모였답니다. 어린 나이였지요. 아무것도 몰랐지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깨어나 보니... 이미 아기는 누군가에게 보내지고 없더군요."

그렇잖아도 수연 스님을 보면 내 또래밖에 안 되었을 텐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젊디젊은 나이에 비구니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속 얘기를 왜 나에게 들려주는지 그것이 더 궁금했다.

"한동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렸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요. 죽음만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노스님을 뵙게 되었지요. 노스님께서 저에게 고타미라는 이름을 가진 과부 얘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마 보살님도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사위성에 살던 고타미라는 과부 얘기지요. 애지중지 키우던 외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쓴 과부 말입니다. 부처님은 과부에게 '삼 대 동안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라. 그러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고 약속했지요. 당연히 삼 대 동안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구요."

나는 여전히 과부 얘기가 어떻게 수연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는 무관한, 아주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노스님께서 저의 마음 밑바닥을 읽으셨던 거지요. 고통의 원인이 먼 데 있지 않고 나의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스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저희들 등 만들러 왔어요."

"어서들 오세요. 일찍부터 복 지으러 오셨네요. 아침 공양은 하셨나요?"

"그럼요, 그렇지만 점심은 맛있는 절밥으로 주실 거죠?"

여자들은 소녀처럼 밝게 재잘거렸다.

여자들이 등 만드는 방으로 올라간 후였다. 나는 등 만들 재료를 챙기고 있는 수연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도 등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달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등을 만들며 그 사람을 위해 행복이나 극락왕생을 빌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기원은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지요."

수연 스님을 도와 몇 가지 물건을 들고 외인 출입 금지 팻말이 달려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마루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잎과 쑤어놓은 풀, 철사 모형 위에 초벌 창호지를 입혀 놓은 벌거벗은 등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여자들은 익숙하게 종이에 풀을 바르고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 나갔다. 금세 한 개의 고운 연등이 태어나고 있었다. 서로 누가 만든 등이 더 예쁘다, 잘 만들었다, 하며 품평을 하기도 했다. 나는 수연 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줄을 맞춰 진분홍빛 꽃잎을 붙이고 초록 꽃받침을 달았다.

밤새 절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등을 만들다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약수를 떠 마시고 잠시 마당가를 걸었다. 커다란 동백나무 아래 붉은 동백꽃이 송이채 뚝뚝 떨어져 있었다.

'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고 있구나. 이 꽃들이 지지 않아도 아름다울까.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때가 되면 지기 때문 아닐까. 그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동백나무를 향해 공손하게 합장을 했다. 3층에 올라가 연등을 몇 개 더 만들었다. 그리고 두 개의 등을 따로 만들었다. 분홍 연등에는 우리 가족 이름을 써넣었고, 하얀 연꽃등에는 안정신이라고 썼다.

'정신씨, 천주님 품안에서 편안하길 빌게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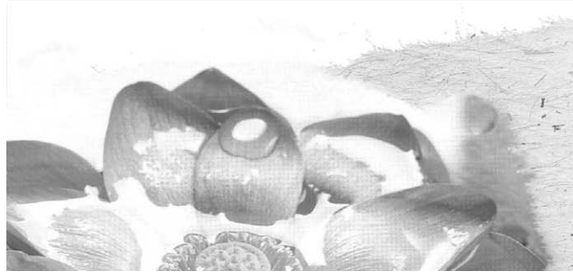
참으로 묘했다. 죽음이 나 혼자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함께 덮는 솜이불처럼 넉넉한 위안이 되고 있었다.

길을 내려가는데 미리 내다 건 팔각등이 절 마당에서부터 한길까지 줄을 짓고 있었다. 모양 좋은 오색 등이 걸려 있는 길은 그리 삭막해 보이지 않았다.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벚꽃이 바람에 실려 하나 둘 날아왔다. 팔각등, 연등, 영가등이 커다란 꽃송이가 되어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앞으로 보름 후였다. 〈끝〉

금강대학교
불기 2552년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실무 인재 양성
VISION 1 인성 / 덕성 함양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외 교직원 일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황통주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대가야 불교 미타성지
가야산 반룡사 불교대학
주지 황룡법륜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TEL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TEL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 운 향 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간병봉사회, 교정법회 후원회,
원림회, 유적답사반,다래봉사회
신도일동
(양력 초하루 법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천부종 김천종무원
금 천 사
회주 일월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229-4
TEL 054)431-9641

대한불교조계종
법 계 사
주지 계법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TEL 053)768-2251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호 암 사
주지 현종
(백련차 생산 판매 중입니다)
■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
전화 054)541-7863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팩스겸용)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지 자성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4
TEL 054)782-3004 / FAX 054)782-5183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10
TEL 053)755-9817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지 성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485
TEL 054)431-6822, 6823

금 화 사
주지 진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TEL 053)616-9396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사)한국미륵불교
천 용 사
주지 덕련
■ 경북 구미시 광평동 170-4
TEL 054)451-7769

대한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한불교구화종 총본산
구 화 사
회주 석구화
총무 석지묵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92
TEL 054)977-6454 / H·P 010-9421-9364

구미 선산 비봉산
서 황 사
(구, 죽장사)
주지 명효
총무 견진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TEL 054)481-2736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번지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사)아헹가요가
사부대중
한글창 홈페이지 "아헹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번지
TEL 053)981-3553

대한불교조계종
인 각 사
「역사와 문화의 산실 삼국유사 저술지」
주 지 초암 상인
신도회장 배창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동 612번지
TEL 054)383-1161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운 람 사
주지 탄 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806
TEL 054)832-6696

대한불교조동종
비슬산 혜 광 사
(사)능인선원
선원장 진일(승려시인)
세계건강협회 극락관 원장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8동 2040-3
TEL 053)473-3131, 3269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사
주지 혜 주
부설 울릉도 성불사 / 연화유치원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번지
TEL 054)272-4633 / FAX 054)274-1633

대한불교조계종
안 일 사
주지 성 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산 225
TEL 053)655-0220 / 053)655-0223(반야유치원)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지 보 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흥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자연 미륵부처님 기도성취도량'
주지 혜 천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TEL 054)471-3771 / H · P 016-371-4115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 H · P 011-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도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404
TEL 053)614-3087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주 지 용 담
신도회장 평등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TEL 054)858-2630(대원사)
054)855-6033(어린이집) / 054)859-7230(불교대학)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지옥중생 번뇌 날려 보내는 법음
부처님의 법음이 욱수골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학 장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 FAX 053)791-4951
홈페이지 http://www.bbc.or.kr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주지 경 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 FAX053)471-4813

대한불교원효종
경북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복원사 영운
종무국장 대각사 대각 교무국장 법 운 사 대관
재무국장 금련사 일향 규정국장 연 화 암 일도
포교국장 송학사 도완 사회국장 토함정사 대호
종도일동
■ 종무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 1리 875
원호불학원 어림산 복원사
TEL 054)745-3646

佛教財團한국불교미타종
(종립)한국승가대학
종 정 대종사 의륜
총무원장 대종사 왕인
총무부장 성원
포교부장 법인
규정부장 도성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1-17
TEL 053)621-3610, 625-3372

청 룡 사
주 지 서 암
신도회장 정한국
총 무 권성분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200
TEL 054)532-9808, 054)533-0823

개 원 사
주지 문 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TEL 053)981-0995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장 장영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번지
TEL 053)253-2886(신도회)
053)253-1082(자비의 집)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 성 선 원
주지 한 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FAX 053)653-7560

운 주 사
주지 약 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주지실)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정 관
부회장 법 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TEL 054)372-3876
FAX 054)373-8505

부처골 卍지장선원
卍지 장 암
(영가천도/구병시식)
휴양,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합니다
주지 혜 봉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89
TEL 054)383-8553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 원 사
주지 성 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TEL 054)975-6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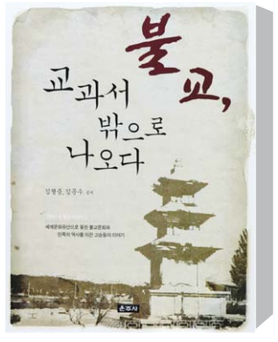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 참 사
주지 영 암
관음회 · 신도회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천부종
금 주 사
주지 화 광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1442
TEL 054)976-3799 (옷밭마을)

불교자원봉사센터
불교호스피스
단장 정 법
(자원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85-4
TEL 053)767-8866



교과서 밖에서 '불교의 변신'은 무죄!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김형중 · 김문수 지음| 운주사 펴냄
1만 5000원

교과서 안의 불교가 반란을 일으켰다.

조계종립 동대부고의 국사교사로 재직 중인 김형중 교법사가 한국의 교과서에 드러난 불교 왜곡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를 교과서 밖으로 꺼내 재정리 한 것. 불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올바른 관점의 필요가 교과서 속 불교 이야기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초중고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정 보완 하는데 3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교과서란, 학생을 교육시키는 주교재로 국가의 이념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시키는 보편적 사회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잘못된 불교 지식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필자의 저술 동기다.

이 책은 교과서를 폭넓게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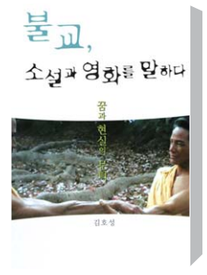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문화유적 여덟 곳과 민족의 역사를 이끈 열두 명의 고승을 소개한다. 신라 최대의 왕궁 사원인 황룡사를 비롯하여 인류 기록 문화의 보배인 팔만대장경은 물론 민족의 자랑스러운 고유문자 훈민정음과 불교의 깊은 관계를 모색했다. 한국의 불교역사 중 신라 불교의 이차돈의 순교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한용운 스님까지의 시간을 아우른다.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알아야 할 핵심어와 인물도 정리하였다. 풍부한 삽화와 설화를 소개하고, 용어 해설과 인물 설명을 차별하여 지면을 구성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를 명확히 짚어 최대한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행정고시에 출제된 불교관련 문제를 소개하였다. 부록에서는 지난 20년간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와 편향성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법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상임부회장과 한국종교교육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공동 저자인 김문수씨는 저자의 아들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다. 현재 불교서적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청소년 관련 분야에 교육자인 아버지와 젊은 생각을 지닌 아들이 합심했다. 단순한 교과서 소개 이상으로, 올바른 불교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초중고 교과서 시장의 개척 도서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영화속에 찾은 불교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
김호성 지음| 정우서적 펴냄 /1만 원

소설읽기? 영화보기? 불교경전 읽기와 다르지 않다!

22년간 저술 활동을 펼쳐온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불교와 소설 그리고 영화의 3자 대면을 시도했다. 스스로를 '잡(雜)'의 세계 즉 화엄의 세계에 살고 있노라 소개하면서 불교라는 브랜드의 안경을 쓰고, 공화(空華) 만발한 소설과 영화를 바라본다.

불교와 소설 그리고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간을 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삶의 주체이자 오온(五蘊)의 가화합에 의한 연기적 산물인 인간. '바로 당신'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꿈과 현실의 문턱'이라는 부제에서 보이듯 필자는 성스러움과 속(俗)의 경계를 소설과 영화로써 넘나들며 결국 이들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나열이 '둘이 아님[不二]'을 강조한다.

상처의 치유와 부처란 무엇인가를 논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보자.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랑의 서사 방식에 대해 보조 지눌 스님의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에 의한 업장 소멸을 거론한다. 상처는 원리적인 참회를 넘어 현실적인 참회로서 도달해야만 치유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밀양'은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한계를 드러낸 영화라고 말한다.

필자는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오면서, 내 가슴속에 남은 여운을 사유하는 과정 속에 숙태 된 그 무엇을 불교로써 밖으로 풀어내 보았다"고 말한다. 학자 김호성 교수가 필자로서 변주하는 일상의 화두다. 모두가 느끼는 생각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통념이라면, 이 책에서 불교가 말하는 소설과 영화는 어렵다고 느껴온 불교가 일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불교학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독백도 이 책을 신선하게 하는 매력이 된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혹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과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종교와 어우러진 작가의 정신세계

"우리가 세속의 질곡에 갇혀 작은 것 하나 더 쥐려고 아우성 거리고 있는 동안에 천 년 내내 불어 오는 바람이 사찰의 풍경 소리를 흔들고 간다." ('사찰에 부는 천년의 바람' 마지막 구절)



산중일기
최인호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1만 1800원

소설가 최인호.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소설은 통속과 탈속을 넘나들며 '현대'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을 적셔 왔다. <길 없는 길>의 경우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일생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정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이어 내놓은 <상도> <해신> <유림> 등의 대작들도 우리의 과거 속에서 발견한 가치들을 현실로 접목 시키는 길을 드러내 보였다.

그는 종교를 벗어난 사람같이 비친다. 그의 개인사와 개인적인 가치관을 작가정신에 철저하게 융합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어떤 종교인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온전하게 종교적 진리에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종교적 대상은 매우 폭이 넓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아들, 딸, 하느님과 부처님, 신부님과 수녀님, 목사님, 스님 그리고 자연까지.

<산중일기>도 그러한 작가 최인호의 내면이 잘 투영된 산문들로 가득하다. 제목을 보면 산사에 기거하며 세상사를 정리한 것 같은 선입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다소 종교성이 부여된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결론이 작가의 소명임을 드러낸다.

주로 산사의 풍경을 담은 백종하씨의 사진이 시원스레 장엄된 책의 내용도 사진처럼 담박하다. 물상을 예찬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을 비관하거나 탐닉하는 것도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다운 관조와 사색의 폭이 웅숭깊다는 얘기다.

작가 최인호의 정신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가족과 자연과 영적인 스승들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조절할 수 있는 자기수행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임연태 기자

일상에 묻혀진 금강경 일깨우기



한 나무 아래 사흘을 머물지 않는다
현몽 글 그림|이가서 펴냄 |1만 2000원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의 모델이었던 현몽 스님이 <금강경>을 새롭게 해석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간 삶의 실상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산골에 묻혀 지내다가 불현 듯 찾아 온 것이다. <금강경>이라는 '텅 빈 가르침'을 시퍼런 칼처럼 차고, 그러나 현몽 스님은 <금강경>을 통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에 묻혀 있는 <금강경>을 일깨운다. 책을 꾸민 그림들도 마찬가지다.

시인 황청원씨는 이 책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현몽 스님의 금강경 읽기는 파격과 강렬함이 함께 스민다. 어떤 이는 당혹해 하거나 놀라움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마주봄이며 접속임을 깨달을 것이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도 같은 목소리다. "역시 파격이고 신선함이다. 현몽 스님, 앞으로도 조금 더 살아서 그 새벽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일상의 '의지처'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무한 펴냄|1만3500원

좋은 말씀에는 힘이 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경전 가운데 그런 힘이 강한 구절들을 골라 놓고 일상에서 겪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 가르침에 대한 소화를 돕는다. 짧지만 여운이 강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큰 의지처가 아니겠는가? 법상 스님은 바로 그런 의지처를 한 권의 책으로 제시한다. 시적인 운율의 간결한 구절들이 내포하는 삶의 지혜를 소화효소처럼 제공한다.

발로 뛰고 가슴으로 기록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손연숙 지음
이른아침 펴냄|2만5000원

'현장에서 쓴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우리나라의 차 문화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서다. 딱딱한 글의 상적인 언어로 나열된 보고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해 온 차 문화를 따뜻한 눈길로 살핀 보고서. 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답사이고 연구이며 글쓰기인 것이다. 영동지역에서 경남의 하동까지. 전국 곳곳에 묻혀 있는 차 문화의 진면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느끼고 고증하여 하나의 서사를 이루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행복한 미소	성전	거미
9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10	술 취한 꼬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이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 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부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1삼하)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창립 100주년 되는 그날을 위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민족사**

‘민족사’. 불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중 민족사에서 나온 책 한 번 읽어보지 않은 독자가 있을까. 30년에 달하는 세월, 은근하게 길러진 저력을 바탕으로 불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족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윤창화 사장이다. 저자로서, 출판인으로서 왕성하게 불교를 알리고 있는 윤 사장은 민족사 못지않게 불교계에서 유명한 존재다. 출판인으로의 자존심과 꼿꼿함, 소신을 굽히지 않는 윤 사장으로부터 민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만해 스님 산문집 읽고 민족의식 확립
“교양을 주지 않는 책은 좋은책 아니다”

현재 민족사에는 윤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총 450종의 책을 발간했고 한 해 15종 이상 출간하는 출판사 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사는 역사와 전통, 윤 사장의 소신과 철학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규모로 판단할 만한 곳이 아님은 분명하다.

민족사는 1980년 5월 태어났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던 때, 민족사는 불서출판계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민족사’가 불서출판사 이름 같진 않지요. 처음에는 소위 ‘빨간 책(금서)’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차렸거든요. 민족사는 불교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로 첫 발을 뗐습니다.”

윤 사장이 출판사 이름에 ‘민족’을 붙여야 했던 이유는 또 있다. 당시 윤 사장의 마음에는 만해 스님이 1930년대에 쓴 산문 속 민족의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만해 스님을 존경했던 윤 사장은 불교에서도 사회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만든 책도 <불교의 사회사상>(여익구 저)이었다. 하지만 불교사회과학 서적은 출간되는 족족 ‘판매금지’ 조치됐다.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 윤 사장에게 방향 전환이 시급했다.

“필자 발굴이 잘 됐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고 나갔을 텐데, 당시에는 글 쓰는 사람들도 걸핏하면 잡혀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회과학 서적은 접고 ‘장기적 안목을 갖자’고 결심했지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는 ‘지식불교’에 뜻을 두게 됐다. 그렇게 길을 정하니 개론서 이상의 전문서적들이 출간돼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 때부터 ‘학술총서’와 ‘깨달음총서’ 등이 기획됐다. 민족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윤 사장은 출판인으로서의 생각이 확고하다. 출판도 자신의 소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손대지 않는다. 스스로 이를 두고 ‘별스럽다’고 표현한다.

“불서출판인은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불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교양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어긋나는 출판물을 만들면 스스로 무척 허무해집니다.”

그는 “교양을 주지 않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그런 윤 사장이 출판인으로서 특히 참을 수 없어 하는 부분은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선행되지 않은 현재 불교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자들이 불자다운 소양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불교를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도 한글로 받아들이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죠.”

윤 사장은 자신이 지은 책 <내 마음을 치다>에서 불교용어 정리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불교를 설명할 때 자주쓰이는 ‘번뇌’ ‘화두’ ‘선’ ‘만다라’ ‘걸망’ 등 108개의 단어를 뽑아 위트와 감성을 섞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약 5년 전부터 사전을 찾아가며 불교 용어를 조사하고 생활 속에서 찰나에 떠오르는 반짝이는 언어를 메모해 왔던 그의 습관과 의지가 녹아있다. 우리말로 가슴에 ‘탁’ 하고 와 닿게 하는 것. 그는 그것이 진정으로 불교를 알리는 길이라 여긴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윤 사장은 요즘 ‘왕초보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왕초보 시리즈’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불자들에게 전문가 필진이 알기 쉽게 불교를 설명하는 책들이다. 쉬운 입문서를 원했던 독자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귀띔이다. 총 14권 출판을 목표로 제작 중인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와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가 이미 출간돼 있다. 5월 중에는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도 만나볼 수 있다. 내년까지 ‘화엄경 박사’, ‘법화경 박사’ 등 나머지 왕초보 시리즈를 모두 출간할 계획이다.

현재를 봤더니 슬슬 민족사의 ‘내일’이 궁금해진다. 민족사는 미래에 어떤 출판사로 자리하고 있을까.

“저는 민족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와 무게가 출판사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100주년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족사가 보여준 길, 끊임없이 불자들의 의식을 두드려왔던 정신을 생각한다면 ‘100년 된 민족사’의 모습은 어렵잖게 떠오른다. 시대와 소통하면서도 불교정신, 불서 출판의 기본과 철학을 지켜나가는 소신 있는 출판사 말이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민족사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지은이	순위	도서명	지은이
1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정성본	11	한글화엄경(전 12권)	무비 스님
2	무아 윤회 문제의 연구	윤호진	1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3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김광식	1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4	화엄경사상 연구	이도업	14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김윤수
5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김상현	15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성법
6	대승경전과 선	김호성	16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 100답	정승석
7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	윤영해	17	동안거	현성
8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 · 하	이범교	18	라마야나	주해신 역
9	한국불교 100년 사진집	김광식 · 윤창화	19	마하바라타	주해신 역
10	벽암록 완역(전 5권)	석지현 역	20	작은책 시리즈(총 23종)	-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수타니파타 김운학 역 | 범우사 | 1983

(주)사이언테크 이기종 대표

“보라! 진리는 내 앞에 있다”



나는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마흔 살이 넘도록 절에 다녀본 적도 없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집단의 ‘개인 신상명세서’의 종교란에 나는 ‘무교 혹은 불교’라고 적었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본 불교 관련 서적은 ‘부처님의 첫 말씀’이라는 부제가 붙은 <수타니파타>였다. 내 나이 스무 살 때 그 책을 샀다. <학원(學園)>이라는 잡지에 실린 ‘종이접기’라는 이하석 시인의 시에서 나는 <수타니파타>라는 책 제목을 처음으로 보았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가. 나는 <수타니파타>가 불경인 줄도 모르고 그 책을 샀다.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는 스무 살의 나에게는 실로 한자로 적힌 불경은 부담이 갔다. 대단한 발심을 하기 전에 불교 경전을 읽고 외겠다고 달려들기 힘들다. 그렇다고 내가 종교에, 삶과 죽음에 관심이 없었나?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당시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외겠다고 달려들었다.

나는 이십 대 초반에 이 경전을 여러 차례 읽었다. 마음이 힘겨울 때 나는 ‘부처님의 첫 말씀’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누구에게 설명을 따로 들은 것도 아니었고,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까지는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내 나름의 이해를 했다.

-정해진 운명은 있는가? 이십 대 초반 사내의 이 질문에 부처님은 답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농부가 아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이고, 수행을 하면 바라문이다.”

-고기는 정말 먹지 말아야 하나?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힘겨울때 ‘부처님 말씀’에서 위안 받아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읽었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첫 말씀을, 반복되는 듯하고 노래 부르는 듯한 그 가르침을 읽고 있으면, 내 마음은 금세 평화로워졌다. 나는 웃었다. 부처님은 내 옆에 앉아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욕심을 토닥거려 가라앉혀 주었다.

그 후 누가 내게 불경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나는 <수타니파타>를 권하고 있다. 아름답고 따듯하게 부처님이 당신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타 맞은 편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www.insammaket.com

인삼마켓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e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창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

아름다운 연꽃을 분양합니다

우리나라 **연꽃 백연, 홍연, 자완연과 흰색 어리연과, 한대연꽃 수련과 온대 연꽃 등**을 저렴한 가격에 특별 분양하오니 많은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대연꽃과 가시연꽃등 희귀연꽃은 6월부터 분양하옵고, 연꽃을 키우는 방법과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덕왕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백연차 같이 판매합니다. (심는 적기는 5월달 이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연꽃관람은 6.7.8.9월달에 덕왕사에 오시면 약 200가지 이상 연꽃을 볼수가 있사오니 많이 관람하여 주시고 단체 관람시에는 사전에 예약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포기 미만 주문시에는 택배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100포기 이상 주문시에는 특별히 현장까지 배달하여 드리고 심고 키우는 방법을 지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꽃 피는절 덕왕사

분 양 문 의

덕인행 총무님 054)854-3855

H·P 010-4154-9095

◆온라인 계좌번호 : 농 협 707107-51-019061
우체국 703439-02-214685(예금주 :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만승 합장

봉축 부처님오신날



국제 육조정맥선원 대웅전

초파일 법회 안내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 2008년 5월 12일(음 4월 초파일) 오전 11시
장소 : 국제 육조정맥선원
전화 : 031-531-8805 / 011-9885-8805
교통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참조
광릉내 하차 전화주시면 차량 운행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발명특허 10-0806337호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지압 · 동 깔창



가격 15,000원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운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제17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

본 재단 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 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 하고 중앙 승가대학 학인 스님 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 금을 지급하는 공익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역경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 상 일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 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 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 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08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7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 수 비 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봉 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고대 '卍' 의미는 현대의 '웰빙'

해외불교칼럼



불교를 상징하는 卍자는 뜻대로 잘되길 바라는 의미와 화합·원융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은 卍자를 응용한 상품.

언젠가 일본을 거쳐 서울에 온 유럽의 배낭여행 총각이 농담 삼아 들려준 얘기다.

일본에서 관광안내지도를 펼쳐보다 여기저기 나치의 상징인 卍이 나타나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불교사찰의 표시더라는 좀 썰렁한 우스개였다. 그런데 그보다 심히 웃겨준 경우도 있다. 어느 분이 어디서 두뇌세척을 당한 건지, '불교와 나치가 똑같은 악의 상징을 쓰는 것만 봐도 불교의 정체가 드러난다'며 열을 올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거기에 눈먼 믿음마저 겹치면 실로 공포 그 자체다. 그럼 늘 가득 채워지고도 비어있는 듯 차분하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종교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체로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자면 먼저 추구하는 교의(doctrine)가 선행되고, 이를 파급 전달하기에 적절한 의식(ritual)과 집회(congregation)가 형성된다. 즉, '생각과 말'이 '행위'로 이어지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무리'가 생겨난다. 또 그에 즈음하여 그 믿음의 표상이자, 연대의식과 자긍심을 유도하는 고유적 상징(symbol)이 나타난다. 그 표현방식은 문신, 분장, 피어싱, 할례 등 신체적 외관변형, 별도의 호칭이나 은어(隱語), 춤과 무드라 등 특수동작, 주문과 만트라 등 음성과 음향, 그리고 부적이나 의상, 기치(旗幟), 문양(紋樣), 만다라 등 매우 다양하다. 일종의 암호이자 의사전달 기호인 이러한 상징들은 구성원 간의 묵시적 상호교신의 방식이기도 하다.

옛적부터 불교, 사찰 등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卍 문양은 약 3000 년 전 인류문명의 사대 발상지 중 두 곳인 현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굴된 목걸이 등에서 최초의 흔적을 보인다. 그 후 바빌론, 아시리아 등 현 중동일대에선 점차 사라지고 유라시아 일대에 등장한다. 벨기에의 브뤼셀자유대학교수인 고블레 달비예야 백작은 1891년 <상징의 이동>이란 종교고고학 저서에서 卍과 卐 등 여러 상징물의 이동경로에 관한 탐구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문양은 본디 서로 의미상 차이가 없으며 공통적인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스와스티카(Swastika 또는 Svastika, Suastika)다. su는 좋다(good), 그리고 asti 또는 vasti, 즉 존재함(to be)이 합쳐지고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여성형 접미어인 ka가 더해진 것이다.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는 좋은 삶이란 뜻의 웰빙(Well-Being)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길상여의(吉祥如意), 즉 '뜻대로 잘 되어지시라'로 해석된다. 동시에 화합과 원융의 의미도 지니는 卍은 인도의 토착신앙인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불교로 이어진다. 그리고 '동방전법'의 길을 따라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다.

이는 또 다른 불교 상징인 법륜(法輪)이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된 '서방전법'의 길을 따라 지중해연안의 현 그리스, 발칸반도, 이집트, 이스라엘까지 이른 사실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卍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번개, 회오리, 소용돌이 등 불가항력적 자연현상, 또 중국 한(漢)나라 때는 혜성을 상징하며 일본에선 卐을 만지(萬字)라 하여 위대함과 장엄함을 뜻한다. 卍은 기독교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북미대륙에 살던 원주민, 이른바 인디언의 일부 부족도 사용하며, 2차 세계대전 이전엔 미국의 육군항공대 휘장, 제45보병사단의 견장, 그리고 여성용 고급 액세서리에도 행운의 상징으로 쓰인다.

갈고리의 네 끝머리가 시계방향인 卐은 기원전 7백년 경 현 터키북서부의 트로이, 그리스 등에서 도자기, 화폐, 투구, 복식의 기하학적 실용 디자인으로 널리 활용된다. 그리스에선 그리스문자의 셋째 글자인 감마(Γ) 4개가 겹쳤다 하여 감마디온, 라틴제국에선 크룩스 감마타, 즉 감마십자문양이라 부른다.

또 네 개의 팔다리를 굽히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닮은 이 문양은 테트라스켈리온, 즉 행운의 전령(傳令)을 상징한다. 특정한 신앙상징물들은 상호배타적이어서 동일한 문화권에서 함께 사용될 수 없으나, 고대그리스에서는 태양, 최고신, 생명력의 상징으로 卍과 十이 함께 쓰인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절대유일신의 숭배사상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달비예야 교수의 주장이다. 성휴 스님

참조 : The Migration of Symbols, Swastika : It's time to learn the difference 등

"동양무도로 몸과 마음 단련"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❸

17세에 일본으로 무술 유학을 떠난 스티븐 시걸 도반은 합기도 수련 초기의 개인코치이자 여자친구인 후지타니 미야코(藤谷美也子)와 함께 오사카에 머문다. 거기서 그는 영어강사를 하며 십여 년의 강훈련 끝에 아이키도(合氣道) 7단까지 이른다. 뿐만 아니라, 가라테(空手), 주도(柔道), 켄도(劍道) 등의 달인이 되며, 서양인으로선 최초로 일본에서 합기도 도장의 관장이 된다.

서구인들은 흔히 불교와 더불어 동양무도를 일종의 생활철학으로 여긴다. 몸과 마음과 넋이 함께 어우르는 동양무도는 폭력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불교 등 비폭력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상대의 폭력에 대한 견제와 사전차단이 목적인 동양무도에선 유연한 방어가 곧 강력한 공격이 되며, 더 나아가 상대방의 공격의지마저 꺾는다. 그런 까닭에, 먼저 치고 드는 선제공격 위주의 서양격투기와 상당히 다르다. 후일 텐신 합기도관장이 된 애인 후지타니 미야코 6단과의 첫 번째 결혼으로 남매를 둔 스티븐 시걸도 반은 지금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종 일본어로 할만치 유창하다.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15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무술도장을 새로 열고 저명인사들의 개인경호사업도 벌인다.

그 자신이 직접 보디가드를 맡아 해준 인사들 가운데 하나인 마이클 오비츠의 주선으로 그는 워너브라더스와 무술영화제작의 계약을 맺는다. 그가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과 함께 만든 최초의 영화로 1988년 개봉된 '무법천지'는 통상적인 경찰수사극의 줄거리지만 주인공의 캐릭터를 강조함으로써 초고감도 액션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의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는 순식간에 액션물 애호가들 사이에 대 스타로 떠오른다. 그 후속으로 '살해방식'과 '포위피습', 그리고 '전격' '초주검' 등 이름만으로도 으스스한 액션물에서 굵직한 연기자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느닷없이 '침묵의 요새'란 알라스카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감독으로 일대 변신을 한다. 그런데 그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행적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을 자아내고 때론 심심찮게 이런저런 입방아에도 오른다. 1997년 11월 미국의 어느 유수 불교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침술 등 동양의학의 고급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티베트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그는 일본이 아닌 아시아의 모 지역에 있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진, 그리고 중국군에 의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티베트 승려들의 치료를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 정황을 헤아려볼 때 한때 그가 인도의 북부지역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MIT 불교학생회 다양한 전법활동

MIT 불교학생회 다양한 전법활동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티베트난민에 대한 의료행위를 계기로 모종의 비밀공작의 지도책을 떠맡았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안가와 아지트, 비밀연락망, 보급 커넥션 등도 설립했다고 하니 누구든 얼추 짐작이 가는 일을 했었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밖에 미 중앙정보국과의 공작연루설 등을 둘러싼 불투명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딱 잡아떼며 시종일관 언급을 회피한다. 또한 그가 '티베트 자유 투사'라는 이름의 무장투쟁단체를 이끌고 투쟁했다는 게릴라 작전에 대한 무수한 억측에도 입을 굳게 닫는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1997년에 이르러서야 '예전에 어느 종교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적이 있긴 하다'는 답변 정도로 말꼬리를 접는다.

언제 어디서든 진실은 하나지만 해석마저 꼭 그렇지는 않다. 그의 야릇한 행적이 젊은 날의 객기였는지, 비정규전의 소모품 역할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액션스타로서 그의 몸값을 '천하무적 람보'처럼 부풀리려는 할리우드 프로모터들의 뻥튀기였을지도 모른다. 성휴 스님

中·美 호전적 모험주의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 최강국은 인도

1960년대 티베트에서 수계한 최초의 미국인 라마이자 작가인 로버트 서먼교수는 지난 4월 14일 "중국과 미국이 세계전역에서 지원하는 호전적 모험주의(militant adventurism)에 대해 최강의 도덕적 억제력을 지닌 국가는 인도"라고 단언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불자인 여배우 우마 서먼의 부친인 그는 '티베트, 휴머니티를 위한 필수적 평화지대'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양국의 호전적 모험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인도'라고 강조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인도 티베트 연구소의 창립자 겸 지도교수인 그는 인도와 티베트의 특별한 역사적 교류와 유대를 환기시키며, 티베트의 자치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IANS

투룩람툭바츠마 선학원 개원 법회

4월 21일 베트남의 중부 투아티엔후에 지역의 불교 승가종은 수천 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록 지역에 미화 약 90만 달러를 들여 신축한 투룩람툭바츠마 선학원의 개원봉축대법회를 개최했다.

원장 틱탐한 스님은 동 선학원의 개원이 베트남민족정신과 불교를 하나로 묶는 단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출처: VNS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Oh, the taste of the sea, so divine!
Forgive me, Lord Buddha.

이 거룩한 바다의 맛이여!
부처님, 용서하소서.

A renowned Japanese master with his mouth watering at a dish of octopus sashimi couldn't stand the fresh smell of it any longer. Eventually he picked a piece of it into his mouth and sang, "Octopus! Lots of arms, just like Kanon the Goddess; Sacrificed for me, garnished with citron, I revere it so! Oh, the taste of the sea, so divine! Forgive me, Lord Buddha, this is another precept I just cannot keep."

옛 일본의 고명한 선사 한 분이 문어회 요리에 줄곧 군침만 삼키다 그 상큼한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한 점을 집어 입에 털어 넣고서 노래를 한 가락 읊었다. "문어야, 너는 마치 관음보살님처럼 팔도 많구나. 귤껍질로 고명을 얹어 나를 위해 희생을 하니 참으로 존경스럽도다! 아, 이 거룩한 바다의 맛이여! 부처님, 용서하소서. 이 또한 제가 지키지 못할 계율이옵니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화재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 국민은행 562101-01-033348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오시는 길 ▷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장복산 삼 밀 사

주지 동 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대백동 산 75번지
TEL 주지실 055)544-5962
종무소 055)542-6531

대한불교 백련암

주지 진 성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 굴화리 백천 505-9
TEL 052)221-0092 / 011-9318-3230

송 림 가 든

대표 윤태자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TEL 055)355-4893 016-833-9416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관음기도 도량 도 인 암

주 지 도 인
신도회장 전수현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
TEL 011-846-1682

대한불교해동종
법 령 사

주지 도 명
신도일동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외부리 564
TEL 055)533-1350/011-9597-0075

부 용 불 교 사

불상,탱화,불교서적,각종연등,농악기일절

대표 김태선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017-10번지
TEL 055)352-3756 / 011-859-3756
FAX 055)353-3758

한국불교태고 종충북교구 종무원 종회의장
보 현 사



주지 상명
사부대중일동

■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 52-28
TEL 043)532-6178 / FAX 043)534-5303

대한불교조계종
화 장 사



주지 무진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산 29-4
TEL 043)255-5758
http://www.hwajangsa.or.kr

한국불교태고종
신 흥 사

주지 두 현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57번지
TEL 043)256-1247

청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부모산 연 화 사
(전통사찰 77호)

주지 보 안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장군산 영 평 사

주지 환 성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441번지
TEL 041)857-1854 / FAX 041)854-1855

수덕사 대전 포교도량
정 수 사

주지 영 보
사부대중일동

■ 대전 중구 대흥동 452-401
TEL 042)222-1159

대한불교조계종
청동대불 봉안도량 각 원 사

주 지 신법인

각원사불교대학

학 장 서대원 합장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71-3
TEL 041)561-3545
FAX 041)556-1425
http://gak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원 동 승 복 사

정옥화

스님옷 일절 맞춤

■ 대전 동구 원동 60-1
TEL 042)253-0525

21C 불교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생활불교 조계종단
(사) 生 活 佛 敎 曹 溪 宗

總務院長 法雨

元老院長 慧覺 宗會議長 慧岩 監査院長 道林 護法院長 慧泉
教育院長 如林 布教院長 眼淨 文化院長 道炅 事務局長 如炅

*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행자 사찰등록)를 모십니다.
* 사찰창건시 행정업무 기본의식 포교방편 도와 드립니다.
* 각종의식(천도재 점안식.. 등) 여법하게 봉행해 드립니다.

生活佛教 曹溪宗 總務院 TEL 02)3663-8416, 1566-8426

미래를 여는 선지식 도량 성거산 보명사
bomyungsa.org
53 선지식 초청대법회

보 명 사 TEL 541)522-3364
www.bomyungsa.org

한가지 소원성취 기도도량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주지 향 적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갓바위)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선본사)
053)851-1869(갓바위)
FAX 053)853-7537

홈페이지 www.seonbon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천 마 산 중 화 사



주지 현 구
대중일동
시민선방

중화사에서 범종치고 소원성취하세요.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는 5월 12일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불기2552년)을 맞아 군민초청 범종 타종식을 한다. 중화사는 범종과 선방 '무향선원' 의 불사를 마쳐 전국 제일의 가람이 형성됐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부처님오신날에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범종을 군민에게 개방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소원성취를 하도록 3번의 범종을 타종하도록 한다. 현구 스님은 "3년전 중화사 주지로 부임하여 불사를 시작하였다"며 "전년고찰 중화사 중창불사를 마치고 많은 불자들이 중화사를 찾아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 에 참배하고 참선기도 와 청동범종의 소리를 듣고 일시에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28-1 TEL 043)742-2057

“不死의 가르침을 펴리라”



함께가요~ 강의실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⑤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 황순일(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4월 30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오늘 강의 범위는 고타마 붓다의 36세.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에서 사리뿟다와 목갈라나의 불교귀의까지인 초전법륜기입니다. 불교 텍스트에 가장 자세하게 기술되고 거론되는 시기입니다. 붓다 36세에서 37세의 연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바라나시(Varbnasi)의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 설법.
- 야사(Yasa)의 출가.
- 깟사파(Kassapa) 삼형제의 교화.
- 라자가하(Rajagaha)에서 빔비사라왕의 만남.
- 죽림정사(Valuvana)를 희사 받음.
- 사리뿟따(Sariputta)와 목갈라나(Moggallana)의 귀의.

이 부분은 율장(律藏) 대품(大品)의 시작에 나옵니다. 율장은 한문 번역본만 4종류 이상이고, 티벳본과 빠알리본이 남아있어 비교 대조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해탈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설법을 주저합니다. 깊고 오묘한 진리를 일반인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범천이 나타나 붓다를 설득하며, 설법을 권청합니다. 붓다는 깨달은 진리를 설법하기로 결심하고 명상을 배운 두 스승 ‘알라라깔라마’와 라마의 아들 ‘웃따까라마뿟따’를 떠올립니다. 9차제정(九次第定) 중에 무색계 4선정(四禪定)에 해당되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공무변처, 식무변처의 경지에 오른 명상 수행자들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천안통을 열어 두 스승을 관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붓다는 전정각산에서 함께 고행했던 다섯 수행자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바라나시 샤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머무는 바라나시로 가는 길에 붓다는 숙명론자인 우빠까(Upaka)를 만납니다. 그는 붓다의 뛰어난 모습을 보고 붓다의 스승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붓다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이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더러움도 없다. 모든 것을 버렸으며 끊임없는 갈망의 소멸을 통해 자유로워졌다. 스스로 알 수 있었으니 그 누구를 따르란 말인가? 홀로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적정에 이르러 번뇌의 소멸을 얻었다. 나는 가르침의 법륜을 굴리기 위해, 까시의 마을 바라나시로 간다. 무지한 이 세상에 불사(不死)의 북을 울리리라.” 율장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게송입니다. 하지만 우빠까는 고개를 흔들며 “아마도 그렇겠군요”하고 붓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붓다의 설법이 실패한 에피소드입니다.

제일 먼저 붓다의 신도가 된 이들은 웃따카 지역에서 라자가하 지역으로 향하던 상인 띠뿌샤와 발리까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환희를 즐기고 계신 붓다의 풍모에 반합니다. 붓다는 이들에게 최초의 공양을 받습니다. 혹은 사천왕에게 최초의 공양을 발우에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화는 이 상인들의 이야기가 간다라 지방으로까지 전해져서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인 ‘하다’에 영향을 줬다고 전해집니다. 중앙에는 붓다상을 모시고 좌우에는 헤라클레스와 여신이 공양물을 올리는 형상이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문헌입니다.

붓다는 녹야원에 이르러 다섯 비구를 만납니다. 붓다가 다가오자 그 위풍에 매료되어 예전과 같이 극진한 예의를 갖춥니다. 붓다는 “비구들이여. 따타가따(Tathagata)에게 ‘벗이여’라고 부르지 말라! 따타가따는 ‘존경받을만한 분(arahant)’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라고 게송을 읊습니다. <초전법륜경>에 의하면 붓다는 다섯 비구에게 쾌락과 고행이란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택할 것을 조언하면서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를 설합니다.

괴로움(dukkha)에 대한 진리란, 다섯 가지의 윤회로 이끄는 연료로써의 집합체(五取蘊)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생성(samudaya)이란, 끊임없는 갈망이 이생에서 저생으로 이끌고, 탐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며, 그러한 탐욕을 여기저기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란 현재의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상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nirodha)이란, 욕망의 완전한 소멸을 통하여 끊임없는 갈망이 소멸됨을 말합니다.

‘초전법륜’ 이후 많은 수행자 국왕 등 귀의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magga)이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길로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집중, 올바른 명상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은 각각 계율과 명상 그리고 지혜로 구분되며 불교적인 실천관을 구성합니다.

일반인의 출가로서 먼저 야사(Yasa)에게 주목합니다.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야사는 붓다를 만납니다. 붓다는 야사에게 차제설법을 행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돕고, 계율을 지키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간결한 가르침을 설합니다. 감각적 욕망의 무용함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붓다는 야사에게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를 설합니다.

야사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생성되는 모든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라는 맑은 직관을 얻고 붓다의 제자가 됩니다. 뒤를 이어 야사의 아버지는 우바새, 야사의 어머니는 우바이가 됩니다. 야사의 출가는 신흥 상업도시인 바라나시에서 상인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식의 출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모 및 부인들의 애환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붓다의 차제설법을 통해 상대방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여 대중적인 포교에 성공을 거둔 첫 케이스가 됩니다.

빔비사라왕의 만남에는 여래의 10호가 등장합니다. “실로 존귀한 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며, 지혜와 행위를 갖춘 분이고, 열반에 드신 분이며, 세상을 아는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며, 사람을 잘 이끄는 분이고,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으신 분이다.”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의 귀의를 통해 불교 교단은 죽림정사라고 하는 굳건한 거처를 마가다국의 수도 한 복판에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빔비사라왕의 나이는 31세였으므로, 불교교단은 그의 처세 하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귀의도 중요한 초전법륜의 행적입니다.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는 산자야 벨라티붓따라는 자유주의 사상가가 자신의 제자를 거느린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진리란 있는 그대로 인식되거나 서술되기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을 가르치는 그에게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라는 유능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둘 중의 한 사람이 먼저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라자가하에서 탁발을 하던 어느 날 사리뿟따는 다섯 비구 중의 한 명인 앗사지(Assaji)를 보고 고귀한 풍체에 이끌려 누가 그의 스승인지 묻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이 샤캬족의 유행자라고 답하자 사리뿟따는 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앗사지는 답합니다. “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 여래는 그 원인을 설명하셨네. 그들의 소멸에 대해서도 위대한 유행자는 설명하였다네.”

사리뿟따는 앗사지의 게송을 듣고, ‘생성되는 모든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불교의 이치를 깨닫고, 친구 목갈라나와 함께 자신들을 따르는 250여 제자들과 불교에 귀의합니다.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 귀의는 빔비사라왕의 귀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불교 교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Tip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대중강좌는 3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 문의 및 접수 : 불교인재개발원 (02)735-242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수행과 참여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200만 부산 불자님들의 신행과 수행을 책임질
21세기 녹야원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가
여래의 전법사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회 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명예회장 정금강행, 하도명화
사무총장 박성미

부 설
· 부산불교전문강원
· 로터스불교대학
·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 부산불교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TEL. 051)853-2021, 853-8539
FAX. 051)853-2036

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상임부회장 이달수
부 회 장 조재원, 지호경, 이근철
임정웅, 한기승, 배상진
신현구,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조용진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부총무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51)818-9914 FAX. 051)818-9916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 제
분원장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051)809-0926 FAX.803-0188

불교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설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터 ▪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용호어린이집 ▪용당어린이집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 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 장 서은해

TEL.051)628-6737 FAX.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단옹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055)932-5662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 야 원

(부설)
반야불교교양대학

주 지 목 종

신 도 회 회 장 최중식
주간동문회 아향진 회장 성유분
야간동문회 진사실 회장 김인길
거 사 림 회 회 장 최중식
청 년 회 회 장 이성광
참마음 간병사회 회장 허미경
소리공양합창단 단장 유춘심
사 무 량 심 회 장 김인규
삼 생 회 회 장 김정자
대원염불공양회 회장 고소순
법 우 산 악 회 회 장 정해용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7
(영진파스타 8층)
TEL. 051)701-5655
FAX. 051)701-565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 효 봉 사 회
원 효 거 사 회
원 효 합 창 단
선 암 청 년 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전화. 051)803-7573, 7522
팩스.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보건복지부지정

새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감 사 지선, 이경순
총무이사 해암,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성미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 사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0호
TEL.051)853-0429 FAX.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정 여 스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부장 채종현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순화/부장 조수경
- **금 정 노 인 요 양 원** 원장 각우스님/사무국장 김재오
- **금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정만스님/과장 김강임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맹자/부장 김태형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봉스님/부장 김민아
- **부 산 보 현 의 집** 원장 이기표/총무 이영숙
-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법산스님/소장 김금순
-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소장 법산스님/국장 정현숙
-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사장 혜총스님/소장 김영곤
- **부산시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소장 윤기혁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소장 김민성
-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 **사회복지시설 컨넷하우스** 이사장 혜총스님/원장 채인숙
- **상 락 정 배 산 실 버 빌** 원장 법산스님/사무국장 최종필
- **선양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김수현/실장 허재원
- **선 재 어 린 이 집** 이사장 원허스님/원장 이명숙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박용하/국장 고미정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이사장 혜총스님/소장 김영곤
- **양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법산스님/국장 장문숙
- **영 도 구 노 인 복 지 관** 관장 선공스님/부장 박경란
- **영 주 암 어 린 이 집** 이사장 혜총스님/원장 양금선
- **용 당 어 린 이 집** 이사장 혜총스님/원장 배지미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춘성/부장 서은해
- **하 단 어 린 이 집** 이사장 정련스님/원장 김명숙
- **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소장 원허스님/사무국장 이명숙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판숙/부장 이수복

기획조정실장 정순화
사무총장 이춘성 사무국장 조수경

대한불교조계종

비룡산 동명불원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봉축 어울림 한마당
오전 10시 봉축 법요식
체험 한마당
저녁 7시 봉축 점등식
교방전통김해예술단 축하공연

주 지 정 산
신도회장 서정혁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TEL. 051)626-4337
FAX. 051)626-4330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 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북구 호계동 268-6
TEL. 052)293-5550
TEL. 052)293-5540

지장불교근본도량

공 덕 원

http://www.gongdukwon.net

주 지 효 선
신도회장 양반야등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백상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마음 편한 절

용두산 미타선원

회 주 지하 스님

선원장 오경 스님 주 지 하림 스님
선 감 혜명 스님 총 무 도원 스님
사찰음식연구회 홍승 스님 포 교 일담 스님
경진 스님

사부대중일동

선방 하안거결제 방부안내
-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 용상방짜기 : 5월 17일(토)
오후 2시 선열당(禪悅堂)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TEL. 051) 253-8687~8
www.mitaze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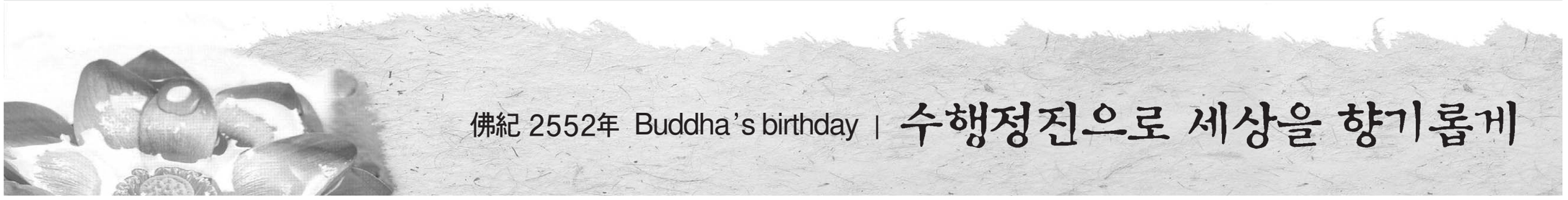
부처님 사랑 행복한 가정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

무척산 모 은 암

주 지 어산 혜수

20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해동제일보은 성취기도도량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산 180번지
TEL. 055)335-9200
www.moeunam.com
moeunam@hanmail.net



동울산 사암 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수도사 초우
관음사 현수
관음사 혜원
용암사 법광
자광사 향공
정각사 해승
동축사 문성
등용사 본명
반야사 노암

사부대중일동

TEL. 052)233-7176, 251-0134

(사)부산불교 지도자포럼

고문단 김재운, 김재진, 박종익 조효식, 최칠관
회 장 설동근
수석부회장 박수관
부회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이윤희, 장남인 허인구
감 사 정원종, 최익두
사무총장 박영근
재무총장 김성규
사무부총장 안병호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클리어마인드 현대북스


돈오선 /월암스님


간화정로 /월암스님


염불선 /덕산스님


둥지속의대화 /효종스님

· 클리어마인드 : (02)2198-515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736호
· 현대북스 : (051)244-1251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7번지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월(음) 보름 ~ 18일 108참회기도<4일간>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TEL.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산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 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 508-4509 FAX. 508-4870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부산불교대학
주 지 정 각
지도법사 청 명
이 구
신도회장 김동열(광운)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051)404-4300,403-4848 FAX.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부설>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암지태
신도회일동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불 광 사

주 지 보 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초연중학교 뒤)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정정자, 이미춘, 박영옥
총 무 하영조, 배복자, 손영순
재 무 서정례, 김정식
감 사 김정숙, 한순정
장학위원장 홍말연(유리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주차장 308호)
TEL.051)817-3168(FAX겸용), 3166
H.P 017)570-3166(회장)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경남포교사단

단장 김재갑
포교사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번지 화엄불교회관 2층
TEL. 051)633-3011 FAX. 633-3012
www.pogyosadan.org

財 團 法 人

一念奬學會

理事長 李大願行
任員一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51) 818-9914 FAX. 818-9916

사회복지법인

보 현 도 량

이사장 정 여
이사 심금조, 여현, 정현, 정만, 경보 서영수, 해도, 정허, 박태규, 최서현
감사 상현, 박창식 사무국장 정득보

· 부설 서동 무료 경로식당 : 051)531-9887
· 부산시니어클럽 운영 : 051)851-2190

■ 부산시 금정구 서1동 302-1885
TEL.051)531-9887 FAX. 531-9888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 정 중 학 교

학교장 현익채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임대영
교직원일동
반야불자회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TEL.051)517-3984 FAX. 517-3982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온 누리를 맑고 향기롭게…

• 대한불교 천태종 •

부산 삼 광 사

주 지 김 영 제

총 무 엄행주 교 무 김도진
재 무 김효성 노 전 박거홍

신도회장 김 석 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 총무위원 김상준 /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 사업위원 김석홍 / 기획위원 송세현 /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 섭외위원 이봉영 / 부녀위원 정옥순 /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삼광사 '부처님 오신 날 전야 대법회 및 기념 법요식'
• 봉축 전야 대법회 –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 봉축 기념 대법회 – 5월 12일 오전 11시

■ 삼광사 정기법회
-일시 : 매월(양력)1, 2일 오전 10시
-장소 : 삼광사 지관전

■ 정기가족 · 청년회법회 : 매월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어린이 · 학생회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TEL. 051)808-7111~5
FAX. 051)803-1332
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영축 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산중원로 초우 덕진
주 지 아산 정우

유 나 노곡 상경
율 주 중산 혜남
강 주 혜엄 우진
율원장 우설 덕문
박물관장 범하
도 감 만성
원 주 각림

총무국장 용담 현기
기획국장 지상
교무국장 진응
재무국장 자명
사회국장 진응
포교국장 양관
호법국장 인오

영축 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전송 : 055)382-7196

봉축특집 불기2522년

선시로 보는 선사들의 天眞한 살림살이



선사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선사의 삶은 그 자체가 선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름만 선사일 뿐이다. 진정한 선사는 호흡지간에도 법을 설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선사들이 내 뱉는 진리의 노래, 선시다. 선사의 선시는 깨달음의 세계가 표출된 지극한 사랑이다. 천지만물에 대한 사랑이고 후학들에 대한 사랑이다. 한국불교의 근대 중흥조 경허 선사 이후 수많은 선사들이 진리의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시를 읊었고 그 커다란 울림은 오늘의 선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여시아문)는 경허 선사에서 고암 선사에 이르는 12명의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통해 그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들여다 본 책이다. 저자는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송준영 시인(계간 시와세계 발행인)이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펴낸 송준영 시인

Q 책의 제목이 뭔가 큰 느낌을 주지만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A '황금털사자'는 선시에 나타나는 '금모사자(金毛獅子)'의 한글 번역입니다. 문헌상 처음 금모사자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당대(唐代)에 어떤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정안에 길조가 아닐 텐데"라는 게송에서 보입니다.

중국 오대산 청량사는 화엄종의 4조 청량국사를 기리어 건립하였는데, 청량국사가 설법할 때에는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란 우리의 본원의 면목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시에 보이는 무한 실상의 표현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이르는 부지(不知)니 불식(不識)이니 불회(不會)의 형상화입니다. 무영탑 토끼뿔 진흙소 돌사람 나무까치 등과 같은 표현이지요. 넓고 크게는 중중무진하게 좌우상하로 중첩되는 말할 수 없는 '화엄법계'를 말합니다. '이것' 역시 거듭거듭 다함이 없이 거듭되는 유일물인, 무일물을 이르는 것이지요. 이놈이 아주 가벼이 웃는 웃음, 너무 가볍고 작아서 보이지 않고 그저 확률적으로만 감지되어지는 그것을 흔히 선시에서는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돌이 웃고 지나가는 흘씨가 웃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황금털사자의 웃음, 이것이야 말로 천하선지식의 간절노파심절(懇切老婆心切)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웃음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살다간 근현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는 자비심의 실상, 이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Q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산마다 산주인인 조사스님들이 계셨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결 같이 그 산사의 부처님을 참예하고 큰스님에게 경례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장들의 간절노파심절의 자취가 풍문으로 구전되다가 뒤섞여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손으로 정리하여 놓겠다는 발원을 했습니다.

Q 선시를 통해서 선사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전문적 안목을 필요로 하고 선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시가 조사들의 가풍을 이해하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을까요?

A 조사님들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 눈을 열어주려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시인은 새로운 미학, 즉 시인이 본 이면의 세계, 피어나는 찰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라면 선장들은 생동하는 우리 삶을, 에너지를 이념이나 되새김 없이 바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이 서로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선시는 우리는 본원지, 대자유지인 실상에서 만나게 하는 데 발현져 있는데 반하여, 시는 시라는 장르에 의해 써진 언어의 아름다움인 미학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시이던 모두 중생을 눈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읊어졌기 때문에 언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나 전승된 문장이냐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선시는 문학의 관심과는 1차적으로 직결된다기보다 선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선시 고유의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월은유, 선시의 무한실상 등의 모순적 어법에 의해 합도 다른 빼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시의 표현법은 이미 1000여년 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수사법은 야방가르드 시나 후기현대주의 시의 중심 사상을 옮기는 수사학과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시를 잘 이해하므로 조사들의 가풍은 물론 실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Q 책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요.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 12분 선사들의 계송-상당법어나 소참법문-직접 쓴 서문이나 서간문-투고 글-대담-선사의 대기대용-선의 법맥-선화로 본 행장-연보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가능한 문도회서 만든 어록이나 법어,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한 근거 있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문도회에서 직접 묶은 어록이 없을 때는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어록들을 찾아 편집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여 구술된 자료들도 문증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Q 선시의 개념과 선가에서 이해되는 현실은 어떤지 쉽게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로 음사되었고, 게와 유사한 본래부터 있던 표현법인 송과 합쳐져 게송으로 불려져 내려온 것입니다. 언제부터 선시라는 이름이 쓰였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의 선시와 선장들이 쓰던 게송과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선사들은 오직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 내용면으로는 한시의 송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곧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취를 읊고 있지요. 바로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선문의 종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은 "풍류가 되지 않는 곳에 오히려 풍류가 있다(不風流處也風流-벽암록)"고 노래하고, "한 말 한 획의 모든 마음이 부처와 조사의 근원에서 흘러 나왔다(片言隻字皆流出佛祖之淵源-종용록)"고 말합니다.

곧 선시는 시라는 장르 범주 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용된 것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선사들 역시 1000여년 계승되며 발달되어온 이 무한보고를 꼭 문학이라는 장르로만 보기보다는 인류가 특히 동양에서 계승 발전시킨 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활활발발하게 휘두르는 진검, 지혜의 검으로 승화시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이번 책은 '한국의 선시 1'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A 지금 2권의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강, 금오, 청담, 탄허, 성철, 서옹 등등의 제 선사들의 선시와 선, 2권 역시 12명의 선사를 기록할까 합니다.

특히 1권에서 자료부족으로 싣지 못했던 혜월 선사에 대해 기록할까 합니다. 혹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월 선사와 혜월 선사의 자료를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이면 제2권이 간행될 것입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중생계와 천상계 차별없는 국토요, 본래가 참된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이 오신날, 이 성스럽고 복된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가득찬 어리석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실천하는 자비의 등이 온누리에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2년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덕 우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호국 불교 묵조선 대한불교 조동종

■ 조동종과 불성

BC. 588년 석가여래(釋迦如來)부처님께서 음12월8일 성도일(成道日)에 스스로 대각(大覺)을 성취하시고 여래의 장을 크게 여시었다. 일체 중생들이 지혜광명을 찾는 길은 마음에 환란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현성공안(現成公案)좌선(坐禪)한 수행으로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본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수행을 여래수행(如來修行) 묵조선(默照禪)이라 한다.

서천 제28祖 보리달마 대선사께서 서기527년 여래선인 묵조선 중국 하남성 등봉현 숭산 소림사 달마종에서 전하여 서천28祖 동토1祖가 된다. 서기859년에 동산양개(洞山良价)대선사가 西天 33祖 東土 6祖 혜능선사께서 주석하시던 조계산(曹溪山)과 동산(洞山)에서 주석 하시었다. 그리하여 두 산의 첫 글자를 따서 조동종(曹洞宗)묵조선(默照禪)이라 칭하니 동산은 서천 第38조 동도 第11조祖 조동(曹洞) 第1祖가 되셨다.

신라말 이엄진철 선사께서 입당(入唐)하여 동산양개의 수제자인 운거도웅 대선사로부터 6년간 묵조수선 끝에 심인사법(心印嗣法) 후 귀국하여 서기 932년 고려 왕건 태조께서 왕사로 모시고 황해도 금산면 내정리 수미산 성지에 광조사(光照寺)를 세우고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조동종 묵조선을 진작하니 이것이 오교(五敎)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수미산문(須彌山門)이라 한다.





종지(宗旨)

석가세존 자각각타(自覺覺他)하신 각행원만(覺行圓滿)의 불입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旨人心), 지관타좌(只管打坐), 즉심시불(卽心是佛),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함을 종지(宗旨)로 한다.

종풍(宗風)

중국 조동정종(曹洞正宗) 제2조 운거도웅 선사로부터 심인사법한 신라의 이엄진철 선사께서 고려태조 5년에 창수하신 수미산문(須彌山門)의 종풍(宗風)을 흠승(欽承)하고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묵조선풍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오탁악세(五濁惡世)를 정화(淨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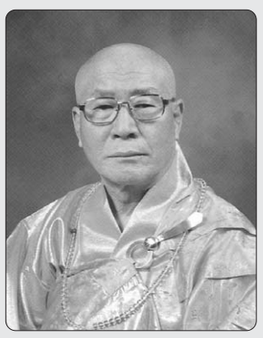
소의경전(所依經典)

금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진공묘유(眞空妙有), 일승사상(一乘思想), 전등법어(傳燈法語), 석두(石頭)의 참동게(參同偈), 동산(洞山)의 정편오위(正編五位), 만송(萬宋)의 종용록(從容錄)으로 하고, 기타 경전연구와 염불지송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불기2552년 불사계획

1) 사단법인 추진
2) 조동종 창사건립불사
3) 행자교육원
4) 전국 조동 산악회 창립





종 정 지명 덕찬
총무원장 대은 덕우



승 정 원 장	달제 지운(덕주)		
승정부원장	법공 덕룡	승정부원장	심월 덕담
승 정 위 원	원봉 덕준	승 정 위 원	혜공 행진
승 정 위 원	청담 덕신	종 회 의 장	해륜 행봉
종회부의장	운성 행만	종회부의장	지원 행조
감 찰 원 장	덕성 행성	교 육 원 장	광혜 행문
호 법 원 장	혜천 행일		
총 무 부 장	법화 행인	감 찰 부 장	혜산 행은
재 무 부 장	법연 행록	포 교 부 장	소원 행오
규 정 부 장	대법 행수	문 화 부 장	월봉 행허
교 무 부 장	해권 일우	기 획 실 장	능일 행능
총 무 국 장	청담 영담	교 무 국 장	행정 행초
사 회 국 장	성운 영묵	규 정 국 장	원광 행광
감 찰 국 장	래수 도현	조 사 국 장	승순 도성
경북교구원장	운학 덕해	강원교구원장	혜각 행서
영동교구원장	혜공 행진	영남교구원장	청담 덕신
충북교구원장	혜성 행산	부산교구원장	도일
남해교구원장	청운 행오	경남서교구원장	법광 행철

종 도 일 동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 02)2091-0408



500나한도 1255 아라한도 그린 오일남씨

"대나한전 건립해 전법 하는게 소원"

공직생활을 마치고 평소 익혀 온 초상화 기법으로 500나한과 1255분의 아라한 등 불교의 성인들을 화폭에 담은 불자가 있어 화제다.

충북 제천에 '오백나한 연구소'를 개설하고 매일 '오백성중청례문'으로 기도를 하며 성인들을 그리는 오일남씨가 그 주인공. 오씨는 퇴직 후 소일삼아 평소 관심 있던 초상화 그리기에 매달렸다. 그러나 일반인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조의 왕이나 단군, 스님 등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송명 스님(지장종 총무원장)에게 받은 <500나한도>(2001년 이화출판사 간행) 도판집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이 진정 그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오씨는 나한기도를 하며 나한도 그리는 일을 수행으로 삼았다.

작업실까지 본격적으로 갖추고 기도와 그림 작업에 몰두한 오씨는 4년 3개월 만에 가로 35㎝ 세로90㎝ 크기의 도판에 500나한을 다 그렸다. 오씨는 "500장의 도판이 집안에 가득 차니까 성취감으로 행복했지만, 다 이루었다는 생각은 다시 더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해 1255분의 아라한까지 그렸다"고 설명했다. 1255분의 아라한은 모두 33개의 도판(가로 180㎝ 세로 110㎝)에 그렸다. 33관음 가운데 한 분을 중앙에 배치하고 나한님을 한 도판 당 36~38분씩 배치한 것. 이 작업도 꾸준한 기도와 병행하며 3년이 걸렸다.

오씨는 33조사와 우리나라의 16국사 부처님 10대 제자 등을 그리며 불교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여생을 바칠 생각이다. "그림 그리며 기도하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오씨는 믿기 어려운 영험담도 들려주었다.

그러나 진정 오씨가 원하는 것은 일신의 복락이 아니다. 많은 분량의 그림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셔지는 것이다. 집안에 모아두는 것보다는 사격을 갖춘 전각에 모셔 기도와 공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오씨는 제천시 수산면의 청풍호반 인근에 1만2000㎡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다. 이제 인연 있는 스님을 만나 '대나한전' 불사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엔 규율부장을 맡았고 해병대에 입대해 헌병 생활을 했으며 경찰관으로 35년을 근무한 오씨는 "늘 오만했던 마음을 나한님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을 그리면서 다스리게 됐다"며 "나한도를 그리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는 즐거움은 개인의 것이지만 대나한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신행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제천/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긍정의 禪을 디자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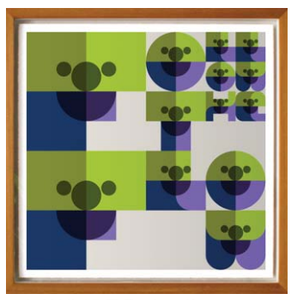
'스마일로그'展 5월 1일부터

선과 디자인의 접점을 모색하고, 다양한 웃음의 형태로 대화하는 작가.

이기섭의 '스마일 로그(smilogue)'전이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더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선과 디자인의 공통점이 '가능한 최소한의 본질을 찾는 점'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웃음을 통한 dialogue 즉 smilogue이다. 간결함과 정제, 비움 그리고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작가는 "불교의 염화미소적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이번 전시 주제를 설명한다. 선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 삶의 화두로 삼을만한 10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 가운데 작품 '흐름을 따라'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느긋하게 흐름을 따르라"고 이야기 한다. 그의 작품에 담긴 몇 가지 스마일로그 코드를 따라가 보자.

-웃음(Smile)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밝게 웃는다. 웃음의 마음가짐은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경쾌한 웃음은 경쾌한 생각으로 이어져 그것은 다시 경쾌한 행동으로 표현된다. 궁극적으로 밝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이다.

-로그(logue) :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웃음의 논리 구조이다. 대상과의 관계가 블록의 퍼즐처럼 형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객체간의 관계성은 절제되어 있음과 동시에 서로를 반영하며 대화한다.



이기섭作 '흐름을 따르라'.

-원&정사각형(Block) : 공간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다양하게 조합된다. 정사각의 블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확대와 축소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색채의 정반합(Color) : 회색 톤 배경 위에 무채색과 유채색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다. 색 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채도를 낮추면서 무채색으로 보조를 맞춘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생각은 노력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그림'과, 색상 그림책을 구상하며 탄생한 '별곰 레모', 마음에 따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북극성 이야기' 등 작가가 꿈꾸는 다양한 바른 마음들도 만나볼 수 있다. (02)3142-5558 가연숙 기자

극적상황으로 연출된 붓다의 삶

'붓다'展 5월 12일까지

붓다의 생애를 화두로 붓을든지 1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가진화랑에서 이해기 화가의 '붓다(Buddha)' 展이 열린다.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들 중 14작품을 선별하여 화풍의 궤적을 짚어보는 전시회다.

화가는 감지(紺紙)위에 금선묘(金線描)로 대상에 대한 사실 묘사를 넘어 그 내면에 담긴 정신까지 드러나는 그림을 그린다. 무대 위의 클라이막스처럼 극적인 상황으로 연출된 붓다의 삶이 화폭마다 진중하다.

그의 그림은 일종의 수행이다. 본질에 더욱 가깝고자 하는 화가의 의도는 붓다의 고행과 많이 닮았다. 화가는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붓다라는 한 인간의 장엄한 일생을 조명하겠노라"고 다짐한다.

불교미술 대중화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남긴다.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장인에 의한 도제(徒弟) 시스템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불교 미술인들의 과제"란 것. '한 가정 한 불화 걸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화가는 붓다의 일생을 그리며 스스로에게 탁마(琢磨)의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다. (02)738-3583 가연숙 기자



작품앞에 선 화가 이해기씨.

'생활 속의 단청'展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단청문양을 생활 소품에 응용한 '생활 속의 단청'展을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신라시대실에서 개최한다.

단청작가 미몽 김미혜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단청문양을 소재로 보석함, 티셔츠, 액자, 손거울, 명함집, 소품꽂이 등 약 50여점을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故 만봉 스님의 제자인 작가는 단청과 불화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휴일에는 작가와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된다. (02)411-4763 가연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기획 초대

'다르마:부처의 가르침'展

젊은 불교미술 작가 3인이 표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조계종 문화부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다르마-부처의 가르침' 기획전시를 연다. 불교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불교문화 활동의 저변을 선도한다는 목적이다.

불교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작가 김영수는 현실의 화두로 본인의 수행경험을 고스란히 작품에 옮겨놓는다. 아카데믹한 불교미술을 지향하는 작가 서질교는 정통 조각을 불교 도상에 접목시킨다. 유식사상과 한국화의 접목을 주제로 삼는 작가 박준수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인간정신의 흐름을 좇아 작품에 반영한다. (02)2011-1772 가연숙 기자



김영수作 '윤회금지'.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신발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농협935-12-355423 박정미
문의: 080-775-7575

봉축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純金법륜(팔정도) 부처님 벽시계

개운사 환성스님의 점안으로 탄생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순금 벽시계 3종세트 사업성공과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순금법륜 달마시계, 액을 물리치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깊은 뜻을 새긴 순금 법륜 다라니경 시계, 지혜를 얻는 반야심경 법륜시계, 소원성취와 마음의 평안을 함께하는 관세음보살의 높은 뜻을 느낄 수 있는 순금 연화 관음시계, 부처님의 높은 뜻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❶ 순금 관음도 연화시계
천개의 눈고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 보살께서 빈곳은 채워주고 아픈곳은 낫게 한다는 고려불화입니다. 독한 기운은 사라져 흩어진다는 의미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관음도 법륜시계를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 승진, 건강, 부부화합 등



❷ 순금 반야심경 법륜시계
부처님의 말씀을 함축하여 모든 불자들이 염송하고 독송하여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경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장수, 건강, 후손의 발전 등



❸ 순금 대다라니 법륜시계
액운을 물리쳐 준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새긴 법륜시계로 행복과 안정을 바란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가고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형상입니다.
진취적기상, 가정의 행복, 장사나 사업하는 분 등

순금법륜시계는 가정의 행복, 자녀의 건강, 장수, 부부의 화합을 의미

순금 법륜시계는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인생의 바른길을 어둠속의 불빛처럼 밝혀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깊은 뜻으로 모든 가정이 만사형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염망을 담았습니다. 시계의 숫자판에는 12시 2시 6시 8시 10시 방향으로 액운을 물리치는 경면주사와 함께 옴마니 반메훔을 새겨 우주의 지혜와 자비를 기원했으며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에 8정도의 의미를 24K순금으로 디자인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법륜시계는 사업성공과 자녀의 건강과 시험의 합격, 승진등을 기원드리며 안방이나 학생들의 공부방에 걸어두면 길하다고 한다. 법륜시계는 액운을 물리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둥근 원형으로 새겨 가정,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이 천의 눈으로 살피시고 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빈곳은 채워지고 아픈곳은 치유된다는 의미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에 마음에 위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제품 1개의 가격은 69,000원으로 전국어디든지 빠르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지갑용 만사형통 순금 달마카드와 순금 복돼지카드를 함께 드립니다.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구입문의 : 080-775-7575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은 한 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옻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협찬

[일반형] [고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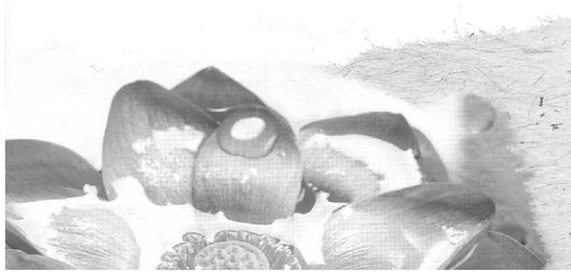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동종
삼각산 청련사
종 정
주 지 지명 덕찬
신도일동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수락산 도선사
총무원장
주 지 대은 덕우
신도일동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TEL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예봉산 금강사
승정원장
주 지 달제 지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TEL 031)512-4477

대한불교 조동종
용 천 사
승정부원장
주 지 심월 덕담
신도일동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70-6
TEL 02)2646-2700

대한불교 조동종
천마산 석본사
통원 행원
신도일동
■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 조동종
아미산 관음사
영남교구원장
주 지 청담 덕신
신도일동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79번지
TEL 052)262-6958

대한불교 조동종
반룡산 정불사
기획실장
주 지 능일 행능
신도일동
경남 긴해시 장유면 관동리 155번지
TEL 055)329-3149

대한불교 조동종
추읍산 금강사
승정부원장
주 지 법공 덕룡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2리 128-1
TEL 031)773-4747

대한불교 조동종
봉제산 우암사
감찰원장
주 지 행성 덕성
신도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 조동종
도락산 보림사
감찰부장
주 지 혜산 행은
신도일동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22-323
TEL 043)421-1318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연화승복점
가사, 장삼, 누비, 모시께끼,
두루막, 승복일체
조남진(해월)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2-63
TEL 051)558-2066, 558-0408

대한불교 조동종
묵조선 명상선원
사회국장
주 지 청산 성운
신도일동
■ 서울 광진구 군자동 125-194
TEL 02)464-8305

대한불교 조동종
동대산 건봉사
경북교구원장
주 지 운학 덕해
신도일동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175-1번지
TEL 054)746-3651

대한불교 조동종
지리산 북암사
문화부장
주 지 월봉 행허
신도일동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남포부락
TEL 055)882-5536

대한불교 조동종
백암산 오도암
법 사 정각심
■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TEL 053)984-0343
오도암 포교당 호심사
■ 경북 의성군 가억면 순호리 430-1
TEL 054)833-0668

봉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투윈미디어
대표 최유창
소리공양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투윈미디어를 사랑해 주시는
대덕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TEL 02)2265-4288

봉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주)풍경여행사
대표 이영미 실장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 보현도량 아미산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 인도, 미얀마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TEL 02)936-0419, 080-234-0108

봉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고 지켜봐주시는
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뛰는 지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사제보 · 광고 · 구독신청
TEL 055)867-0776

봉축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풍경영상사업기획
봉축 행사를 비디오 촬영,
제작을 해 드립니다.
TEL 055)746-2778
055)755-2695

상품등록
미 수 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래도록 경험많은 기술인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일동
주식회사 TG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TEL 031)792-8867
FAX 031)791-8871

(주)위니웍스는 현대불교신문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리뉴얼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2552주년
석가탄신일을 봉축드립니다.

WINI WORKS
주식회사 위니웍스

부처님께서 인터넷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새로운 깨달음! 번뇌의 끝...

WINIWORKS
(주) 위니웍스
IT통합관리 / 웹사이트개발
인트라넷 및 웹프로그램 개발
인터넷컨설팅 / CI · 로고디자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20 초원빌딩 4층 / 전화번호 : 02-515-4464
FAX : 02-549-4464 / E-MAIL : webmaster@winiworks.com

B32면 광고 새로 올려드려요!! 이걸로 출력해 주세요!!!! *** 생유바리~감샤!!